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현대불교신문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02)737-0090(직)·737-8881(대)

현대불교

불교성지순례전문
관음도량 보타산, 항주 5일
5월 8, 15, 22, 29일 699,000원
야호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교보빌딩 10층(내선3401)
TEL(02)725-7595 / FAX(02)725-7923
E-Mail: yahotour21@hanmail.net

☎구독신청 02)737-0090·대표 02) 737-8881 buddhanews.com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5월 4일(음력3월 26일) 수요일 (주간) 제524 호

동국대, 화합으로 제2건학을

내년 개교 100주년, 추락한 위상·학내 갈등 극복없이 '설립 원력' 못살려

5월 8일로 동국대(총장 홍기삼)는 개교 99주년을 맞는다. 개교 100주년을 꼭 1년 앞두고 있는 조계종 종립대학 동국대. 그러나 지금 동국대는 끝없이 흔들리고 있다. 불교계 선각자들의 원력으로 근대 민족교육을 이끌어온 대학의 100주년을 앞둔 모습은 잔치분위기라고 하기엔 너무도 초라하다.

외부기관의 대학평가 순위는 해가 갈수록 추락하고 있고, 100주년 기념사업은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다. 불자들의 염원인 일산불교병원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3년을 끌다 이제야 개원을 앞두고 있다. 불교대학의 정체도 심각하다. 한국 불교학의 총본산이라는 동국대 불교대학의 학문적, 조직적 폐쇄성은 늘 학교 바깥의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교수평가제 도입을 둘러싼 학교당국과 교수회의 갈등도 위험 수위를 넘었다. 이사회내 각종 의혹들을 문제 삼은 감사와 이사가 총장, 이사장을 고발하면서 동국대의 혼란은 극에 달하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중앙일보가 실시한 대학평가에서 2002년 24위, 2003년 30위, 2004년 37위로 매년 순위가 떨어지는 이유는 평가기준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여건과 재정' 부문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재단 전입금이나 발전기금이 거의 없이 등록금에만 의존하는데 주원인이 있다.

당장 1년 앞으로 다가온 100주년 기념사업도 문제다. 궁극적으로 불교계와 동문, 학생, 교직원을 하나로 묶어 새로운 도약의 전기로 삼아야 하지만 지금처럼 학교가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는 무리다.

일산불교병원은 그나마 개원 준비를 마쳐가고 있지만 1000억원이 넘는 개원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불교대학의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활동에 들어간 불교대학발전위(위원장 영담)는 기대와 달리 불교대학 교수들의 냉담한 반응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처럼 동국대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초래한 근본적인 책임은 재단 이사회에 있다는 지적이 많다. 2004년 재단 이사장 선출을 놓고 벌인 이사들 간의 주도권 싸움은 급기야 지난해 8월 일부 이사와 감사가 각종 비리의혹을 제기, 총장과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다. 검찰의 수사결과와 상관없이 학교는 큰 상처를 입었고, 이사회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0년 전 구국구세의 원력으로 세운 종립대학을 정상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종단과 재단은 학교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지원만 책임지고, 대학은 총장의 책임 아래 과감하고 투명한 경영을 이뤄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구성원들도 이해관계 보다는 학교의 발전을 위해 화합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제2건학의 자세로 근본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관련기획시리즈 4면



"연꽃배지 달고 이웃과 함께해요"

"자비연꽃 배지가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한다고 생각하니 기뻐요"
본사와 조계종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자비나눔 연꽃달기 캠페인에 동참한 서울 동대부속여고(교장 박명순) 학생들이 4월 28일 교정에서 친구들에게 연꽃배지를 선물하며 즐거워 하고 있다. 자비나눔연꽃달기는 7월 20일까지 계속된다. 관련기사 10면
사진= 박재완 기자

"오늘의 불사문화 건강한가?"

전통조각회·본사, 6일 세미나 개최

경제논리에 치우쳐 신앙·예술적 가치가 간과되고 있는 오늘날 불사(佛事)의 문제점을 짚어보기 위한 세미나 '불사, 시간과 공간을 뛰어 넘는 아름다움'이 대한민국전통문화재조각회(회장 한봉석, 이하 조각회)와 현대불교신문사(사장 김광삼) 공동주최로 5월 6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열린다.

세미나에서는 정영호 단국대 박물관장의 '불사의 역사와 의미, 그리고 오늘의 과제',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의 '예술로서의 불사, 그 바람직한 방향', 법산 스님(동국대 교수)의 '신앙으로서의 불사, 그 바람직한 방향'이 발표된다. 또 정재훈 전통문화예술학교 석좌교수는 '환경불사, 상생의 가르침 담아내기'를 발표할 예정이다.

논평 및 토론에는 최기영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장, 박찬수 목아불교박물관장, 김방룡 박사(조계종 교육원 상임연구원), 서재영 박사(동국대불교문화연구원)가 참가한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한봉석 조각회 회장은 "불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중국과 동남아 등에서 불상 등을 수입해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전통문화 단절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무분별한 불사로부터 우리문화를 지키고, 바람직한 불사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세미나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1986년 창립된 조각회는 문화재 수리조각기능보유자 90여명이 격년으로 불교조각회원전을 개최하고 도록을 펴내는 등의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불기 254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스크린세이버 무료 보급

* 컴퓨터 모니터상에 봉축 사진과 그림, 법문을 담은 스크린세이버를 설치해 부처님오신날의 참뜻과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내용 : 부처님 생애(팔상성도), 테마별 봉축행사, 경전 및 스님별 법어
www.buddhapia.com / www.buddhanews.com에서 다운 가능

간화선 대중화 위한 10대 선사 초청 설선대법회
법주: 진제 스님 / 5월 7일 오후 2시 범어사
※회향식 및 무차법회를 buddhanews.com에서 실시간 중계합니다.



本社 5월부터 청운동에서 업무

전화·팩스 그대로 … 책방 여시아문 임시 휴점

현대불교신문사는 건물 신축관계로 2005년 5월부터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소재 상호신용은행연수원 건물에서 업무를 보게 됩니다. 현대불교는 새 보금자리에서 빠르게 변화해 가는 언론 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불교정보의 총본산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사무공간의 이전과 관련, 부득이 책방 여시아문은 당분간 휴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여시아문(www.yosiamun.com)과 통신판매(02-737-0695, 팩스 02-737-0696)로 그동안의 성원에 보답하며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이전 주소: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구 상호저축은행연수원)
●전화·팩스: 기존의 번호 그대로
●대표 : (02) 737-8881
●편집국 : (02) 722-4162~3

●약도





염불선의 정수 '염불환향곡' 최초로 완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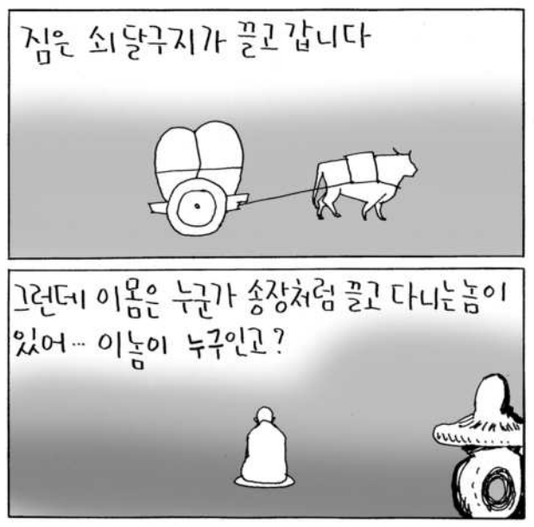
'법보시' 용으로 보급

염불은 거룩한 부처님의 명호와 말씀을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외워 간직하고 숭앙함으로써 부처님 가까이 다가가 우리의 마음이 보다 높은 열림의 차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수행의 방편입니다

<염불환향곡>은 18세기의 기성쾌성(箕城快善) 선사가 우리 마음의 본원으로 돌아가자고 지은 '염불곡'입니다. 뜻이 깊으면서도 내용이 쉽고 운율이 부드러워 조석 예불 후 염불 형태로 널리 불리어졌던 아름다운 곡입니다. 염불 정진하여 고향(극락정토)으로 돌아가기를 서원하는 염원이 담긴 노래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처음으로 <염불환향곡>을 한글 완역하고,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이 땅의 모든 이들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와 인연을 맺도록 널리 보급합니다. 법보시용으로 매우 훌륭한 <염불환향곡>을 통해 보다 많은 불자들이 숭고한 신심을 지켜 가시기 바랍니다. 보급 문의 (02)737-0695.

'할'



그림·조태호

원융 스님의 '범어사 설선대법회' 법문 24·25면에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공단등(비단등)
황금등
공단등(비단등 실크등)
종 등
팔모조립등
만월등



※ 만월등, 종등에 사찰이름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전송 : 031) 794-6288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e-mail : chanduk21@hanmail.net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강원교육으로 종지 구현 될까?

한국불교학회 '한국불교교육…' 학술대회서 문제제기

"교학과 종학의 이원화와 교상판석을 통한 강원교육 체계정비가 시급하다."

"정보통신기기 등을 적극 활용해 재가자의 삶에 깊이 스며드는 불교교육이 필요하다."

4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한국불교학회(회장 이평래) 제42회 춘계학술대회. '한국불교 교육 체계의 재검토'를 주제로 한 이번 대회에서는 출 · 재가불자 교육과정이 변하지 않고는 한국불교가 도태되고 말 것이라는 강한 위기의식이 느껴졌다.

첫 발표자로 나선 권오민 경상대 교수(철학전공)는 먼저 "사미 · 사집 · 사교 · 대교 과정으로 이뤄진 현행의 강원교육과정이 조계종 종지를 구현할 인재 양성에 적합하지 않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이처럼 말하는 이유는 교과과정이 선종중심으로 짜여 있으면서도 핵심이 될 만한 경론은 제외돼 있는가 하면, 포함된 교과목들은 난이도나 교상판석 측면에서 일정한 관계성이 결여돼 있는 등 정체성이 모호하고 계통이 없기 때문이다.

혜능의 <육조단경>, 달마의 <이입사행론> <능가경> 등이 과정에 포함돼 있지 않고, '초기불교-아비달마불교-대승공관-유식-여래장'으로 이어지는 불교사 가운데 여래장 앞의 불교는 교과과정에서 배제돼 있다. 4성제 · 8정도 · 3법인 · 12연기 등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내용 또한 다뤄지지 않고 있다.

권 교수는 강원을 마치고 동국대 불교대학에 진학하는 제도의 문제점도 비판했다. 강원에서 대교까지 배우고 난 다음에 불교대학에 입학해 불교학개론을 배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이와 관련해서 권 교수는 강원의 4년 과정을 교학(2년)과 종학(2년)으로 분리할 것을 주장했다.

재가자교육문제를 논한 김성철 동국대 교수(불교학)는 "불교도가 불교적 신념체계가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고 진단하며 "자신의 종교를 불교라 말하는 1000만 불자를 진정한 불자로 교육해내는데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기독교의 창조론과 섭리론에 대응하는 불교의 세계관을 개발하고, '내생에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오계를 부분적으로 지키기' 등의 현실성 있는 목표를 불교신행의 목표로 삼는 한편, 연령에 따른 차별화된 대기설법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4월25일 송광사에서 봉행된 조계종 제25회 단일계단에서는 467명이 구족계를 받았다.

"도업 이루기에 목숨 바치리"

조계종 467명 구족계

새 조계종 스님 467명이 탄생했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법장)은 지난 4월 25일 순천 송광사에 금강계단을 세우고 제25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식을 봉행했다.

전계화상 보성 스님, 교수아사리 종진 스님, 갈마 아사리 성우 스님과 성수, 고산, 혜정, 정관, 등각, 철우, 무관 스님 등 7증사가 증명한 이날 수계식에서 비구 254명, 비구니 213명이 구족계를 수지했다. 이 인원은 1981년 해인사에서 단일계단이 처음 설치된 이래 사상 최대이다.

수계산림 회향식에서 전계화상 보성 스님(송광사 방장)은 법어를 통해 "화합과 참고 견디는 수행의 힘을 길러 온전한 도업을 이루는 일에 목숨 바칠 것"을 당부했다.

총무원장 법장 스님도 "부처님 계법에 따라 한 치의 어긋남 없는 정진으로 무상정등각을 성취하고 인천의 스승이 돼 달라"고 격려했다.

송광사=이준엽 기자

올 한중일대회 10월 부산에서

종단협 이사회 결의

올해 한중일대회가 10월 24~26일 부산에서 열린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법장)는 4월 28일 이사회를 열고, 한중일대회를 부산에서 개최키로 했다. 원래 3월 14일 열린 한중일대회 예비회의에서 경주로 결정됐으나, 부산시가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차원에서 대대적인 물량지원을 약속, 장소를 변경했다. 부산시는 행사장과 김해공항까지 셔틀버스 운행, 공항내 안내데스크 설치, 3국 대표스님 의정차량 제공, 문화예술행사및 부산시 문화회관지원, 시장 만찬 개최등을 약속했다.

또 종단소개책자는 5월중 인쇄 출판하고, 각 종단에서 거출한 쓰나미 성금 1억원은 낙산사 산불피해 복구 지원에 전달키로 했다.

김원우 기자

수덕사 종회의원 정묵 스님 당선

조계종 제7교구본사 수덕사는 4월 26일 제13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단독출마한 정묵 스님을 선출했다.

정묵 스님은 1968년 수덕사에서 출가해 76 · 79년 수덕사에서 사미계와 구족계를 각각 수계했다. 1983년부터 정각원 · 서천사 · 해인정사 주지와 1993년 수덕사 재무국장을 지낸 후 1998년 제12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현재 선본사 주지를 맡고 있다.

한명우 기자

조계종 조사국장 지용 감찰 관행·서호 스님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 새 조사국장에 지용, 상임감찰에 관행 · 서호 스님이 4월 26일자로 임명됐다.

지용 스님은 1984년 도학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용인 보덕사 주지, 소쩍새마을 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서호 스님은 혜오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호법부 조사과장을 역임했다.

한편 같은 날 서울 개운사 주지에 종범(중앙승가대 총장), 호법특보에 진원 스님(부안 내소사 주지)이 임명됐다.

남동우 기자

교황청 봉축 메시지 발표

불기 2549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의장 마이클 피츠제럴드 대주교)에서 축하 메시지를 발표했다.

종교간대화평의회는 축하 메시지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해 올해에도 여러분에게 진심어린 축하 인사를 드린다"며 "부처님오신날이 세계 도처에서 불자들과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기존의 상호 유대를 굳게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세계 누구와도 통하는 사이트

조계종 국제 사이트 쌍방향 시스템 구축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4월 28일 국제사이트 설명회를 갖고 전 세계 외국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조계종 및 한국불교에 대한 정보들에 손쉽게 접근하고 질의답변을 받을 수 있는 쌍방향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1월 1일 정식오픈을 예정하고 있는 국제사이트의 컨셉은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수행 자유 행복)'으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의 3개 사이트로 구축된다.

카테고리는 △한국불교 조계종 △사이버 선수행 △한국의 선사 △사찰과 수행 △수행일지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사이버 선수행은 텍스트뿐만 아니라 플래시와 동영상을 활용해 참선법을 지도하게 된다.

강지연 기자

근대문화재 분과위 신설 문화재청 위원도 위촉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4월 25일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을 새로 위촉했다. 전임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 위촉된 문화재위원은 9개 분과 109명, 전문위원 195명으로 각각 24명, 22명 증원됐다.

증원 사유에 대해 문화재청은 "등록문화재의 전문적인 조사 및 심의를 담당할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가 신설(14명 위촉)됐고, 경륜 있는 원로학자를 중심으로 국보지정분과위원을 별도로 위촉(10명 위촉)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신설된 근대문화재분과위원은 근대문화유산의 등록문화재 심의를 전담하게 된다.

불교문화재 전문가로는 현고 스님(조계종 종무정책보좌관), 범하 스님(통도사성보박물관 · 불교회화), 장충식 교수(동국대 · 불교조각), 정우택 교수(동국대 · 불교회화), 김리나 교수(홍익대 · 불교조각) 등이 포함됐다. 문화재위원 임기는 2005년 4월 26일부터 2007년 4월 25일까지 2년간이다.

박익순 기자

진각종 새 집행부 구성…문사부장 이행정 전수



총무 수성정사



재무 증광정사



포교 회성정사



문사 이행정전수



교법 무외정사



교육 경당정사

진각종 신임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4월 29일 통리원 총무부장에 수성(서울 혜원심인당 주교 · 전 재무부장) 정사를 임명하는 등 통리원 · 교육원 각부 부장 및 국장인사를 단행했다.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이날 재무부장에 증광(대구 경산심인당 주교), 포교부장에 회성(대구 불정심인당 주교 · 전 문화사회부장), 교육원 교법부장 무외(서울 무애심인당 주교 · 전 포교부장), 교육부장 겸 진각대학 교무처장에 경당(대구 시경심인당 주교 · 전 진각대학 교무처장) 정사를 각각 임명했다. 문화사회부장에 이행정(경주 상석심인당 주교) 전수를 각각 선임했다.

김원우 기자

역사문화기념관 '의혹' 형사고발

불교중앙박물관 전시실 공사건이 김모씨에 의해 4월 7일 형사고발됐다.

이와 관련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4월 27일 불교계 기자들과 오찬에 앞서 "원장 취임 후 높아졌던 종단 위상이 최근 발생한 종단 관련 문제 때문에 한순간에 추락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영담 스님은 4월 28일 조계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불교중앙박물관 전시실 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 이후 공사비 과다계상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 유철주 기자

일붕선교종, 재단에 승소

(재)일붕선교종(총무원장 동봉)과 일붕선교종(총무원장 법철)이 벌여온 일붕선원 관리와 주지직과 관련한 소송에서 일붕선교종 측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월 7일 "(재)일붕선교종은 일붕선교종 측 주지가 직무를 집행하는 것과 일붕선원을 점유 관리하는 일체의 행위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에대해 (재)일붕선교종은 이에대해 4월 27일 항소했다.

강유신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대표전화(02)737-8881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지름보살’ 포교 호재? 악재?

종교를 활용한 패러디 문화의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최근 온라인 콘텐츠 공급업체인 써니YNK(대표 윤영석)의 ‘지름보살’이 메신저를 타고 네티즌 사이를 종횡무진 누비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름보살’은 ‘물건을 구입하다’라는 뜻을 가진 인터넷 은어 ‘지르다’와 보살이 합성된 신조어. 다시 설명하면 충동구매를 강요하는 신을 뜻한다.

MSN 7.0버전 ‘아이템 동네’에서 새롭게 선보인 지름신 시리즈는 플래시 윙크 기능에 맞춰 개발한 엽기 유머 콘텐츠물이다. 근엄한 보살상이 카드를 긁어대며 연신 ‘질러라’를 외쳐대는 이 시리즈는 강력한 충동구매의 번뇌를 일으키게 한다. 이렇듯 네티즌 사이에 지름보살의 주가가 치솟



으면서 인터넷상에는 이를 소재로 한 다양한 합성사진 시리즈가 올라올 정도로 반응이 좋다.

하지만 교계에서는 불교에서 신성시되는 보살상을 무분별하게 엽기코믹물로 패러디하는 것은 불교를 폄하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김응철 교수는 “불교의 보살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패러디문화도 간접적인 포교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자칫 불교문화를 왜곡 시킬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써니YNK 윤영석 대표는 “지름보살은 불교 폄하가 아닌 하나의 인터넷 문화콘텐츠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름보살의 반응이 좋을 경우 앞으로 네티즌들의 감성과 흥미에 맞는 불교 콘텐츠를 적극 개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서병문 원장은 “불교문화와 사상이 효과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문화콘텐츠산업에서 충분히 활용 · 창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병철 기자**

신속한 대응이 영국사 지켰다

영동 산불 사찰 10m앞까지 접근…신도회 · 소방당국 · 군부대 ‘일사불난’

천년고찰 영국사가 소방당국과 신도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강풍속의 화마를 이겼다.

4월 27일 영동군 양산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28일 오후 5시 45분경 사찰 10m 앞까지 접근했으나, 소방당국과 신도회원들은 산불과 사투를 벌인 끝에 영국사를 지켜냈다. 오후 6시경 불길은 영국사를 비껴 지나갔고, 29일 오전 10시 현재 산불은 거의 진화됐다.

영국사가 화를 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소방당국, 공무원, 신도회원들이 혼연일체가 돼 산불에 대응했기 때문. 소방당국은 헬기 15대와 소방차 17대를 영국사 주변에 집중 배치해 불길을 차단했고, 영동군 손문주 군수는 산불이 발화한 27일부터 29일까지 현장을 지키며 산불진화를 지휘했다.

신도회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다. 신도회장 배상우씨는 산불로 영국사가 위험할 것임을 감지하고 27일 신도회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영동 · 옥천 · 대전 등지에 있는 신도들을 불러 모았다. 이날 밤 달려온 50여명의 신도는 영국사에 있는 유물들을 안전한 곳에 대피시켜 일찌감치 화마에 대비했다.

산불이 거의 진화된 29일 오전에도 60여명의 신도가 영국사에 나와, 산불진화를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과 군인 600여명에게 차와 음식을 지원하고 있다.

사흘 밤낮으로 산불과 싸웠던 배상우 신도회장은 “영국사를 지켜낸 것은 신도회뿐 아니라 소방당국과 영동군, 군부대까지 한 마음으로 동참했기 때문”이라고 공을 돌리며 “모두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천태산 중턱에 자리잡은 영국사는 신라 문무왕 8년(668년)에 원각대사가 창건한 곳으로, 많이 알려진 곳은 아니나 사찰 내에 보물 제532호 부도, 보물 제534호 원각국사비, 보물 제533호인 삼층석탑, 충북유형문화재 제61호 대웅전, 천연기념물 제223호인 은행나무(수령 600여년) 등 문화재가 가득한 곳이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천태 어린이 체육대회 557명 참가 성황

“천태 어린이 불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끝가지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4월 24일 대구 남부초등학교에는 성화가 타오르는 가운데 알록달록 특유의 단체복을 차려입은 남부지역 17개 천태종 사찰의 어린이불자 557명의 함성이 하늘을 찌른다. 제16회 남부지역 천태 어린이 체육대회가 열린 것.

오전 9시, 체육대회 개회를 위해 대형아치를 통과하는 선수 입장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사물놀이를 앞세운 마산 삼학사, ‘2005 울진 세계 친환경 농업엑스포’ 개최를 홍보하는 봉화사, 대성사는 법고, 목어, 운판, 범종 사물을 주제로 입장해 눈길을 끌었다. 진해 해장사는 독도 수호대를 자처하고, 상주 청룡사는 곶감 캐릭터 감돌이와 감순이를 앞장 세웠다.

경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응원 열기 또한 만만치 않았다. 진주 월경사는 흰 티에 이름을 새긴 노란 하트를 앞뒤에 붙이고 머리에는 별 무늬 가득한 머리수건으로 장식, 응원 2연패에 도전했다. 응원도구도 만만치 않다. 북은 기본. 빨간 플라스틱 세숫대야, 고무장갑까지 기상천외한 도구들이 모두 동원됐다.

피구, 단체줄넘기, 흥부네 이불 통과하기 등 사찰별 경기와 파도타기, 디스코 릴레이, 도전 의자왕 등의 이색 게임이 청룡, 황룡, 코끼리, 사자 등 4개 팀으로 나눠 진행되는 동안 운동장에는 밝은 웃음과 함성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체육대회를 기획하고 준비한 동지스님은 “정서적으로 부족한 요즘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협동심과 불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모든 선생님과 하나 되어 준비했다”고 밝혔다. **배지선 기자**

불자들에게만 산문 개방

문경 봉암사

부처님오신날과 정초, 백중기도 때에 사찰출입을 개방했던 문경 봉암사가 올해부터는 사찰출입을 불자들에 한해 개방한다고 4월 27일 밝혔다. 특히 종교와 관계없이 누구나 출입할 수 있었던 부처님오신날에도 앞으로는 불자들만이 출입할 수 있다.

조계종 종립 특별선원이 있는 봉암사는 그동안 부처님오신날에 일반인들에게 사찰을 개방해왔으나, 등산객의 무분별한 행위와 관광여행사들의 호객행위로 인해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는 물론 사찰행사에 차질을 빚는 등 직 · 간접적인 피해를 입어왔다.

한편 봉암사는 4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열리는 한국전통찻사발축제에 협조해 달라는 문경시의 요청에 따라 전야제가 열리는 4월 29일 행사 관계자와 불자들에 한해 사찰을 개방하기로 했다. **박봉영 기자**

독도에 봉축연등 밝힌다

조계사, 6일 지킴이등 걸고 위령재

우리나라 국토의 최동단 독도에 부처님오신날 봉축연등이 내걸릴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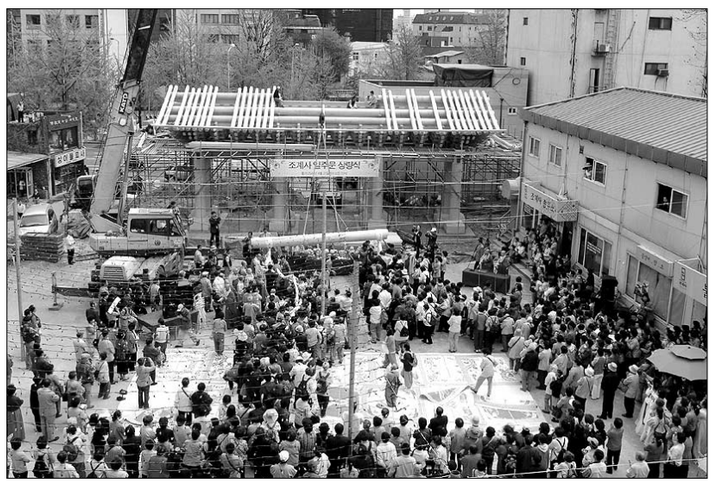
서울 조계사(주지 원담)는 부처님오신날을 즈음해 5월6일경 독도등대에 ‘독도지킴이등’을 내걸고 독도를 지키려다 순직한 수비대 · 경관 등을 기리는 위령재를 봉행한다. 이와 관련해 조계사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연등을 설치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으며, 경찰청과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조계사의 위령재 및 독도지킴이등 점등식 계획안에 따르면, 5월 1일 조계사 종무원과 신도로 구성된 실무팀이 독도로 입도해 등대 주변에 직경 90cm 크기의 지킴이 등 10여개를 설치한다.

그 뒤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을 비롯한 30여명의 불자들은 5월 5일부터 10일 사이에 독도에 들어가 점등식과 순직경관 위령재를 봉행한다. 5월 18일까지 불을 밝히게 될 독도지킴이등은 독도는 물론 동해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밝게 비출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사측은 “부처님오신날을 즈음해 우리 땅 독도를 수호하고자 하는 불자와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봉축연등을 내걸어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용수 기자



조계사 일주문 상량식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를 추진 중인 조계사(주지 원담)가 4월 27일 새 일주문 상량식을 봉행했다. 조계사 일주문은 15평 규모에 산문형식의 외7포 외7포 맞배지붕 형식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의 전통양식이다. 조계사는 이날 일주문 상량식 봉행 후 부처님오신날 이전에 일주문을 완공하고 오는 8월 중 대웅전 중수 기와공사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1차 성역화 사업을 끝낼 예정이다. 사진=조용수 기자

“국제사회 종교화합이 필수”

재가연대 세미나서 강조

“현재 선언적으로 규정된 종교자유 관련 법령이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 강화돼야 한다.”

참여불교재가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준비위원장 박광서, 이하 연구원)이 4월 29일 마련한 ‘국제종교자유실태와 정책동향’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종교자유 관련법과 제도의 ‘현실적 강화’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의 종교자유 현황을 발표한 종교문화연구소 이진구 연구위원은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제 교회를 대표해 말하지 않으며 교회 또한 저를 대신해 말할 수 없다”고 연설한 케네디의 예화를 제시하며 공직자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한양대 박규태 교수와 한국외대 류경희 교수는 종교간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철주 기자**

동국대 검찰 고발 취하요구

비리의혹 공개토론 제안

4월 26일 일산불교병원 회의실에서 열린 동국대 제209차 이사회에서 상임이사 영배스님은 종상 스님을 비롯한 반대 측 이사들을 향해 먼저 ‘필동병원 매입건 등’에 대한 검찰 고발의 취하를 요구했다. 그러나 종상스님은 “이사장이나 상임이사가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고발취하 대신 비리의혹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앞서 이사회는 일산불교병원 운용자금 300억원에 대한 기채를 승인했다. 또 장윤스님을 직원징계위원에서 해임하고 새 징계위원으로 혜림 스님을 선임했다.

한편 동국대 교수회(회장 염준근)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각종 동국대 비리 의혹과 관련해 4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재단 이사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조용수 기자

안국선원 뉴욕분원 개원

현지인대상 선불교 강좌



미국의 뉴욕에 간화선을 전할 도량 안국선원 뉴욕분원이 4월 17일 문을 열었다. 미국 내 안국선원 분원으로는 휴스턴에 이어 두 번째.

박법륜화 보살의 보시로 뉴욕 맨허튼 웨스트 29번가에 뉴욕분원을 마련한 (재)안국선원은 4월 17일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을 비롯해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법회(사진)를 봉행했다. 앞으로 안국선원 뉴욕분원은 미국내 선불교 대중화를 위해 간화선 지도, 수불 스님의 동영상 법회 등을 연다. 또 현지 미국인들을 위한 선불교 강좌도 정기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개원법회에서 수불 스님은 “뉴욕분원의 개원은 단순히 분원이 생기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찾는 교민과 현지 미국인들이 확고한 신심과 보리심을 일으켜 각자가 깨달음을 직접 체득하게 되는 법계의 주인으로 거듭나는 큰 걸음이 될 것”이라고 법문했다.

한편 안국선원은 개원에 앞서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수불 스님을 법주로 ‘간화선 수행 특별지도’ 강좌를 마련해 뉴욕분원의 개원을 축하했다. **박봉영 기자**

2005 대한민국 불교음악 페스티벌 찬불, 그 크신 가피 속으로...

행사 1,

제5회 창작찬불가 공모

불교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의 창조적인 조화를 바탕으로 21세기 불교정서를 표현 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찬불가를 창작 · 보급하고자, 제5회 창작찬불가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불교음악의 유일한 등용문으로써의 권위를 지니는 본 공모에 재능 있는 음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1. 공모부분 | ● 독창곡 ● 합창곡
   ※ 노랫말이 필요하신 분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가사모둠방 이용
2. 접수기간 | 2005년 9월 5일 (월) ~ 2005년 9월 9일 (금)
3. 입상발표 |
   2005년 9월 27일 조계종 홈페이지 / 교계신문 / 입상자 개별 통보
4. 시상내역 |
   - 대 상 1명 (상금 500만원, 상패)
   - 우수상 1명 (상금 300만원, 상패)
   - 장려상 2명 (상금 100만원, 상패)
   - 입 선 5명 (상금 20만원, 상패)
   - 아름다운 노랫말상 1인 (상금 100만원, 상패)
5. 시상 및 연주 | 2005. 12. 6 (화요일) 오후 2시 / 리틀엔젤스예술회관

행사 2,

2005 대한민국 불교합창 콩쿠르

불교합창단의 지역간 균형 있는 불교음악 발전과 친목 도모 및 불교음악인의 위상과 자긍심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대한불교조계종과 문화관광부를 비롯한 25개 종단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불교음악 축제입니다. 이에 적극적인 관심과 수희동참 바랍니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예 선	서울	2005. 10. 14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 (예정)
	경기	2005. 10. 15 (오후 2시)	
	충남 · 충북	2005. 10. 17 (오후 2시)	※ 지역예선 장소는 별도 지정함
	경북 · 경남	2005. 10. 20 (오후 2시)	
	제주	2005. 10. 24 (오후 2시)	
본 선		2005. 12. 6 (오후 2시)	리틀엔젤스예술회관

2. 경연방법 | 예선 · 본선 : 지정곡 1곡, 자유곡 1곡(총 2곡)
   ※ 지정곡 악보는 종단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다운 받아 사용
3. 접수기간 | 2005년 9월 5일 (월) ~ 2005년 9월 9일 (금)
4. 시상내역 |
   - 대 상 1팀 (상금500만원, 상패)
   - 우 수 상 1팀 (상금300만원, 상패)
   - 장 려 상 3팀 (상금100만원, 상패)
   - 지휘자상 1인 (상금200만원, 상패)

행사 3,

2005 불교 전통음악과 오늘의 소리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문화로 오롯이 자리 매김하고 있는 불교의 전통 음악을 계승 · 발전하며, 나아가 21C의 우리문화를 선도 할 수 있는 불교음악을 창작 · 시연합니다. 의식곡을 비롯한 생활 찬불가와 무대 연주곡(합창/기악)등을, 불교 전통음악 작곡 기법으로 창작한 것으로 불교음악의 방향과 정체성 구현에 뜻을 둔 행사입니다.

1. 일 시 | 2005년 12월 6일(화요일) 오후 7시
2. 장 소 | 리틀엔젤스예술회관

문 의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02)2011-1770
실무총괄 황학현 02)725-7527, 011-274-8678
※ 행사 세부내용 및 서식은 조계종 홈페이지 (www.buddhism.or.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최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주 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시 행 사)불교음악협회

건학 100년 동국대 이대론 안된다

내년 2006년 5월 8일로 동국대는 건학 100주년을 맞는다. 그러나 100주년을 1년 앞둔 지금 동국대는 혼란에 휩싸여 있다. 학교운영의 핵심인 재단 내부 고발사태로 불거진 각종 비리의혹은 100년 사학이라는 전통을 무색하게 만들면서 학교 이미지에 커다란 손상을 입혔다. 또 각종 대학평가는 바닥을 헤매고 있고, 100주년 기념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불교대학은 종립학교 이미지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총장과 교수회 등 구성원들의 갈등은 깊어만 가고 있다.

“더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 … 위기를 기회로”

1.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2. 불교대학 ‘개혁’ 만이 살길이다.
3. 재단에 대학발전 기대할 수 있나?
4. 100년 동국대 비전은 어디에?

전국 대학 평가 37위 … 경주병원 최하위권
이사회 화합 · 실질적 재원조달 계획 시급
일산병원 개원 · 100주년 사업 등 발전 계기돼야

■동국대의 현주소

동국대가 학교의 재정과 교육여건 등을 종합 분석해 지난 2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항목에서 경쟁 대학과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교수확보율은 교육부 기준의 45.8%에 그쳤으며, 서울캠퍼스의 교지 면적도 교육부 기준의 40%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운영 외에 필요한 교원확보, 연구지원, 교직원과 학생 복지 등에 소요되는 자금인 적립금 현황은 2003년 결산을 기준으로 이화여대가 4517억원, 연세대가 1527억원, 경희대가 1485억원 등인데 비해 동국대는 209억원으로 턱없이 낮은 수준이었다.

대외협력처의 한 관계자는 “2003년 100만등 달기로 발전기금 모금을 대대적으로 벌였지만 지금까지 순수 모금액은 약 5억원 남짓인 것으로 안다”고 말해 사실상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노력으로 각종 연구사업을 유치하는 국고보조금도 99년 19억3500만원이던 것이 2003년 8억 1400만원, 2004년 3억2200만원으로 급감했다.

사회적 관심이 컸던 중앙일보의 대학평가결과 종합순위도 4년제 200여 대학 중 2003년 30위에서 2004년 37위로 추락했다. 일부에서는 벌써 “올해는 40위권 밖일 것”이라며 “그나마 100년 사학이라는 ‘이름값’으로 30위권대에 명함을 내민 것이 다행이다”는 자조 섞인 말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교육여건 재정, 교수연구, 개선도 등에서 동국대는 지난해 각 60위, 48위, 82위라는 초라한 성적을 거뒀다. 이 가운데 눈여겨 볼 것은 82위로 처진 ‘개선도’ 분야다. 이는 현재 동국대의 복잡한 학내 사정을 그대로 반영하는 결과다.

이에 대해 한 교수는 “비슷한 규모의 중앙대(11위) 성균관대(6위) 고려대(5위) 등은 각종 교육지표를 높이기 위해 재단과 동문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대학당국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학교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학당국이 말하는 발전 방안

대학당국은 지난 2월 교육시스템 선진화, 인프라 및 행정지원 시스템 구축, 특성화 집중육성, 연구성과 향상 등의 ‘동국 100년 장기발전계획’을 발표하고 2010년 10대 명문 사학, 2014년 3대 명문, 세계 100위권 대학 진입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 교육부문 강화를 위해 4월 4일 교무위원회는 교수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년교수들의 연구 · 교육 업적을 평가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일부 교수들이 익숙하지 않는 제도 도입에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실제 도입되면 오히려 교수들의 수당과 연구비가 더 늘어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수회는 “대학당국이 말하는 발전방안은 구체적인 재정조달 계획도 없는 허망한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하고 “재단과 학교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수들만 쥐어짜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총장의 대학 경영 문제없나?

홍기삼 총장은 취임 후 틈만 나면 변화와 개혁을 외쳤지만 구성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실제로 취임 3년차에 접어든 홍 총장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중앙일보 대학종합평가에서 동국대는 37위로 평가받았다. 등수를 매기지 않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종합평가에서는 평가대상 학과 대부분이 ‘개선요망 수준’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병원평가에서도 경주부속병원은 78개 대형병원 가운데 77위 등급을 받았다.

홍 총장은 “필동병원 매입 등 부족한 공간 확보를 위해 300억 넘는 재원이 한꺼번에 투입되면서 교육관련 투자를 못했던 탓으로, 올해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학교육협의회 이현청 사무총장은 “요즘 같은 대학간 무한 경쟁시대에 한번 추락한 등수를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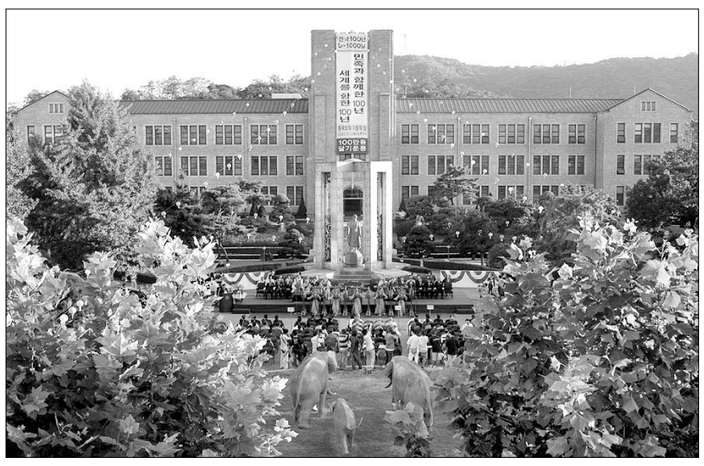
총장의 개인적 자질에 대한 시비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02년 말 재단 이사회의 총장 선출 과정에서 자격시비로 인한 잡음이 적지 않았던 데다, 2004년 8월 종립대학의 수장인 총장과 이사장이 비리의혹으로 고발당했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검찰 수사로 출국금지까지 당하는 수난을 겪었다. 이에 따라 총장의 대학경영과 외부활동이 제약되면서 외부 발전기금은 바닥수준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대학보직을 맡았던 한 교수는 “총장의 취임 첫 해는 직원사회를 양분하는 이른바 ‘코드인사’ 탓에 대학이 제대로 일을 할 형편이 못되었다”는 한 마디로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일산불교병원 개원 어떻게?

이러한 혼란 속에서 3년여 동안 개원을 미뤄왔던 일산불교병원은 5월말 (가)개원을 목표로 개원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산불교병원 이석현 원장은 “시설 · 장비 · 인력의 경쟁력 면에서 타 병원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앞서있다”며 성공적 개원을 자신하고 있다. 일산불교병원은 인근에서 최근에 지어진 새 건물로, 국내 유일의 EMR(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시설과 장비 면에서 최고수준이다. 게다가 분야별 최고 명의들이 포진해 있음을 강조했다. 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전국 병원과 경쟁해도 손색이 없다는 것이다.



조계종립 동국대학교가 건학 100년을 계기로 제2의 도약을 하려면 구성원의 화합이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은 동국대 ‘팔정도상’ 앞에서 법회를 봉행하는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그러나 어려움도 있다. 우선 개원에 필요한 재원조달이 가장 큰 부담이다. 1100억원을 예상하고 있는 개원 자금을 대부분 차입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단기간 내 흑자를 내지 못하면 자칫 대학과 병원이 공멸할 수도 있다. GS건설(옛 LG건설)과 소송중인 공사비 잔금 문제도 걸림돌이다. GS건설은 지난해 4월 동국대 재단을 상대로 230억원 가압류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개교 100주년 준비 얼마나?

내년에 100주년을 맞는 동국대는 2002년 ‘건학100주년기념사업회(본부장 이관제, 이하 기념사업회)’를 발족시켜 준비해 왔다. 하지만 100주년을 1년 남긴 지금, 동국대는 ‘축제’를 앞둔 학교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 침체된 분위기다. 100주년이라는 도약의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동국대가 계획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념사업에는 △비전(Vision) 선포식(2005. 9) △일류동국 도약기원 봉축연등 점등식(2006. 5) △ ‘지식기반사회와 불교생태학’ 외 국제학술대회 3건(2006. 5) △<우리말 불교개념사전> 외 출판사업 5건(2006. 9) △일산불교병원 개원 및 100주년기념관 건립(착공) 등이 있다.

기념사업회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사업의 중량감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이 중론이다. 100주년을 맞아 올해 5월 ‘세계대학총장 포럼(세계 24개국 94명과 국내 104명의 총장 참석)’, ‘노벨상 수상자(10명) 강의시리즈’ 등을 개최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고려대와 비교해볼 때 동국대 기념사업에는 그다지 눈에 띄는 것이 없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100주년기념관 건립사업이다. 기념사업회는 100주년에 즈음해 서울과 경주에 기념관을 착공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부지조차 확정되지 않아 착공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다. 고려대는 물론 동국대와 같이 2006년 100주년을 맞는 숙명여대가 100주년 기념관을 이미 완공한 것과 대조적이다.

동국대 기념사업이 안고 있는 더욱 근본적인 문제점은 100주년을 학교구성원의 화합과 발전의 계기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동국대 한 교수는 “기념사업회가 공개하지 않아 사업 진행 추이를 전혀 알 수 없다”며 “다른 교수들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강지연 · 조용수 · 박익순 기자

인터뷰

홍기삼 총장
“사리사욕 버리고 학교 미래 생각해야”



홍기삼 총장은 말을 아꼈다. “구성원 모두가 사적인 욕심을 끊고 학교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면서도 정작 학교가 혼란에 휩싸인 원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하지만 홍 총장은 “긴축과 경영효율을 위해 구성원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총장으로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교수 직원 사회에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교육, 연구, 행정 업적을 배가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교 안팎의 혼란과는 상관없이 학교의 기본을 다잡아 가겠다는 것이다.

염준근 교수회장
“재단-학교-교수회-학생 화합에 미래 달렸다”



“동국대 위기의 본질은 재단 · 학교당국 · 교수회 · 학생이 화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동국대 교수회장 염준근 교수(동국대 통계학과)는 동국대 추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구성원 상호간의 불신과 반목이라며 신뢰회복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염 교수는 특히 제도개정 과정에서 학교 측이 보인 자세에 대해 비판했다. 염 교수는 “재정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홍기삼 총장으로서는 교수들을 강제하는 것만이 학교평가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을 것”이라면서, “이는 홍 총장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2005 울진 세계 친환경 농업엑스포 성공기원

불기 2549년 천태연합 봉축 법요식 및 예술제



지난해 봉행한 2004 울진세계친환경농업 엑스포 성공기원 천태연합 봉축 법요식

울진지역 천태사암연합회가 불기 2549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2005 울진 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성공기원 천태연합 봉축 법요식 및 예술제를 본종단 전운덕 총무원장 스님과 종단 대덕스님, 여러 내빈들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불자님께서는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행사는 울진군민의 엑스포 성공기원 의식고취와 울진군 천태종 7개 사찰이 한자리에 모여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고 울진 천태인들의 화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음

● 장 소 : 울진 청소년 수련관 ● 일 시 : 불기 2549년 5월 11일

1) 1부 : 예술제(17:00~18:20)
육법공양 시연. 찬불가가수 머루와다래. 이생강독주. 거문고독주. 사물놀이공연. 합창단 찬불가 등
2) 2부 : 봉축법요식(18:20~19:00) 3) 3부 : 제등행렬(19:00~)

천태 울진 사암연합회 TEL 054)783-3035 / FAX 054)782-4684

성철 스님 뜻 퍼져 나간다

백련불교문화재단, 4월 25일 부산 고심정사 개원



성철 스님의 뜻을 펼칠 고심정사가 4월 15일 연건평 930평 규모로 부산 중앙동에 문을 열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부산 중앙동 고심정사에서 되살아나 대중들을 찾아온다.

4월 25일 개원한 고심정사는 성철 스님의 뜻을 도심 속에 널리 펼치기 위해 백련불교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사찰.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따랐던 불자부부의 기증으로 불사가 이루어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들 부부는 성철 스님이 머물렀던 인연을 가르침을 펴는 공간으로 써 달라며 토지 일체와 건물을 백련불교문화재단으로 기증했다. 고심정사는 이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6층 연건평 930평 규모의 현대식 건물로 새롭게 태어났다. 고심정사는 수행, 포교 공간뿐 아니라 부산 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심정사가 가장 주안을 두는 점은 성철 스님의 뜻을 이어 선의 기본을 바로 세워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간화선의 기초를 대중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 성철 스님을 시봉했던 원택 스님이 직접 참선반 지도에 나설 예정이며 주부나 일반인을 위한 주간반,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반으로 참선반을 모집하고 있다. 한달 과정으로 계획중인 참선반은 위빠사나, 요가선 등 다양한 수행법 가운데서 간화선의 방향성을 확고하게 잡아주는 '선의 입문' 과정에 해당된다. 이 밖에도 토요일 오후 8시부터는 철야 용맹정진 수행도 진행된다.

기증 받은 토지, 수행 포교 시민 공간으로
원택 스님 '참선반' 운영…용맹정진도 진행

고심정사 주지 원택 스님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근본과 성철 스님의 체험을 제대로 전달해서 많은 대중들의 발심과 수행을 이끌어가는 도량이 되겠다"고 말했다. (051)464-0068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진주 여래사, 경로위안잔치



4월 22일, 진주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 가수 주현미의 흥겨운 노래가 지역 노인들의 박수 소리와 어울려 울려 퍼졌다.

배일호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연은 진주 여래사(주지 동봉) 신도회와 사회봉사 불국정토회(총재 동봉)가 1979년부터 꾸준히 개최하고 있는 시민위안 경로잔치가 열린 것(사진). 올해로 11회째.

진주지역 2천여 어르신들이 함께 한 이날 공연은 노래가 끝날 때 마다 박수가 쏟아지고, 배일호씨의 재담에 웃음이 터지고 국악인들의 민요가락에 어깨가 절로 들썩이는 어르신들의 얼굴이 어느새 환하게 밝아지고 있었다.

이날 행사는 동봉 스님이 노인복지, 지역복지, 교도소 포교 등을 위해 설립한 사회봉사불국토회에서 마련한 것이다. 불국정토회는 이 밖에도 여래사가 위치한 상봉동 거주 65세 이상 노인들의 생일상 차려드리는 행사를 42회째 실시하고 있다.

동봉 스님은 "오늘날의 물질적 풍요는 절로 이뤄진 것이 아니며 노인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그간의 노고와 희생에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고 마음 편하게 여생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용호복지관, 장승축제 개최

지역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지역 문화축제인 용호장승축제가 5월 6일부터 7일까지 열린다.

용호복지관(관장 혜총)가 지역 주민들의 단합과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해 기획한 장승축제는 올해로 두 번째. 올해 축제는 6일 오후 2시 용호복지관 담장을 따라 세워진 10두의 장승에 지역 주민대표 및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돼 모시는 장승제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첫날에는 지역 내 칠순, 팔순, 구순 어르신을 위한 장수잔치, 먹거리, 볼거리 이벤트 등 흥겨운 행사가 열리는 주민참여축제 행사와 4월 1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장승그리기 대회 시상식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둘째 날인 7일에는 어버이날을 하루 앞두고 어르신 효 큰잔치를 열고 독거 노인 및 영세 노인 1천명을 초청 공연 및 식사를 대접한다. (051)628-6737

천미희 기자

대구불방 '한마음 합창제'

대구불교방송과 삼영불교서점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2005 한마음 합창제'를 개최한다.

5월 3일 오후4시 대구 인터불고호텔 전시컨벤션홀에서 개최되는 합창제는 1부 합창제, 2부 저녁 만찬, 3부 축하공연으로 진행된다. 1부 합창제는 포항 옥천사 반야합창단을 비롯해 대구 은적사 룸비니 합창단 등 단원 25명 이상을 보유한 11개의 대구경북지역 불교합창단이 참가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예정이며, 3부 축하공연에는 대중가수 안치환의 축하공연이 이어질 예정이며, 정률 스님과 도일 스님이 특별 출연한다. 대구불교방송은 합창제실황을 녹음중계방송하고 테잎과 CD를 제작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053) 427-5114

배지선 기자



부산 · 대구 봉축행사 준비 분주

4월 29 · 23일 점등식

부산과 대구 봉축위원회가 4월 29일과 23일 각각 봉축상징물 점등식을 열고 봉축행사에 돌입했다.

부산 봉축위는 점등식을 시작으로 부산시 전역에서 4월 29일부터 5월 15일까지 곳곳에서 다양한 봉축행사를 마련한다.

5월 5일 오후 3시부터 봉축연합대법회 및 제등행진을 부산역 광장에서 개최하는 것을 비롯 4일에는 부산발전기원 3천배 철야정진이 부산역광장에서 봉행된다.

이 밖에도 각종 복지행사를 중심으로 한 '나눔의 장', 시민과 함께 하는 전시와 공연 중심의 '시민과 함께', 청소년 행사 중심의 '미래의 장' 등이 부산 전역에서 열리며 부처님 오신 기쁨을 시민과 함께 나누게 된다.

대구 봉축위는 4월 23일 대구국채보상공원에서 봉축탑 점등식(사진)을 봉행했다. 이날 점등식에 앞서 오후 4시부터 컵등 시연회, 봉축 캐릭터 그리기, 연등 소원지 달기, 단청그리기, 영산재, 난타공연 등이 펼쳐져 대구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대구 봉축위는 5월 8일 오후 4시부터 두류야구장에서 연등축제를 봉행하고, 두류공원에서 두류네거리, 반고개를 지나 반월당네거리까지 이어지는 제등행진을 펼칠 예정이다.

천미희 · 배지선 기자

"108배로 참여하는 음악회"

명상 통한 지구사랑 새겨



2005 지구의 날을 맞아 4월 24일 김영동과 함께하는 "일백여덟번의 절로 참여하는 음악회"가 열렸다(사진).

이날 행사는 대구종교인평화회의, (사)생명과평화의길 대구모임이 주관했다. 은적사 주지 허운 스님, 고산성당 정홍규 신부 등 지역 종교계 인사와 대구시민 300여명은 약 1시간 동안 김영동씨의 한 음반 '생명의 소리'에 맞춰 108배를 한 후 명상을 하며 지구사랑과 공경의 마음을 담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보냈다.

편안한 대금소리가 도심을 흐르고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돌아볼 수 있는 멘트가 흘러나왔다. 일배, 일배, 멘트에 따라 몸과 마음을 맡기며 행사에 동참한 시민들은 더욱 깊이 내면으로 잦아드는 모습이었다.

김영동 씨는 "웰빙 시대, 심신이 건강한 사회를 발원하며 생명의 소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영동씨의 2차 공연은 부처님 오신날인 5월 15일 광주 증심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우수 불교도서 특별전

부처님의 지혜를 밝혀주는 41종의 금싸라기 책

-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 김영사 · 달라이 라마
- 성철스님 시봉 이야기 1,2 김영사 · 원택
- 길을 걷는 자, 너는 누구냐 더북컴퍼니 · 장휘옥
- 365일 부처님 말씀 동승동 · 윤창화
-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 민족사 · 석성우
- 왕초보, 불교 박사 되다 민족사 · 석지현
- 도반 1,2 리즈앤북 · 원성
- 부처님 지혜를 배우는 불교우화 41가지 운주사 · 정수일
- 그래서 어쨌단 말인고 들녘 · 이오안나 살라진
- 부처와 돼지 시리즈(전4권) 들녘 · 고이즈미 요시히로
- 불교를 알기 쉽게 밀알 · 서종범
- 법화경의 세계 - 믿음으로 깨어나기 부다가야 · 히라가와 아끼라
- 남 잘되게 하기 부다가야 · 오심
- 마음 공부 이야기 불광출판부 · 법상
- 현대 심리학으로 풀어본 유식 30송 불광출판부 · 서광
-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장승 · 홍사성
- 홀로 사는 즐거움 샘터 · 법정
- 마음을 밝혀주는 60가지 이야기 솔바람 · 방경일
- 나는 붓을 던져도 그림이 된다 아름다운 인연(조계종) · 박영택
- 소똥 줍는 아이들 아름다운 인연(조계종) · 최시선
- 선 너는 누구냐 여시아문 · 현대불교신문사
- 왜 사는가 1,2 열림원 · 무량
- 선방 가는 길 열림원 · 정찬주
- 녹차와 채식 우리출판사 · 홍승
- 전통 사찰 음식 우리출판사 · 적문
- 산중에서 길을 물었더니 은행나무 · 서화동
- 틱낫한 스님의 금강경 장경각 · 틱낫한
- 해탈의 길 장경각 · 퇴옹성철
- 백일법문(상,하) 장경각 · 퇴옹성철
- 달라이 라마의 자비 명상법 정신세계사 · 라마 예세툽텐
- 이판사판 화엄경 정신세계원 · 성법
- 어디에 있든 자유로우라 청아출판사 · 틱낫한
- 절마다 이야기 구구절절 해와나무 · 이슬기
- 행복하게 사는 법 아름답게 죽는 법 행복한 세상(여래) · 정재
- 기도 효림출판사 · 일타
- 조용헌의 사찰기행 이가서 · 조용헌
- 하버드에서 만난 부처 도솔 · 소운
- 행복하게 미소 짓는 법 도솔 · 성전
- 마음밭에 무얼 심지? 해토 · 최영순
- 산에는 꽃이 피네 동쪽나라 · 법정
- 인연 이야기 동쪽나라 · 법정



우수 불교 도서 구입시 한 권에 한 개의 단주를 드립니다

주최 불교출판문화협회 주관 (주)북새통 후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 법보 · 불교 · 현대불교신문 · 불교방송국 · 불교TV

■ 서울
교보문고(광화문) 02-397-3588
영풍문고(종로점) 02-399-5635
복스리브로(을지점) 02-757-8100
교보문고(강남점) 02-530-0326
영풍문고(강남점) 02-6282-1354
지에스북(영등포점) 02-2671-5651
동화서적(강남) 02-3420-2111
서울문고(코엑스) 02-6002-6050
두레문고(상계동) 02-932-3824
불광문고 02-383-4236
프라임문고 02-3424-1453
대성문고(명일동) 02-427-8190
복스리브로(세종점) 02-6341-8101
복스리브로(수원점) 031-240-2204
교보문고(부천점) 032-663-3501
정글북 031-922-5000
복스리브로(화정점) 031-979-6188
동원서적(구리) 031-563-4621
영동문고(광명) 02-802-6126~7
경인문고 032-654-1677
시민문고(인천) 032-866-6238
대동문고(안양) 031-447-7000
동남서적 031-251-3929
■ 충청
홍문당(금천) 043-293-0161
양지문고(천안) 041-556-6001
계룡문고(대전) 042-222-4600
■ 대전
대훈서적(본점)대전 042-254-7001
대훈서적(둔산) 042-487-4900
대훈서적(천안) 042-822-7171
대훈서적(중앙) 042-254-7007
■ 광주
충장서림(광주) 062-227-1932
삼복서점(본점) 062-222-0258
삼복서점(상무점) 062-383-4250
초원문고 062-573-7007

전국 주요 대형 서점 53곳에서
2005.4.29~5.22

마곡사 '신록축제 템플스테이'

'춘마곡(春麻谷)'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빼어난 봄 경치를 자랑하는 마곡사. 마곡사가 봄과 함께 하는 '신록축제 템플스테이'를 5월 7~8일 이틀간 마곡사 일대에서 개최한다.

'천년의 땅 푸르게'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신록축제는 샨티 크로마 하프연주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대북 · 장고춤 · 밸리댄스 등 다채로운 공연이 축제 개막을 알린다. 이어 저녁 7시에는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신록음악회가 열린다. 새벽 3시30분 예불과 108배로 시작되는 둘째 날에는 아침 6시부터 1시간 동안 새벽숲길 걷기명상에 이어 울력, 노래자랑, 사물놀이, 보현 스님 공연에어로빅경연대회 등이 진행된다.(041)84-6226

한명우 기자

청주시, 국회서 직지홍보展

청주시는 5월 9일부터 11일까지 국회의원회관에서 직지홍보전을 갖는다.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인 <직지>를 알리기 위해 기획된 이번 홍보전에서는 금속활자본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과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전시되고, 직지홍보영상물도 상영된다. 또 당시의 금속활자를 재현해낸 활자를 직접 한지에 인쇄하는 활판체험행사도 마련된다.

박익순 기자

청주불교방송, 개국 8주년

청주불교방송은 4월 26일 법주사 회주 혜정 스님과 청주사암연합회장 각의 스님, 이원종 충북도지사, 한대수 청주시장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국 8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청주불교방송 사장 지원 스님은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자세로 부처님 법을 홍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주사 회주 혜정 스님은 "소리에는 모양과 형상이 없으며 소리의 근원은 마음에서 나오니 소리의 결과는 그만큼 엄청나다"며 지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방송이 돼 줄 것을 당부했다.

한명우 기자

장애인 초청 남도 나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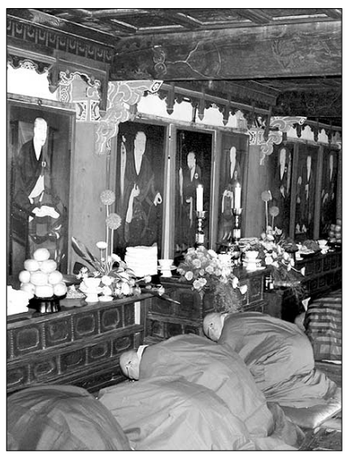
광주 우산종합사회복지관(관장 천운) 관내 장애인 50여명이 광주 운불련의 도움으로 4월 27일 바깥나들이를 했다.

지체 3급 이상 장애인들을 초청한 이날 나들이에는 운불련 회원들의 개인택시 25대가 동원돼 목포자연사박물관과 영산포 유채꽃밭 등 남도일대에서 봄날을 만끽했다. 우산종합복지관과 7년째 봄, 가을 장애인 나들이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유영식 운불련 회장은 "자신의 힘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운불련을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든 찾아가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엽 기자

개산·종제 뿌리 이어가는 행사 다채

송광사 – 전계식, 탱화전시회
대원사 – 티베트·인도문화축제



지난해 열린 보조국사 종제에서 다례를 올리는 모습.

순천 송광사(주지 영조)와 보성 대원사(주지 지묵)가 개산 및 종제 등 뿌리를 이어가는 전통법회에 다양한 문화행사를 가미한 행사를 펼친다.

송광사는 보조국사 탄신 795주년를 맞아 오는 5월 4~5일 삼월불사를 봉행한다.

이번 삼월불사는 목우가풍을 개산한 보조국사 종제와 함께 전계대화상 범일 보성대종사 전등율맥 전수법회가 함께 봉행된다.

송광사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전계식에는 지현(知玄) 수진(守眞) 지현(志賢) 진옥(眞玉) 철오(徹悟) 지관(智觀) 지광(智光) 원통(圓通) 정오(正悟) 원순(圓珣) 덕조(德祖) 대경(大鏡) 현진(玄珍) 혜수(慧首) 스님이 율맥을 전수받는다.

또한 송광사는 보살계 수계산림에 앞서 4일 저녁 대웅전에서 증명법사 릴레이법문과 명상음악 공연 등을 철야로 진행한다.

다음날 봉행되는 종제는 전통적으로 수계산림에 이어 화엄법계도에 따라 정진한 후 국사전에서 16국사 다례를 올린다.

송광사 박물관도 종제를 기념해 제9회 김영을 탱화 특별전을 7월 말까지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에는 김영을씨의 탱화, 판화 등의 작품 20여점이 전시된다.

송광사 말사 대원사도 개산 1503년을 맞아 '티베트 · 인도 문화축제'를 5월 5~6일 개최한다. 천봉산 산신제를 시작으로 열리는 이번 문화축제는 세계적인 명상음악가 티베트 나왕케촉과 인도 최고의 반수리 연주자 밀린드 다테, 인도 음악가 박양희씨가 출연해 티베트 · 도명상 음악 공연과 캠프를 펼친다.

특히 산신재와 합동 천도재에는 티베트의 잠양 린포체와 6명의 티베트 라마승이 초대되어 라마댄싱과 전통 푸자 의식으로 펼쳐진다.

현장 스님은 "대원사가 생일을 맞아 가족과 친구, 조상이 상생 화합하는 대동한마당을 마련했다"며 "한 맺힌 영혼들을 위한 진혼과 상생의 살풀이 마당굿에 한국은 물론 티베트 · 인도의 문화가 선보인다"고 소개했다.

이준엽 기자

"남기신 법문 받들어 정진할 것"

전강선사 사리탑 제막식서 송담 스님 법문



전강 스님 입적 30주기를 맞아 전강 스님 사리탑이 수원 용주사에 모셔졌다.

만공 스님의 법맥을 이은 근대 한국불교의 대표적 선지식인 전강 스님(1898~1975)의 사리탑 제막식이 봉행됐다.

전강영신대종사 문도회(회장 정무)는 전강 스님 입적 30주기를 기념해 4월 25일 수원 용주사에서 인천 용화선원장 송담, 석남사 회주 정무, 수덕사 수좌 설정, 불암사 회주 일면, 수원포교당 주지 성관 스님 등을 비롯한 전국 선원 수좌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강선사 사리탑 제막 및 점안식'을 열었다.

송담 스님은 "전강 스님은 평소 법문에서 열반 전에 사리를 수습하거나 사리탑을 세우지 말라는 언지가 있었지만 그 뜻을 어기고 이렇게 사리탑을 조성하게 된 것은 스님의 가르침을 정성스럽게 받들라는 주변의 권유 때문"이라며 "지금 스님의 육신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스님이 남긴 법문을 법신사리로 삼아 정진하기를 바란다"고 법문했다.

스님은 이어 "사부대중은 스님의 법문을 통해 신심과 분심을 일으켜 몸과 마음에 해탈을 얻고 자각각타(自覺覺他)의 삶을 실천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용주사 중앙선원 앞에 조성된 전강 선사의 사리탑은 지난해 3월부터 전강영신대종사문도회가 2억 5천여만 원을 들여 조성한 것으로, 국보 제101호인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을 모형으로 했다.

수원 용주사=김철우 기자

단양 광덕사 백만불전 상량식

단양 광덕사(주지 성원)는 세계일화도량 건립을 위한 '백만불전 상량과 신임주지 진산식'을 4월 24일 봉행했다(사진).

상량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수덕사 설정 스님,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2000여명이 참석했다.

법장 스님은 이날 법어에서 "백만불전은 한국의 전통불교와 세계 모든 민족, 국가를 초월한 세계일화의 공동체가 될 것"이라며 백만불전 건립의 뜻을 되새겼다. 이에 앞서



광덕사 회주 혜인 스님은 "사부대중의 동참 속에 대작불사가 원만히 진행되고 새 주지 성원 스님이 어려운 불사를 새롭게 이끌어 나가게 됐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조용수 기자

생명나눔 어린이들이 앞장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장)와 광주 연화 유치원(원장 명신)은 지난 4월 27일 전남대학교에서 '2005 사랑의 헌혈증서 모으기 캠페인'을 펼쳤다.

'소아암 백혈병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캠페인에는 연화유치원 원생 60여명이 참가해 학생회관과 교내를 돌며 '희망나눔 돼지저금통 나눠주기' '소아암어린이에게 보내는 희망의 종이학 만들기' '헌혈증서 모으기' 등을 펼쳤다.

이준엽 기자

지금, 우리 절에서는…

서울 정릉 삼원사

공부·신행으로 움직이는 포교



삼원사 불교교양대학에서 신도들이 초발심자경문을 공부하고 있다.

북한산 끝자락인 서울 성북구 정릉 4동에 자리 잡고 있는 삼원사는 1988년 당시 조계종 포교원장이던 암도 스님이 창건한 사찰이다. 사찰의 역사만 놓고 보면 이제 갓 걸음마를 시작한 어린애나 다름없다. 사찰 규모 역시 보통 사찰들과 비교하면 초라하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하지만 삼원사 주지 선각 스님과 신도들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한다. 이 말 속에는 그동안 흘린 땀에 대한 자부심과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담겨있다.

무료찻집 '선다원' 개원…휴식공간 제공
보덕회 · 목련회 통한 지역사회 봉사 계획

삼원사가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것은 주지 선각 스님이 삼원사 주지로 부임한 3년 전부터다. 신도들과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무료 찻집 '선다원'을 개원하고, 공원같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사찰 주변에 많은 나무를 심었다. 인근 약수터로 가는 길을 내 주민들에게 편의도 제공했다. 신도들은 물론이고 주민들과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이었다.

작년부터는 불교교양대학을 열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철저히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도교육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4개월의 기초반 과정을 마친 신도 40여명은 지금 경전반에서 초발심자경문을 배우고 있다. 이들이 경전반을 졸업하는 것은 오는 6월. 하지만 교육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들은 다시 삼원사 봉사단인 '보덕회'에 편입된다. 그리고 사찰이나 신도들의 애경사에 동참해 봉사활동을 한다.

기도모임이자 사찰 염불봉사단인 '목련회'도 신행과 봉사를 병행하면서 지역과 연계한 활동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삼원사는 이 두 신행단체를 통해 호스피스 활동과 무료급식소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삼원사 신도들은 그야말로 공부와 신행을 아우르는 불자로 거듭 태어나게 된다.

삼원사가 계획하고 있는 또 하나의 불사는 바로 대웅전 건립이다. 19평 규모에 불과한 현재의 법당으로서는 신도들이 기도하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스님과 신도들은 대웅전 건립을 발원하고 3년 전 천일기도에 입재해 오는 8월 회향한다. 그리고는 곧바로 다시 2천일기도에 들어간다.

"지금은 신도교육에 주력하고 있지만 여건이 나아지면 다양한 포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포교하는 시대는 지나지 않았습니까." (02)912-6855

한명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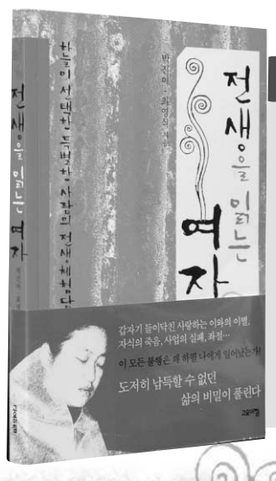
전생을 읽는 여자! 이 책을 보기전에는 까르마(업)에 대하여 논하지 말라!

한국의 에드가 케이시 박진여씨의 놀라운 최면 투시 능력

충격적인 카르마의 보고서 [전생을 읽는 여자]

이 책속에 당신이 전생에 지어 놓은 업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갑자기 들이닥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불치병, 자식의 죽음, 자살, 사업의 실패, 좌절 …
이 모든 불행이 왜 하필 나에게 일어 났는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삶의 비밀이 풀린다.



동방파동명상연구소 02)996-6156 / 051) 817-6156

전생을 읽는 여자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전생을 읽어내는 능력을 지닌 박진여씨가 자기 최면투시의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여 그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는 부분을 리딩해 주었던 사례별 이야기 모음집이다. 이 책에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좌절과 절망과 불행의 고통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으며 왜 나에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그 원인과 해결법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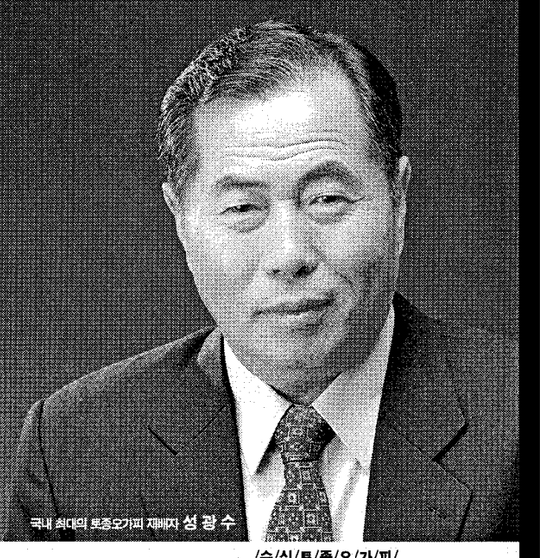


그리고 윤회, 카르마로 대표되는 영혼의 세계를 무속신앙이 아닌 정신과학적이고 종교.철학적 관점에서 소개하여 우리 스스로가 모르고 있던 삶의 심오한 의미와 가치를 절로 깨우치게 한다.

고요아침 값 8,000원 ※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수신토종오가피

禮獻



禮獻(예헌)이란?
명절이나 국가의 경사가 있을때 국왕에게
축하의 뜻으로 바치던 진상품을 일컫는 말

국내 최대의 토종오가피 재배자 성광수

24년의 기다림!

저희는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 24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 /수/신/토/종/오/가/피/ 예헌 禮獻

품질로 평가받겠습니다.
지난 2003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 규격과에서는 연구논문을 통해 오가피의 주요성분인 Acanthoside D의 기준치를 제안하였습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은 이 기준치와 비교하여 3~5배 이상 Acanthoside D 함량이 함유된 원료로만 생산됩니다.

오직 900분께만 매월 한정판매합니다.
월 10만갑을 생산할 수 있는 저희 수신오가피에서도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은 1달에 오직 900갑만 생산할수 있습니다.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가 심혈을 기울여 키운 24년생이상의 오가피만을 원료로 사용하기때문입니다.

수신오가피의 자존심을 걸었습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에는 복제를 방지하는 홀로그램에 매월 001번부터 900번까지의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선물하시는 분께 그 가치와 품격을 안겨드립니다.

※ 산삼배양근이 함유되어 있다는 모 업체의 오가피 제품은 성광수씨나 수신오가피와 하등의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을 구매하시는 분들께 도예가 서병호 교수가 직접 제작한 분청다완을 드립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에는 저희가 준비한 또 하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문의 및 무료자료 신청 02-968-0005

경북 영덕·울진·영양·청송

화합으로 '悟地' 가꾸기 박차

(깨달음의 땅)

낙동 정맥이 경상북도를 세로로 가르는 동쪽의 바닷가 고장 영덕과 울진, 산이 많은 고장 청송과 영양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며 나름의 독특한 풍광과 문화를 보여준다.

하지만 아름답고 풍요로운 경관과는 달리 팍팍한 삶의 힘겨움이 곳곳에서 느껴진다. 어느 지역보다도 이농현상과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지역사회 기반자체가 위태롭기까지 하다.

불교활동 역시 힘겹기는 마찬가지다. 첩첩 산골짜기가 끊어질 듯 이어지듯 부처님의 가르침도 힘겹게 전해지고 있다.


영덕 약사암은 지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무료 요가강좌를 열고 있다.


울진 봉화사 스님과 신도들이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가할 동자승 장엄물을 만들고 있다.

영덕 "사암련 결성해 폭넓은 활동"의지 확산

울진 죽청사 등 천태종 7개사찰 활동 왕성

영양 일월산 중심 전통·문화재 '포교자산'

청송 대전사 사격일신·교도소 포교 '의욕'

 # 영덕 대게로 유명한 영덕은 바다를 끼고 남북으로 길게 뻗은 고장이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영덕주민의 삶은 청송, 영양에 비해서는 비교적 나은 편이지만 역시 살아가기 어렵다는 하소연을 곳곳에서 들을 수 있다.

영덕불교는 신라 때 자장율사에 의해 창건되었다는 유금사와 고려 말 나옹선사에 의해 창건된 장육사가 가녀린 맥을 잇고 있고, 영덕읍의 법륜사와 포교당 덕흥사 등 5개 사찰이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연합으로 준비하면서 지역포교 일선에 나서고 있다.

조선시대 행정 중심지였던 영해에는 포교당인 관음사가 있으며, 약사암 주지 현담 스님이 지역주민을 위한 요가 강습을 비롯해 청송교도소 재소자를 위한 요가강습과 참선법회를 지도하는 등 많은 활동을 담당하고 있고, 옥천사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사암연합회는 결성돼 있지 않다. 또, 영덕군을 대표할만한 신행단체도 없다. 장육사 종수 스님이 경찰불자회의 결성을 도왔으나 갑자기 조계종 호법부장 소임을 맡는 바람에 결실을 맺지 못했다.

법륜사 법성 스님은 "영덕불교 발전을 위해 사암연합회가 형성되고, 학생회가 부활하고, 불교문화생활공간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한다.

또, 약사암 현담 스님은 "사암연합회가 결성된다면 발로 뛰는 중간 심부름은 얼마든지 열심히 하겠다"며 의욕을 보였다.

영덕은 경북의 여타 지역보다 비교적 불교세가 약하다는 평을 듣지만 충분히 발전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 울진 산림이 울창하고 여러 진귀한 물산이 많다고 이름 붙여진 울진은 신라 때 창건된 고찰 불영사를 중심으로 30리를 이은 불영계곡이 유명하다.

해수욕, 온천욕, 산림욕이 가능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울진은 독일·미국·일본에 이어 네 번째 개최되는 국제행사로 7월 22일부터 열리는 '2005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를 앞두고 군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천태종 사찰들로 구성된 '천태울진사암연합회'는 엑스포의 성공을 기원하는 봉축법요식과 예술제를 5월 11일 개최할 예정이다.

천태울진사암연합회는 울진 불교사암연합회가 없는 가운데 울진불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울진읍 봉화사를 비롯해 죽청사, 부국사, 백운사, 후포 포교당, 기성 포교당, 왕피사 등 7개 천태종 사찰은 독특한 울진불교의 특징을 이루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게다가 천태종의 종정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종회의장 스님들이 모두 울진 출신인 것도 주목할 만하다. 울진의 7개 천태종 사찰들은 지난해부터 천태울진사암연합회를 형성해 울진 청소년 수련관에서 봉축법요식을 함께 봉행하고 있다.

이번 천태연합 봉축법요식에는 천축산 불영사를 비롯해 지역의 타 사찰들을 직접 방문해 동참을 권유할 예정이다.

신라 진덕 여왕 5년(651)에 의상 스님이 창건한 천축산 불영사는 울진불교의 중심 사찰중 하나다. 부처 형상을 한 바위 그림자가 항상 못에 비쳤다는 불영사는 비구니 수행도량인 천축선원으로 유명하다. 사철 끊이지 않고 들어가는 안거에 불영사 주지 일운 스님은 빠지지 않고 동참하며 수행도량의 면모를 지키고 있다.

또 울진지역 대부분의 신행단체를 아우르며 봉축법요식을 대표하고 연말 제야의 타종식을 거행하는 등 불교행사 대부분을 주도하고 있다.

울진에는 100여개의 사찰이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 군소종단 사찰이며, 무속신앙이 성행하고 있다.

울진의 대표적 신행단체들은 대체로 불영사를 중심으로 신행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울진군청 공무원불자회인 정불회(회장 임영수)와 울진 원자력 발전소의 불자회인 문수회의 활동이 활발하다.

그 외 개인택시운전불자연합회와 여성불자들의 수행 모임인 경전반 등이 있다. 또 지난해에는 지역 교사불자들 20여명이 모여 교사불자회(회장 이동선)를 결성해 신행활동을 펴고 있다. 교사불자회는 불교학생회와 파라미타 결성을 발원하고 있다.

 # 영양 육지의 섬이라 일컫는 영양은 영덕에서도 내륙으로 한 시간 가량 달려야 닿는 내륙 오지의 고장이다. 첩첩 산골짜기를 끼고 내려온 주민들의 삶은 극심한 이농현상과 고령화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인들을 중심으로 2만명 남짓한 주민이 남아있는 영양불교는 그래서 더욱 힘겨운 모습이다.

영양에는 전통사찰이 하나도 없다. 또, 조계종 공찰이라야 일월산에 있는 천화사(주지 용담)가 전부다. 그러나 불자들의 발길이 쉬 닿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영양의 북쪽에 우뚝 솟은 일월산은 산신신앙 3대 성지 중 하나로, 산을 둘러 무속인들이 빼곡히 자리를 틀고 있다.

그나마 영양에는 봉감 모전오층석탑을 비롯해 현2동 모전오층석탑, 현1동 십이지삼층석탑 등 불교유적들이 곳곳에 남아있어 불교의 맥을 잇고 있고, 한국전쟁 이후 생겨난 군소 종단 40여개가 활동하고 있다.

천태종 월삼사, 법화종 무량사, 태고종 용화사 등이 영양읍에서 지역불교를 힘겹게 이끌고 있다. 21년 전에 창건된 천태종 월삼사는 지역 최고의 신도수를 자랑하며 지역포교의 선두에 서 있고, 무량사는 매년 노인회관 어른들을 모시고 무료방생법회를 다녀오는 것으로 유명하다.

용화사는 15년 전 13개 사찰과 함께 영양군 불교연합회를 조직하고 영양불교를 주도했던 대표사찰중 하나다. 한때는 불교학생회까지 조직해 청소년포교에까지 힘을 기울였으나 6년 전부터 일체의 대외활동을 중단했다.

그 외 영양에는 3년 전부터 한국불교금강선원 통신대학이 개설되어 불교교리 강좌를 실시하고 있으나 20여명 남짓 되는 불자들이 공부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불교 활동의 불모지에 1999년 영성사 주지 지거 스님이 영양에 들어와 현2동 모전석탑 앞에 스러져가는 영성사를 인수하여 조계종에 등록하고 도량정비에 나섰다. 또, 영양 곳곳에 남아있는 불교 문화재의 가치를 부각시키고 재인식시키는 작업을 펼쳐 영양 곳곳에 방치됐던 불교문화재를 새롭게 부각시키는데 일조했다. 스님은 또 2002년 영양불교대학을 개설해 정법 포교에도 몰두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대다수가 노인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 청송 소나무 울창한 청송 역시 경북 중동부 내륙에 위치해 청정 공기와 맑은 물을 자랑한다. 그러나 82% 이상이 산지를 이루는 산중 오지로 영양 못지않게 이농현상과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이다.

1993년 4만이 넘는 청송인구가 현재는 2만 7천명 남짓 된다. 신생아 출산율도 감소하여 지역 학교들이 속속 문을 닫는 실정.

읍에 위치한 청송포교당조차도 포교에 어려움을 겪을 만큼 청송불교 척박한 환경속에 놓여있다. 그나마 주왕산 국립공원 내의 대전사가 지역불교를 대표하고 있지만 활동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대전사도 초하루, 보름 법회에 차량을 운행하고 불교교양대학을 열었으나 운영이 쉽지 않았다. 대전사 주지 법일 스님은 이제 주말 주왕산을 찾는 불자들을 위한 수행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스님은 5월부터 산내 암자인 백련암을 재가불자를 위한 주말선방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또 대전사를 수행도량으로 쇄신하기위한 준비작업도 하고 있다. 대전사의 산내 암자를 복원할 계획을 추진 중인 법일 스님은 동국대에 의뢰해 대전사 기본 정비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대전사는 문화재청의 심의가 끝나는 대로 수행도량으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그 밖에 대전사는 청송교도소를 전담하는 법사를 두어 재소자 교화에 앞장서고 있다.

영덕·울진·영양·청송=배지선 기자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미래의 인재' 배출 노력

법성 스님 (영덕 법륜사 주지)



영덕읍의 요지에 위치한 법륜사 주지 법성 스님은 지역에서 노장 스님으로 통한다. 그러나 환갑을 넘긴 세수가 믿기지 않을 만큼 젊은 모습이다. 1990년 영덕에 와서 폐허가 되다시피 한 사찰을 인수한 스님은 그저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10여 년간 불사에 전념했다.

이제 아늑하고 정갈한 도심 속 도량의 모습을 갖춘 법륜사는 입간판 하나 없지만 지역불자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겨울 여름 1달간의 교리강좌를 개설하고, 2003년까지 27회의 영덕불교학생회를 이끄는 등 지역포교에 매진하고 있다.

미래 인재 배출을 위해 불교학생법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스님은 2년 전 지역의 젊은 스님에게 학생회를 맡겼다가 와해된 것이 못내 안타깝다. 스님은 조만간 요사 2층에 지역불자들을 위한 시민선방 및 문화생활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합회 통해 '화합' 전통세워

진성 스님 (영양 용화사 주지·영양군불교연합회장)

1974년 용화사에 들어온 진성 스님은 약 15년 전 연대암 법공 스님을 비롯한 지역 13개 사찰과 함께 영양군 불교연합회를 결성하고 11년간 회장을 맡아왔다. 스님은 연합 방생법회를 갖고 부처님오신날이 되면 연합 제등행렬을 개최하는 등 지역불교를 이끌었다. 또, 영양군불교고등학생회를 만들어 총재로서 청소년 포교에도 앞장섰다.



그러나 6년 전 지병이 생기면서 지금은 대외활동을 중단했다. 최근에 건강이 많이 회복되면서 스님은 다시 지역불교현장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스님은 명맥만 남아있는 영양군 불교연합회를 되살려 예전처럼 지역 사찰들이 동참하는 연합 봉축법요식을 봉행할 예정이다. 또 내년에는 요사채 불사도 새롭게 진행하고 소년소녀 가장 돕기에도 나설 계획이다.

주변 '와요지' 복원 계획

종수 스님 (영덕 장육사 주지)



2002년 장육사에 온 종수 스님은 비가 쓸고 내려가 폐사지 같았던 장육사의 홍원루, 산신각, 종각을 해체 복원하고, 장육교와 갈천교를 새로 놓는 등 가람의 사격을 쇄신했다.

비록 영덕에서도 한참을 내륙으로 달려야 닿는 오지의 사찰이지만 법회 때마다 봉고차를 운행하며 포교에도 열심이다. 꼬박 2시간이 넘도록 산골 구석구석을 다니며 불자들을 실어 나르는 스님은 법회 때만이라도 정기적으로 지역 버스가 장육사까지 운행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장육사 주위에 있는 와요지를 복원하여 청소년 체험 학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창수면민대회 복사꽃 축제 등에 참석해 지역민과의 화합도 잘 이뤄 온 스님은 총무원 호법부장 소임을 맡아 지역불교를 위해 많은 활동을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 하고 있다.

불교유적 보존·홍보 앞장

지거 스님 (영양 영성사 주지)



1999년 영양에 첫발을 디딘 지거 스님은 영양이 불교포교에 있어 불모지라는 점에서 놀라고 유명한 불교문화재가 거의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음에 놀랐다.

스님이 영양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곳곳에 방치된 불교유적의 문화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지역민들과 관을 꾸준히 설득했고, 영양 곳곳에 남아있는 문화재를 새롭게 보존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문화재 주변의 밭은 정리되고 잔디가 깔렸다.

또 영양군 입안면 어느 농가 마을에 깊이 숨겨져 있던 봉감모전오층석탑(국보 187호)은 주변 정비와 함께 그 가치를 일반인들에게 알리기 위한 도로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볼링선수' 이력 포교에 접목

무원 스님 (영해 관음사 주지)

1998년 영해의 포교당주지로 부임한지 7년이 흘렀다. 무원 스님은 볼링선수로 협회부회장까지 지낸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출가하기 전부터 해왔던 볼링을 출가 후에도 계속 이어온 스님은 아시아에는 이미 잘 알려진 선수다. 199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승복을 입은 모습이 싱가포르 신문에 게재되어 화제를 불러 모으기도 했다.

볼링공이 굴러가는 것을 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한다는 스님은 관음사에 부임한 후 어린이법회 등을 개설하며 지역포교에 나섰다.

그러나 어린이법회의 운영이 쉽지 않아 지속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첫째는 교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고, 둘째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컸다. 하지만 기회가 되면 언젠가는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청송교도소서 참선법회

현담 스님 (영덕 약사암 주지)



스님은 직접 황토 흙벽을 바르고 대나무를 엮어 지붕을 이어 요사채를 지었다. 또 틈틈이 텃밭을 일구어 거의 모든 양식을 자체 조달한다. 거의 모든 공부를 스스로 마쳐야 했던 스님은 장학생으로 위덕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불교대학원까지 마쳤다. 스님은 "시주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웠으니 이제 회향을 해야 겠다"며 위덕대 출신 스님들 모임인 청림회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지역민을 위한 포교에도 열심이다.

스님은 청송교도소에서 재소자를 상대로 요가, 참선법회를 열고, 지역 경승모임의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 영덕경찰서 유치장에 불서 보내기 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지역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무료 요가강좌도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포교에 남다른 관심

자운 스님 (울진 봉화사 주지)



자운 스님은 어린이포교에 유난히 관심이 많다. 어린이들과 함께 '가위 바위 보' 게임을 서슴없이 즐기는 스님은 아이들에게 언제나 인기다. 어린이법회 출신 중학생들에게도 계속 법당에 나와 신행활동을 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부터는 지역 7개의 천태종단 사찰들과 연합체를 형성 천태울진사암연합회를 결성하는데 앞장섰다. 지역의 모든 사찰이 동참하는 봉축법요식 개최를 발원하는 스님은 우선 지역의 천태종단 사찰들부터 연합체를 형성해 봉축법요식과 연등축제를 개최하면서 지역불교를 하나로 결집하는데 힘을 모을 생각이다.

또 스님은 지역의 포교수행도량으로 백년을 이어나갈 2차 불사를 생각하고 있다. 1984년 낙성이후 그대로 사용해온 33평의 기도실이 이제는 너무도 협소하기 때문이다.

전남 담양 경주이씨들이 소요 스님 어머니 묘소 돌보는 사연

‘유택점지’ 인연으로 373년째 시제…대이어 ‘보은’

또다시 어버이날을 맞이한다.

부처님은 <부모은중경>을 통해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가를 설하고 계신다. 이 경전은 어머니의 은혜를 10가지로 나눠 생리학적 측면에서 매우 과학적으로 서술해 놓고 있다. 그래서인지 인천(人天)의 스승이 되고자 삭발염의(削髮染衣)한 수행자이건만 출가자들에게도 어머니는 애틋하다.



경주이씨 후손들이 소요대사 어머니묘에서 예를 올리고 있다. 모자 쓴 이가 일진 스님이고 오른쪽 옆이 고경 스님. 원안은 경주이씨 월산문중 도유사 이복우씨.

각별하게 모셔지는 평범한 묘소

얼마 전, 전남 담양 월산면 월계리 농암부락 뒷동산인 황산에 자리한 묘(墓) 하나가 곱게 단장을 했다. 주위의 여느 산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작은 묘이다. 그러나 이 지역 월산에 뿌리를 둔 경주이씨 후손들에게는 특별함이 있는 묘소이다. 집안의 어른이 아닌 어느 스님의 어머니 묘로, 지금까지 각별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묘소의 주인은 조선중기 서산 대사의 법을 이은 소요 태능(逍遙 太能 1562~1649) 스님의 어머니이다. 친부모 묘마저 외면당하는 요즘의 각박한 현실에서 소요 스님의 어머니 묘가 지역주민들에 의해 무려 400년 가까이 각별하게 모셔지고 있는 것이다.

“이곳이 바로 천하의 명당 ‘무자손천년향화지지(無子孫千年香火之地)’ 터입니다. 예로부터 이 묘를 잘 받들면 복을 받는다고 전해져오고 있어 너나없이 벌초하고 예를 올리고 있습니다.”

경주이씨 월산문중 소임을 맡고 있는 도유사(都有司) 이복우씨(69)는 “어려서 어른들로부터 소요대사 어머니 묘를 잘 돌보라는 말을 듣고 자랐다”며 소요 대사 어머니 묘소에 얽힌 사연을 들려준다.

이야기는 37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대의 고승 소요 대사는 장성 백양사 주지로 있으면서 담양 용흥사 불사를 벌였다. 당시 용흥사 인근에 거주하던 이복우 씨의 10대조 이시망, 시우 형제가 불사에 동참하였고 이를 계기로 스님과 교류하게 되었다.

용흥사 불사동참과 문중의 번창

어느 날 시망, 시우 형제는 소요 스님에게 부친의 유택 점지를 요청했다. 사찰불사에 큰 도움을 받았던 터에 감사의 뜻으로 음택 두 곳을 소개하며 하나를 선택토록 했다. 하나는 후대에 큰 벼슬이 나오고 명예가 높은 자리이고, 다른 하나는 큰 부자는 아니지만 부자로 자손이 번창한다는 터였다.

시망, 시우 형제는 집안이 번창한다는 ‘옥녀탄금(玉女彈琴)’ 형국의 자리를 택하고 부친 일민(逸民)의 묘를 썼다. 화려한 명예보다 소박한 화목을 선택한 것은 오늘을 사는 이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때 소요 스님은 속가의 어머니 묘를 이곳 월산으로 옮기며 한마디 덧붙였다.

“경주이씨 묘와 나의 어머니 묘에 제를 지내면 집안이 부유하고 자손이 번창하기를 천년간 이어진다.”

이후 경주이씨 월산문중은 매년 음력 10월 보름 시제(금년부터 음10월 11일)에 소요 대사의 어머니 묘에서도 제를 올리고 있다. 그러기를 지난해까지 373년을 이어온 것이다.

지난달 어느 화창한 봄날, 이러한 소식을 듣고 순천 송광사 박물관장 고경 스님과 일진 스님이 담양 월산을 찾았다. 월산문중 도유사 이복우씨를 비롯해 경주이씨 집안에서 스님들을 맞이했다. 소요대사 어머니 묘소에 단촐하지만 음식을 올리고 스님들이 향을 살랐다.

일진 스님은 “‘무자손천년향화지’는 후손이 끊긴 스님들의 부모를 위해 제사는 물론 때마다 공양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효(孝)사상이 담겨있다”며 “이곳 소요대사 모친 묘는 김제 불거촌 진묵대사 모친 묘, 부안 동진 벽송선사 모친 묘와 더불어 한국 3대 무자손천년향화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진 스님은 또 “불교가 억압받던 조선시대에는 스님들이 방편으로 음택풍수를 썼는데 이는 한 가족이 아닌 문중을 불자화하는 최고의 포교였다”고 강조한다.

송광사 스님들의 ‘감사 방문’

송광사 박물관장 고경 스님도 “소요 스님은 담양출신으로 백양사, 용추사, 연곡사 등 호남지역에서 선풍을 크게 일으킨 선승으로 문하에 침굉, 해운 스님 등 수백 명이 일파를 이뤄 ‘소요파’라고 불리며 오늘에까지 법맥을 이어오고 있다”며 “후손이 끊긴 소요 스님의 어머니 묘를 400년 가까이 경주이씨 문중에서 관리해 오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승속을 떠나 본받을만한 일이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소요 대사 어머니의 묘임을 알리는 비석문. ‘소요대사 태능모친지묘’라고 쓰여 있다.

스님들은 “‘무자손천년향화지’는 포교는 물론 효사상을 담고 있는 효행관으로, ‘자손이 번창하고 부귀영화한다’는 신념이 가족간에 서로를 돕고 우애를 살려 스스로 잘살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요대사가 터를 잡았다는 경주이씨 월산문중 중시조 자리는 소요대사 어머니 묘에서 가까운 능선 너머에 있다. 누가 보아도 천하가 한눈에 펼쳐보이는 명당자리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스님의 예언처럼 담양일대의 경주이씨는 번창했다.

현재 월산문중만 6500여명에 이르고, 큰 부자는 아니지만 천석 이상 집안이 즐비하다.

산을 내려오는 길에 동행했던 월산문중 이경우씨(75)가 오늘을 사는 이들에게 따끔한 충고를 곁들인다.

“우리가 부모 없이 어찌 생겼겠습니까.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 해도 조상과 어른을 섬기는 풍습을 잃어서는 안돼요. 집안의 연고는 없어도 저희가 소요 스님의 모친 묘를 섬기는 뜻이 불교인뿐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거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글 · 사진/담양=이준엽 기자

소요태능 스님은? 서산 대사 법맥 이은 선승

성은 오씨, 전남 담양 출생. 13세에 백양사에서 출가. 부휴, 서산대사 밑에서 공부하고 20세에 은사의 명으로 개당해 교화를 폈다. 임진왜란이 나자 폐허가 된 절을 지키며 전각을 수리하고 전쟁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이후 지리산, 금강산, 오대산, 구월산 등에 머물며 교화를 폈다. 만년에 지리산 연곡사에 머물며 교화하다가 1649년 88세(법랍 75)로 입적.

유정의 제자 가운데 편양언기와 함께 선의 양대 고승으로 추앙되며 백양사 연곡사 용추사에 부도가 있다. 저술로 <소요당집>1권이 있으며 시와 게송 200여 편이 수록되어 있다.

어버이날 행사 다채

경로잔치 · 문화공연 · 실버미팅

가정의 달 5월, 어버이날을 맞아 갈 곳 없는 이웃들의 허전한 마음을 채워주기 위해 불교계 각 단체와 복지관에서 풍성한 행사를 준비한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보금자리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원장 원행, 031-768-0064)에서는 5월 4일 서울 시내에서 일본 과거사 왜곡 시정을 요구하는 ‘1000만인 서명운동’을 펼치고 7일에는 할머니들을 위한 ‘효(孝)잔치’를 연다.

또한 대구 동화사 부설 **‘자비의 집’**(053-255-3248)이 4일, **‘관음의 집’**(053-559-4960)은 7일, 11일에는 사원주지 연합신도회가 대구 삼덕동 무료급식소 **‘불자의 집’**에서 각각 경로잔치를 개최할 예정이다.

불교계 복지관에서 준비한 행사도 다채롭다. **의정부 송산노인복지관** 운영위원회(위원장 일면, 031-852-2595)는 7일 ‘무료합동결혼식’을 준비했고, **일산노인복지관**(관장 명인, 031-919-8677)은 10일 복지관 대강당에서 전통타악공연 및 페루민속음악 공연을 펼친다.

또 서울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관장 여익구, 02-385-8205)는 21일, **과천종합복지관**(관장 김종성, 02-507-6319)은 5월 셋째 주에 각각 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칠 · 팔순잔치를 마련해 어르신들의 특별한 생일을 축하한다. 서울 **광진노인복지관**(관장 화평, 02-458-0350)은 7일 ‘어르신 실버미팅’ 주선, 18일 어린이대공원 ‘추억의 운동회’ 개최로 어버이날을 기념한다.

서울 **능인복지관**(관장 법등, 02-571-2988)은 강남 개포동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7일 ‘능인 어르신 한마당’을 열어 어르신들의 어깨에 힘을 실어줄 예정이다. 대전 **서구노인복지관**(관장 장곡, 042-488-6297)은 10~13일 연등만들기, ‘실버 골든벨’, 영화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성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성욱, 02-929-7950)도 12일 건강상담과 체육대회 등 어르신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수원 **서호노인복지관**(관장 성보, 031-291-0911)은 4일 어르신 120명을 대상으로 ‘안면도 나들이’를 준비했고, **성남 한솔복지관**(관장 성화, 031-716-4215)은 7일 양영중학교 학생들을 초청, 카네이션 달기 행사를 진행하고 장안사 신도회가 준비한 식사를 대접한다.

군포 **매화종합복지관**(관장 수현, 031-393-3677)은 6일 지역 저소득층 어르신과 어린이 각각 100명을 초청하는 ‘유노공감’을 준비해 마술 공연 장기자랑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강진 기자



벌초작업, 사찰, 정원

새로운 파워 업그레이드 (무소음 벌초기)

강력한 파워 - 21세기 예초기

사찰주변 · 벌초 · 정원 · 공장주변 조경및 제초작업 해결

깨끗하게! 안전하게! 간편하게! 신속한작업

초강력 밧데리로 장시간작업가능



특별현금가:298,000원

- 사찰주변 조경, 잡초제거!
- 벌초, 잔디 깍기에도 최고!
- 산 잡목관리 및 정원조경!
- 학교 화단 조경작업 최고!
- 공장 주변 잡초제거에도 최고!

21세기 예초기의 특징

강력한파워 : 모터 장착 (약 7000RPM) 풀뿐만 아니라 잡목(지름3cm)도 쉽게 제거
충분한작업시간 : 고성능 강력한 파워밧데리로 1회 충전으로 장시간(3~4시간) 작업가능
안전한작업 : 안전망 부착, 돌이튀는 것 방지
만족한효과 : 안전된 칼날로 부착 첨단 다중 면도날 원리로 깨끗하게 마무리
저렴한유지비용 : 충전식으로 연료비가 들지 않음
간편한휴대와이동 : 조립식으로 배낭에 넣어 휴대가 편리하고 이동이 쉬움
작업방법 : 10미터 선으로 예초기 본체와 밧데리 연결해서 작업

■ 작업대상 : 사찰주변, 벌초, 정원, 공원, 잔디관리, 학교, 공장 주변 잡초관리, 산 관리

대리점 조건

◈ 초도물량
500만원으로 창업가능

◈ 무점포 가능
차량소유하신분 우대

◈ 대리점지역
전남 총판, 전북 총판, 충청도 총판, 경상도 총판, 강원도 총판

제조원 : 국산
에스아이테크
예초기사업부

주문 및 상담전화 (031)342-9696
※ 전화로 주문하시면 전국어느 곳이라도 택배로 배달합니다

▶ 농협 : 110-12-470206 (예금주 : 김 양 금)

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쉿! 조용히 해봐 나무들이 숨쉬네

어린이 불교생태학교 현장



결(왼쪽)이와 현구(오른쪽)가 청진기를 대고 나무가 물을 마시는 소리를 듣고 있다. '뭔가 찾아 내겠다'는 듯한 표정이 진지하다. 아이들은 "빨대로 우유를 마실 때와 같은 소리가 들린다"며 즐거워했다.



새만금 갯벌에서 '게'를 관찰하는 모습.

완연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었던 4월 넷째주 주말. 전국은 봄을 만끽하기 위해 나온 상춘객들로 들썩였다. 이날은 특히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된 월1회 학교 토요 휴업일이어서 가족단위의 인파가 많이 몰렸다.

이러한 가운데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가 마련한 '어린이 불교생태학교'(이하 생태학교)가 4월 23~24일 부안 내소사 일원에서 열렸다. 토요 휴업일에 맞춰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사찰생태환경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30여명의 학부모와 아이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들 용기와 함께 생태학교에 참가한 김옥희(45 · 서울 은평구 대조동)씨는 "사찰이라는 공간에서 불교문화를 배우며 학생들과 함께하니 중요한 공부가 되었다"며 "전면 토요일 휴업에 대비해 불교생태학교와 같은 알찬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환경연대, 토요 휴업일 이용 내소사서 템플스테이 학부모 · 학생 함께 30여명 참여 "보고 듣는 모든게 새롭고 즐거워"

#낯설지만 신기하기만 한 '사찰'

4월 23일 서울에서 4시간 버스를 달려 도착한 부안. 부안은 산과 들과 바다가 모두 있는 지역으로 다양한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몇 안되는 곳이다. 참가자들은 8ha에 이르는 넓은 부지에 조성된 곰소염전을 보고 내소사에 도착했다. 템플스테이 복장으로 옷을 갈아입고 대웅전에 모셔진 부처님께 인사를 올린 참가자들은 주지 진원 스님으로부터 내소사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내소사는 혜구두타 스님이 소래사라는 절을 세운데서 유래합니다." 스님의 설명이 계속되자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법당을 뛰어 다니던 영서(8 · 서울 미동초1)가 "스님 언제 끝나요?", "스님은 왜 대머리에요?" "부처님 얼굴은 왜 황금색이에요?"등의 질문을 쏟아낸다. 대웅전에서의 사찰소개가 끝나고 전각들에 대한 안내가 계속됐다.

참가자들은 스님과 함께 봉래루, 3층 석탑, 설선당, 무설당, 봉래선원 등을 둘러봤다. 엄마와 함께 생태학교에 참가한 다슬(13 · 용인 서천초6)이는 "절에 처음 와서인지 모든 것이 낯설지만 신기하기도 하다"며 호기심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다슬이는 "이렇게 자주 오다 보면 스님과 친해질 수 있고 또 절도 친숙해질 것 같다"고 흐뭇해한다.

#나무들이 물먹는 소리가 들려요!

참가자들은 사찰을 둘러본 이후 절 앞 전나무 숲으로 자리를 옮겼다. 숲 속 생명들과 호흡을 같이하고 그들이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다. 참가자들은 먼저 청진기를 이용해 나무들이 물을 마시는 소리를 듣는다. 결(8 · 일산 황룡초1)이와 현구(9 · 서울 광희초2)는 작은 풀꽃부터 굵은 나무, 얇은 나무 등을 옮겨 다니며 청진기를 계속 대본다. 둘은 "빨대로 우유를 먹을 때와 같은 소리가 들린다"며 즐거워한다.

용기(13 · 서울 대조초6)도 "죽은 나무에서는 물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모든 나무들에서 물을 먹고 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다"고 아쉬워했다.

청진기 놀이에 이어 참가자들은 생태해설가 이현숙(43)씨의 설명에 따라 '애벌레놀이'를 했다. 작은 손거울을 코에 대고 거울을 보며 앞사람의 등에 손을 올린 채 한 걸음씩 옮기는 것이 쉽지 않다. 이현숙씨는 "걸음을 옮기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애벌레와 같은 작은 생명들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아이들은 이렇게 자연과 하나가 되고 또 생명의 소중함을 배워갔다.

#108배와 차담으로 마음을 모은다

저녁 공양 후 참가자들은 템플스테이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혜승당에 모였다. 곧이어 불교환경연대 정성운 사무처장의 집전으로 108배가 시작됐다. 일 배를 할 때 마다 "하나, 둘, 셋 ……"을 함께 따라하던 아이들의 목소리는 50배가 넘어서자 사라졌다. 좌복에 쓰러져 일어날 줄 모르던 아이들은 끝났다는 엄마 아빠의 말에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일어난다.

첫날 마지막 일정으로 마련된 차담(茶談) 시간. 진원 스님과 아이들이 마주 앉은 찻상을 비롯해 4개의 찻상 주위에 참가자들이 둘러앉았다. 상(床)에 앉아 지난 하루를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엄마 아빠들의 모습이 정겹다.

아들 경민이와 함께 생태학교에 참가한 임인숙(34 · 서울 관악구 신림동)씨는 "매월 마지막 주가 되면 아이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할지 고민하게 된다"며 "템플스테이도 하고 자연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에 와서 만족스럽다"고 평했다

#새만금 갯벌에서 생명을 찾다

이튿날 아침 일찍 발우공양을 마친 참가자들은 삼보일배로 생명의 상징이 된 새만금 갯벌을 찾았다. 갯벌에 초라하게 서있는 장승들처럼 갯벌은 이미 죽어가고 있었지만 납작게, 갯고동, 비트리 등의 바다 생명들은 아이들의 시선을 잡아끈다.

비이커에 게를 담아 관찰하던 무연(12 · 서울 발산초5)이는 "새만금 공사로 다 사라졌는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게가 있는 줄 몰랐다"며 "갯벌과 게 모두 죽지 않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어느덧 무연이는 자연과 하나가 된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타불이(自他不二)가 아닐까?

마지막 일정으로 금강철새조망대에 들른 참가자들은 독수리, 말똥가리, 수리부엉이, 공작 등의 새들을 본다. 가창오리 전시관에서 오리의 내부구조를 둘러본 세민(12 · 천안 불당초5)이도 "오리몸속의 여러 기관들을 지나오니 기분이 이상하다"며 즐거워했다. 그러나 신기해하는 아이들과 달리 학부모들은 "너무 좁은 곳에 새를 가둬두어 안타깝다"고 씁쓸해 하기도.

1박2일의 다소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30여명의 참가자들은 많은 것을 배웠다며 졸업(?)을 아쉬워했다. 그리고 7월 26~28일 여주 신륵사에서 열리는 여름 불교생태학교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각자의 가정과 학교로 발걸음을 돌렸다.

글 · 사진/부안=유철주 기자



이현숙(맨 앞)씨의 지도로 '애벌레놀이'를 하고 있는 생태학교 참가자들.

수미산, 서역남로 대장정 31일

티베트 수미산 순례는 자기 성찰의 길입니다.
이번 순례는 티베트의 라사에서 수미산으로 그리고 곤륜산을 넘어 중국의
타크라마칸 사막을 지납니다.
이어서 실크로드 상의 서역남로의 길을 따라 호탄, 니야, 미란의 고대유적을 따라서
돈황석굴에 까지 이르는 대장정으로 이와 같은 대장정은 한마음 쉬고 가야하는
수행의 여정일 것 입니다.
티베트와 중국의 대륙을 누비는 수행의 길에 동참하실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출발일 : 2005년 7월 5일 ~ 8월 4일 (31일간)
● 일 정 : 성도-라사-장체-시가체-라체-사가-파양-수미산-
구게왕국-알리-도마-다홍리탄-마자르-예청-호탄-
민풍-체르첸-차르크리크-루오지앙-하루고-돈황
● 안 내 : 이상원 011-352-3321
● 문의 및 접수 : (주)실크로드여행사 (02)720-960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수미산 여행은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수미산여행은 수미산을 사랑하는 실크로드에 맡겨 주십시오.

나눔단체-릴레이 탐방

봉화회 보현의 집 봉사팀

"남 위해 일하니 휴일이 더 즐겁죠"

"휴일이지만 우리 좋아서 하는 건데요, 뭐."

누구나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싶은 토요일과 일요일. 그러나 영등포 보현의 집(원장 지거) 식당은 평일과 다름없이 분주하게 돌아간다. 거리에서 노숙하다 보현의 집으로 들어오게 된 이용자들도 휴일만큼은 여유 있고 나른하다.

그러나 부엌에서는 오징어를 썰고 파를 다듬고 돼지고기를 볶는 등 재료준비와 요리하는 손길로 바쁘기만 하다. 보현의 집 식구들의 식사를 위해 한가로운 휴일도 반납한 채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봉화회(회장 정옥진) 보현의 집 봉사팀'이다.

"그저 좋아요. 내 몸 건강하고, 내가 할 줄 아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96년부터 보현의 집 주말 식사를 챙겨온 봉화회 봉사팀에서도 '맏언니' 격인 배종순 보살(71)은 경기도 군포에서 영등포까지 쉬지 않고 달려나오는 열혈 봉사자. 그런데 오히려 봉사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고 말하며 수줍어한다. 배 보살과 함께 일하는 것이 재미있고 좋다는 동갑내기 김영택 보살(71)도 "나이 많다고 집안에 앉아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해 봉사하게 됐다"고 배 보살을 거든다.

여기에 또 다른 베테랑 봉사자 신기남(64) 보살도 있다. 신 보살은 영등포 보현의 집뿐만 아니라 서울시립아동병원과 경희의료원 목욕봉사에도 합류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하는 모습이 이용자들로 하여금 편안함을 느끼게 만드는 '스마일 보살'이다.

봉화회 봉사팀 음식이 보현의 집 식구들에게 유독 따스한 맛으로 다가가는 까닭은 이렇게 보살들의 즐거움과 친절한 마음이 함께 버무려졌기 때문일 것이다. **김강진 기자**



영등포 보현의 집 식구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려고 모인 봉화회 봉사팀은 주말도 없이 언제나 바쁘게 움직인다. 사진은 4월 23일 활동 모습.

PC · 책 · 학용품 후원해 주세요

영등포 보현의 집이 노숙인들이 거쳐 가기도 하고 생활하기도 하는 중간쉼터다 보니 사람도 많고 필요한 물품도 많다. 봉화회 보살들은 "여기 식구들이 재활할 수 있는 의지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 도서, 완구, 학용품, 컴퓨터 등 학습에 필요한 도구들을 후원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불자들의 도움을 호소했다. (02)2069-1600

연꽃배지 달고 나눔 실천해요

본사-조계종 공동 '자비의 연꽃 달기운동' 전개

"자비연꽃 달고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해요"

조계종과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으로 4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자비연꽃 달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자비연꽃 달기' 캠페인은 남아시아 지진해일 구호기금으로 설립된 '자비나눔기금' 모연사업의 일환. 캠페인은 불자들의 자비나눔 실천을 통한 자긍심 고취, 불교계 기부문화 확산 및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부처님 오신 의미를 되새기며 사회적으로 회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의 연꽃 향기를 전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자비연꽃배지는 1차 15만개(개당 1000원) 배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금 모연은 '자비연꽃 달기'에 참여하는 방법과 정기법회를 '자비나눔' 법회로 개최해 기도금중 10%를 자비나눔 성금으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조계종은 모범적인 실천 활동을 전개한 사찰에 표창장을 수여한다는 방침이다.

모금된 자비나눔기금은 국내외 재난구호 및 결식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외국인노동자 등 극빈 소외계층에게 전달된다. 또 6월경 기금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사업(단체)에 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4월 26일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자비나눔을 위한 창작명상음악회'에 참석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에게 조계사의 한 신도가 자비연꽃배지를 달아주고 있다.

조계종 사회부장 정념 스님은 "'자비연꽃 달기' 캠페인은 재난구호 및 극빈 소외계층을 위한 불교계 최초의 기금 마련을 위한 홍보 및 모연 사업"이라며 "부처님오신날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축제로 만들기 위한 모든 불자들의 공통된 실천사업으로 승화되도록 많은 동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은 5월 19일 오후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긴급재해구호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사 고

'자비연꽃 달기'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본사와 조계종은 5월 20일까지 '자비연꽃 달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자비연꽃 달기' 캠페인은 불교계 최초의 재난구호 및 극빈 소외계층을 위해 설립되는 '자비나눔 기금' 모연 사업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이웃을 위해 연등을 밝히는 마음으로 '자비연꽃 달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자비연꽃 달기' 동참 안내**

—불자 개인은 성심성의껏 기금을 내주시고, 자비연꽃(배지-24K 금도금)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사찰 및 단체는 자비연꽃을 개당 1,000원에 보급합니다.

—모아진 '자비나눔 기금'은 재난구호 지원 및 활동, 소년소녀 가장, 결식아동, 독거노인, 외국인노동자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 **자비연꽃 배포처**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內 '자비나눔 기금 운영위원회'

전화 02-2011-1820 / ARS 060-700-0482

조계종 총무원 · 현대불교신문

나눔의 손잡기 성금

박상환- 10만원

총 누적금액 40,235,090원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칩니다.

♥ **나눔의 법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법보시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사업으로 벌이는 봉사 현장을 소개합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하는 곳도 제보 바랍니다.

♥ **나눔의 성금 모으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우유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해주세요.

♥ **협력종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종단 및 단체들과도 계속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또 대원정사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행사를 공동개최합니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도 제보해주십시오.

도와 주세요

난치병 앓는 두 살배기 송인한 군

생명나눔실천본부가 5월의 환우로 선정한 두 살배기 인한이(사진). 생후 3일부터 황달로 입원 치료를 받은 인한이는 생후 5개월까지 황달증세를 보이다 세브란스병원 소아과로부터 난치병인 '구상적혈구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다.

이후 계속 빈혈 검사와 수혈을 하고 있던 중 인한이의 발육이 다른 아이들보다 느려 다시 병원을 찾은 인한이 부모는 2004년 10월 세브란스병원으로부터 인한이가 황달로 인한 뇌손상으로 인해 뇌성마비를 앓게 됐다는 통보까지 받았다.

현재 인한이는 일주일에 두 번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인한이 아버지가 청소부로 일하며 버는 소득으로는 생활비 충당하기에도 빠듯한 형편이다.

아이가 어려운 형편 때문에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인한이 부모에게는 너무 가슴 아프다. (02)734-8050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나눔의 손잡기 <동참문의 및 제보> 전화 (02)722-4162~3/ 인터넷 홈페이지buddhanews.com '나눔의 손잡기' / 동참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 김원우 / ARS 060-700-1080(한통화 3천원) 나눔의 손잡기

알 려 드 립 니 다

우리 종단에서는 정당한 종헌 종법을 거치지 않고 종정과 종회의장 총무원장을 행세해온 김상조(혜봉)와 송기욱(무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4가합1205)에서 판결하여 피고 김상조는 대한불교원효종 종정과 종회의장 피고 송기욱(무진)은 총무원장이 아님(1차 판결 2004년 5월, 2차 판결 2005년 4월 1일 결심판결이 되었음)을 확인하여 드립니다.

더욱이 이들은 이미 본 종단에서 체탈도첩되어 본 종단과는 무관함을 지면을 통하여 알려드리오니 대한불교원효종의 전 종도 여러분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및 여타 각 종단스님 불자님들께서는 더 이상 현혹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9(2005)년 4월

대 한 불 교 원 효 종

종 정 최 덕 산
종회의장 정 도 전
총무원장 김 고 산

제1319주년

원효성사 열반대재

귀의 삼보하옵고

우리 민족의 위대한 스승이시며 화쟁통교(和諍通敎)의 기치를 높이 들고 원융회통(圓融會通)의 한국적 불교를 창조하신 원효성사께서 육방(六方)에 입적(入寂)을 고(告)하신 지 올해로 1319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에 성사(聖師)의 생애와 업적을 추모하고 기리는 대재(大齋)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여 향화(香火)를 사르고자 하오니 부디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 2549(2005)년 5월 7일 (음 3월 29일) 오전 11시
● **장 소** : 대한불교원효종 총본산 금수사
부산시 동구 초량 4동 843번지
● **문의전화** : 051)467-3316, 466-0977

불기 2549(2005)년 4월

대한불교원효종 종 정 최 덕 산
원로원장 송 구 산
종회의장 정 도 전
총무원장 김 고 산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전송 : 02) 737-0697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위치 : 경주 ● 위치 : 강원도
● 법당 : 24평 ● 법당 : 18평 ● 법당 : 15평
● 요사 : 50평 ● 요사 : 30평 ● 요사 : 20평
● 부지 : 300평 ● 부지 : 890평 ● 부지 : 1350평
● 가액 : 3억6천 ● 가액 : 3억8천 ● 가액 : 2500만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연결해 드립니다

미래공인중개소(구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1. 서울 산속 계곡물 콸콸 200평-3억
2. 1000평 절경 6억 3. 200평-1억5천
4. 원주 1000평-2억
5. 양평 700평-3억
6. 판교 산속 대지 160평-2억5천
7. 여주 4만5천평 터-1억5천

※ 사찰많음.공양주 부전스님 신속연결

현대불사 02)555-0575

사찰안내

● 위치: 김천IC 15분거리
● 부지 900평, 건물: 법당 20평, 산신각, 요사채 70평(1,2층)
● 특징: 백두대간, 청정지역, 계곡이흐르고 지장기도 영험도량
● 가액: 답사후 절충

054)431-3321
011-591-9339

포교원안내

● 위치: 인천 부평구 부개1동 (부개역 5분거리)
● 평수 : 48평(4층건물 2층내), 법당1,방2개,후원1개,대중방 포함
● 주차 : 도로상 일렬 주차
● 전세 : 5000만원 시설비 2000만원
● 모든시설완비, 바로 법회 가능함

017-269-2629
032)517-3001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인천 서구
● 3층중 3층
● 평수: 70평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66만원
● 시설A급(답사 후 절충)

011-253-7729

사 찰 안 내

● 경북 시내 한눈에 보임 ● 위치 : 서울
● 땅삼백평 중 등기 백평 ● 부지 : 천평
● 법당 : 18평 외 미륵불 ● 법당 : 12평
● 요사 : 23평, 산신각 ● 요사 : 30평
● 급매 : 1억4천만원,약수물 ● 가액 : 6억5천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포교당,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및 사찰부지 양도하실분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사찰안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장류)
● 부지: 140평 (종교용지)
● 법당: 30평(2층) 요사: 90평(1,2층)
● 가액: 3억7천만원
● 특징: 2개동 건물을 2층으로 신축한 사찰

011-9542-5726

포교원(철학)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금사동
● 3층 중 2층 40평 방2 공양간 창고1
● 특징: 삼존불 각단탱화 엠프 집기일체 포함
●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4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0-6236-2848

토굴안내

● 위치: 충북 옥천 (대전 20분거리)
● 대지: 100평 및 사용평수 100평
● 구조: 대웅전 및 부속건물 58평
● 가액: 1억1000만원 (비구니스님 적합)

011-9405-8186
043)733-8186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남해군 남면 덕월리 석불암
● 부지 : 약 1,000평, 법당20평, 요사채20평, 삼성각10평, 지장단10평 창고, 다용도실, 삼존불, 탱화, 단청 집기일체, 부속 화장실, 주차장 완비
● 새 건물, 앞에 골프장 신축중, 10분거리에 스포츠 파크 있음, 전망수려 ● 가액 : 3억

055)862-2022
011-627-0290

사 찰 안 내

앞으로는 남동향의 웅장한 전경 뒤로는 울창한 산림의 수행터 해발 700미터 산자락, 폐문 수행 가능(각방 화장실, 샤워, 싱크대 완비) 이외에도 특허 받은 신비의 이온 황토 벽돌 선방 등 여러 채의 요사에 심야전기, 기름 보일러, 아궁이 설치. 장엄한 전망을 살린 통유리 설계와 잘 정비된 도로 경내로 연결. 맑은 계곡, 소나무와 바위들의 선풍 드날리는 청정도량. 정진 중, 중개인과 호기심 문의는 일체 사절.

010-6398-573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 대지 : 50평
● 법당 : 40평
● 요사 : 60평
● 가액 : 4억(융자가능)
● 산밑이며 주차시설 좋음

● 위치 : 수원시내
● 대지 : 120평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양도가 : 7억(융자가능)
※ 신도시 교통의 요지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안내

● 위치: 서울 은평구 불광동
● 단독 4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절충) 답사후결정
● 주변 환경 좋음, 교통편리 기도최적지

02)352-9810

토 굴 안 내

● 위치: 충남 금산 (대전에서 20분거리)
● 부지 405평 건평 목조 한옥 20평
● 가액: 1억 8천

041)753-8137
010-4202-3699

사찰겸포교당안내

● 위치 : 경기도 부천 부천역사 2분거리 시장유동인구 밀집지역 2층 30평
● 법당1개,방2개,거실욕실,도시가스, 살림해결, 금불상, 삼존불, 법단2단 13자목조각 완벽함.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5만원. 시설비 1천3백만원
● 주차 80% 주인직거래

011-650-8481
032-667-8485

포교원안내

● 위치 : 성남빌라 밀집지역
● 법당, 주방, 거실 넓음, 방1개, 베란다, 45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500만원 (휴일지급가능)

010-8678-8602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사천시 외곽 (사천IC에서 20분) 삼천포 5분거리
● 평수: 약 2천500평, 대웅전: 27평, 인등 약 1000등, 삼성각 8평, 용왕당 2평, 주지실 10평, 요사채 60평
● 가액: 4억7천
● 입구까지 도로포장됨, 주차장완비(50~60대), 병풍처럼 야산이 둘러져 있고 앞이 환하게 트여 바다가 보임

011-806-3342

사 찰 안 내

〈절 터〉

● 위치: 남해 ● 위치: 부산 근교 ● 위치: 내원사 부근
● 부지: 천평(종교용지) ● 부지: 3천평 ● 면적: 1440평
● 법당: 20평 ● 법당: 28평 ● 방향: 동남향
● 요사채: 30평 ● 요사채: 50평 ● 가액: 5억5천
● 가액: 3억5천 ● 가액: 4억8천 ● 버스진입가능
● 바다보이는 완벽한 암자 ● 여법한 근교암자 운치있는 송림

부산,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컨설팅 (양도 양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佛國불사 051)508-5889, 018-563-9575
동면공인중개사 홈페이지 cafe.daum.net/dongmuen

사찰터 안내

● 위치: 강원도 춘천 소양댐 근교
● 450평 평당 25만원 330평 평당 35만원

011-9796-7599

사찰안내

● 위치 : 강릉I · C부근 천혜의 소나무 자연 조경
● 부지 500평, 노천 미륵 법당
● 법당 30평, 요사 30평, 산신각
● 가액 : 2억(전세 가) (융자 6천만원 포함)

011-452-8374
033)644-3149

사찰안내

● 위치 : 포항 죽장하옥
● 대지 200평, 전 500평, 요사 30평, 법당
● 산세수려
● 가액 : 1억 4천만원

010-6462-0343
054)262-6673

사찰안내

● 위치: 부산인접(양산, 서창)
● 대지: 60평
● 평당 200만원 호가
● 건물신축: 64평 3층(단청필)
● 가액: 3억4천(융자 9천 포함) 현금 약 2억
● 실수요 스님만 답사후 절충

055)386-3973
011-868-5997

토굴안내

● 위치 : 충남 금산군 남이면 소재
● 대지 200평(등기필)
● 전통한옥건물 2동(안채, 사랑채) 심야전기 시설이 완비됨 아주 깨끗한 전통 한옥
● 스님 토굴이나 노후 가족 휴양처로 최적의 장소 ● 가액 : 9천만원

041)753-3766

사찰안내

● 위치: 경기도 의정부 호원동 (국립공원 인접) 망월사 1호선 지하철역에서 15분거리
● 평수 : 200평(시유지) 임법당 : 45평
● 마당에 관세음 보살님 석불 철층석탑 심야보일러, 지하상수도
● 가액: 4억(절충가능)

016-337-9518

사찰.포교당안내

● 위치: 경남 김해시
● 대지: 86평, 건물: 3층, 각 30평(내부계단 평수 제외) 1층- 대중공양실, 방2개 2층- 거실, 방3개. 3층- 법당
● 답사후 절충, 꼭 필요한분만 연락바람

010-4810-6510
018-382-4537

사찰안내

● 위치 : 강원 강릉시 성산
● 총평수 : 2148평
● 종교부지 : 1000평
● 대지 : 240평 ● 나머지 : 전답 760평
● 건물평수 : 대웅전 40평 산신각 10평, 지장전 10평 요사채 60평, 조립식 30평
● 가액 : 11억
※ 납골당 및 요양원 시설 가능
※ 컨설팅 중계업 사양

010-3191-9095

사찰안내

● 위치: 서울 동작구 상도2동 장승백이역 2분거리
● 대지 66평
● 건평 56평 1층 요사채, 2층 법당
● 가액: 4억 7천만원

02)815-0302
011-722-0302

사찰안내

● 위치: 경기도 포천시 스키장 근접
● 부지: 1300평 건물3동 건평95평
● 가액: 3억8천만원

● 부지: 1만평
● 가액: 6억 5천

031)533-2420
017-202-2741

토굴, 팬션 안내

● 위치 : 남 덕유산 자락
● 부지 : 1,631평
● 가옥 : 신축 황토 기와집
● 가액 : 5억 3천만원 (대출가능)
● 특징 : 맑은 개울과 집 뒤의 솔숲, 넓은 정원을 갖춘 아름다운 집
※ 주인직접 쓰고 관리해 옴

016-367-2112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거창군 웅양면 (일반주택 사찰)
● 대지: 150평
● 건물(시설): 30평(건물 2동), 삼존불, 각단탱화
● 법당 : 사찰내까지 차들어감, 즉시입주(법회) 可. 시세보다 싸게 급매
● 가액 : 6천 3백만원 (융자 1천 2백만원 포함)

019-503-7959

포교당안내

● 위치: 부산 남산동 지하철 2분거리
● 가정집, 사무실 겸용 사용가
● 평수: 40평
● 가액 1억2천
● 스님이 불사 관계로 급 양도

011-614-7466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통영시 인근섬
● 대지: 120평 밭: 200평 요사채18평(방4개) 법당: 30평(삼존불 각단탱화)
● 특징: 불심있는 지역으로 포교불사에 관심있는 스님 적합
● 가액: 보증금 1억6천 답사 후 가액 절충 可

011-9576-1648

사찰(급)안내

● 위치: 강원도 최고의 관광지 기도처
● 법당,요사채 집기 일체 양도
● 가액: 14억
● 답사 후 가액 절충 可

010-6248-734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마산시
● 대지 : 600평 건물 : 고건축 신축(22평) 요사채(37평)
● 산세수려한 시골 마지막산자락
● 가액 : 4억(융자1억7천만원 포함) 답사후 절충가능

053)638-8040
011-530-8490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동대신동 (버스정류소에서 50m)
● 대지: 약 200평 법당, 산신각, 요사채
● 특징: 숲을창, 고급
● 가액: 4억3천만원 (융자 1억3천만원)

016-651-1800
011-870-1463

포교원안내

최고의 시설,최고의 위치(시장중심)
● 사정상 급 양도
● 위치: 대구 동구시장내 3층건물 3층
● 평수: 건물 법당 70평
● 요사 40평 옥상 전용공간 120평
● 가액: 1억 5천만원 (보증금 시설비 포함 월세없음)

011-436-0097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부근 원주시 국선 전철역 부근 개통 예정지 앞 의료단지 상업단지 부근
● 평수: 209평, 법당: 20평, 요사채: 20평 삼존불, 돌탑부처님(관세음보살, 약사불, 미륵불)
● 가액: 1억7천5백만원

033)766-0057
011-471-1996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포천 대진대학교 옆, 대로변에서 5분거리
● 평수 : 약50평, 방5개
● 가액 : 5천만원(전세3천)
● 즉시법회 가능 (집기일체)

02)909-8097
011-9725-3196

사찰안내

● 위치 : 강릉시 옥계면 신축사찰
● 대지 : 150평, 전 : 430평
● 전세 3000만원 양도가 8500만원

● 위치: 양산시, 포교당 35평
● 보증금 1000만원 월 35만원

055)362-0199
010-7167-3499

사찰안내

● 위치: 치악산 서울에서 1시간20분거리
● 건물: 법당 30평 요사채 40평 산신각 5평 대웅전(삼존불) 35평
● 큰방 7개 욕실 4개완비 화장실 납골당 90기 만들어져 있음
● 가액: 전세 6천만원
● 산세수려, 기도도량최적지

033)345-5597

포교당 안내

● 위치 : 용인시 도심포교 최적지
● 42평 건물 4층 옥상 사용가능
● 법당, 산신각, 방2개 주방, 거실, 욕실
● 보증금 : 4천만원.월1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017-372-8968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봉덕2동
● 평수 : 45평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5만원 시설비 600만원
● 교통편리 몸만 오시면 됨

018-541-1890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752-9 201호 상가2층
● 크기 : 약 22평
● 모든 시설물 일체 600만원
● 가액 : 보증금 100만원 월 30만원

031)975-6619
010-3906-0528

사찰안내

● 위치: 서울 동작구 대방동
● 대지: 184평, 건평 184평
● 1층 법당: 30평, 방3개, 사무실, 부엌 2층 요사채: 방 5개. 지하: 창고, 주차장, 화장실
● 가액: 답사후 가액 협의
● 교통편: 전철1호선, 7호선, 버스, 대중교통 편리
● 입지: 반경 2km 內 중산층 아파트 5만여 세대

02)882-1995
011-9646-1990

토굴암자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례IC 4분, 부산 서면에서 30분
● 부지: 답 404평 국유지 1600평 합 2000평
● 건물 : 스레트 ● 임법당 : 12평 요사채 15평, 산신각 2평
● 특징: 계곡끼고 물좋고 그림같은 곳
● 가액: 1억6천만원

011-845-2886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성내2동 (천호역 3분거리)
● 평수 : 35평
● 가액 : 보증금, 시설비 합 3000만원

011-335-2952
010-2335-7721

토굴 안내

● 위치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삼가동 달밭골
● 평수 : 100평
● 방 2개(입식부엌)
● 가액 : 3천만원

054)638-5561
010-4535-6673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은평구 대조동 (불광 터미널 앞 위치)
● 약 23평,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시설비 2천만원 월 45만원

010-8963-9983

사찰안내

● 위치 : 산세수려한 곳
● 건물 4동
● 대지 2000평

016-591-3510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 평수 : 600평, 대지402평, 대웅전 33평(삼존불) 삼성각 10평, 요사채 66평
● 7층석탑, 약수 전망 좋고, 산세 수려하고, 수행과 포교에 적합
● 가액 : 6억 9천

011-9143-0098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토굴, 암자 안내

● 위치 : 구미시 무얼면 선산 IC에서 5분거리, 구미시내에서 30분거리
● 평수 : 1430평(밭)
● 대지 : 186평, 주택 : 30평 (방3개, 거실, 주방, 욕실) 창고 2개. 동네옆 산밑 조용, 집 주택시설 최고
● 가액 : 1억5천만원 (융자 4100만 포함)

054)481-7481

사찰안내

● 위치: 경남 고성읍내
● 대지: 200평 대웅전 약 30평(정남향)
● 큰바위 3개있음, 산신각, 화장실 안밖으로 2개, 공양간 2
● 즉시법회가능
● 차량은 사찰까지 들어올 수 있음

011-879-7551

사찰터(급)안내

● 위치: 충북 제천시 청풍호 주변
● 부지: 2필지 708평
● 현재 하우스 전기 전화 가설 계곡에 자연수 흐르는 기도처

● 위치: 충북 괴산군 마애불 지방문화재근처
● 부지: 233평 ● 가액: 상담후결정
※ 사정상 급 양도

011-742-5925
043)644-166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
● 대지 : 350평, 산 2000평
● 건물 : 요사채 30평(1채) 15평(1채), 법당 : 13평 (산신, 용왕당 2평)
● 특징 : 고속전철 20분거리 약수가 좋음
● 가액 : 1억8천만원 답사 후 가액 절충可

011-811-5466

사찰(급)안내

● 위치: 대구시 동구 신축 2층건물
● 대지: 105평 ● 법당: 28평
● 요사채: 45평
● 시설: 화장실 4, 심야보일러, 수도, 지하수, 창고, 상수도
● 가액: 2억 8천만원
● 즉시법회가능

011-785-5670
053)986-2227

사찰 안내

● 위치 : 원주 봉화산
● 총평수 1300평(800평 종교부지) 대웅전 35평, 보궁 25평, 삼성각 5평, 미륵대불, 석가탑, 요사채 50평, 신축, 심야전기. 정법포교, 청정도량. 산세수려한 등산로임
● 가액: 5억8천만원 ※꼭 하실분 절충가능
● 뜻이 있는분 시세보다 싸게 양도함

010-6213-5949

포교당(급)안내

● 위치: 청주시 흥덕구 충북대 부근 역세권
● 3층건물 중 2층 약 45평
● 시설 : 삼존불, 각단 고급 후불탱화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에 월 30만원 또는 300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 최저가 2300만원
● 즉시 입주 법회 가능함
※ 꼭 필요하신 분만 전화요망

016-261-2068

불자생활정보

▷광고문의 :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초당 철학연구원

인생상담, 사주
신수, 궁합
전화상담
060-808-8463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전통범음범패학인모집

기초불공의식, 천도재,
49재, 바라무, 작법무
초급부터 고급까지 모든의식을
여법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
영남범음범패교육대학
수료후 수료증 수여
011-849-0961

역학개인지도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개업 책임지도(고급반)
※ 스님. 특별우대 ※
반야선원. 혜공합장
02)421-8494

범패,염불,학인 모집중

각종불공의식	천도재 49재	정안식	용왕산신재	바라나비춤	상가영불	천도시식전문	명리주역

각 행사 염불해 드림, 역학으로 영가 보는법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탄우 합장
02)939-3327
011-9923-3329

육임역학 비법전수

- 5천년 역학사 검증된 정확성
- 역학 중 자타공인 최고의 길흉적중을
- 인간사 모든 문제 길흉 예측 정단

고려육임학회(육임학 전문 학술단체)
02)816-2115
053)551-1356(011-1763-3567)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단청 탱화

문하생 수시모집
(수산 전통 불교 미술원)
02)381-4433
010-3000-4459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 행자모집
불교 범음·범패 교육도량
대구팔공산 구화사(한티재)
010-4816-6454

불교범음범패전통의식전수자모집

부산 경남 범음 범패 불음대학
의식스님 필요시 연락 바람
교육문의 011-584-5588 법수
행사문의
011-869-8560 진우

역학개인지도

명리학, 성명학,
불교신행, 명리상담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접수
02)387-2302
016-9511-0840

쑥 게르마늄, 키토산

쉽게 떨어지지 않는 몸에
붙이는 찜질패드
근육통, 중풍으로 인한 마비,
오십견, 어깨, 손목, 허리, 다리,
발목이 삐었을때 아프신 분
50장-만원
080-333-3307
011-6352-3307

수강생 모집

周易原典講義	春秋左傳	中庸講義
매주 (수) • 오전11-1시 • 오후 7-9시	5월 2일(월) 개강 • 매주(월) 오후 7-9시	5월 4일(수) 개강 • 매주(수) 오후 3-5시

(사)동방문화진흥회 02)2237-9137 02)2237-8970 ◆수강료 : 월 6만원
6호선 동묘역 2번출구 / 1호선 동대문역 4번출구

사주특별개인지도

- 사주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립니다
- 승려에 한하며 보시금은 서로 다릅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당뇨·합병증

세계14개국 특허
나노기술로 만든
건강기능식품
*독일,중국,일본 임상실험완료(유럽8개국 임상실험중)
*나노기술(Nano Technology)로 만들어 흡수효능 극대화
*대한임상건강의학회 인증제품
*다른 방법으로 포기하신분 환영
제조원: 日本 Welway 株式會社
문의 : 눈밝은 세상 (02)2237-8004

사주통달책임지도(성수철학원)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국내외 제자 200명 왕성히 활동중)
- 지도교수 : 백운 성수(회장) 부교수 약간명

완전초보자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한달만에 모든것 완전 통달함. 교육 이수 후 월 250만원 보장

※전화 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 양성 교육기관임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2층) 대명시장 맞은편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사주 운세 10초안에 맞추면 입금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혼사지연, 이혼, 부부갈등, 학업성적부진, 가출 등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드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www.10cho-unse.com
24304-3396114 하나은행(예금주 : 김진동)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권 성왕사 선원 (법인출원중)

불상탱화(급)모십니다 (인연주실분)
- 오존불중 : 석가, 약사, 지장, 산신탱화, 불단, 불기
- 우리 일만년 상고사와 현대불교
- 기+요가 = 선체조, 단전호흡, 참선, 행공, 원리 교육
- 기공,활법 : 턱,목, 어깨, 척추(허리통증), 짝다리, S등, 곡등, 탈골, 체형교정, 활법지도(자연치유)
- 사주, 이름, 풍수지리 광음파 인간작용관계 각 수시 법강

5월 5일 점안 개원
011-817-3387 / 02)835-2399
전철 2호선 신대방역 3번출구(한독병원옆) 7호선 신풍역 각 7,8분 소요

행 자 모 집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에서는 참 자아를 찾고 이 세상의 불국토를 실현코저 하는 원력을 가진 미래의 세계불교를 이끌어 갈 참 수행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자격 : 16세이상 남 · 녀 2. 1인 1실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3.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 큰 절 중 택일
문의 : 011-9852-0075 (총무스님)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영남불교대학 참조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053)474-8228
[대구 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낙태(유산)아 무보시 1000일 천도대법회

- 일시 : 매주 목요일(오전 10시) 수자영가 기도
- 기도비 무료(당일 대중공양 보시)
- 접수 : 지혜정사 종무실, 수성포교원 지혜선원
- 문의전화 : 054)975-7766, 0104, 053)752-0108
- 장소(위치) : 팔공산 한티재입구 기성삼거리

※ 태영가 추모탑 건립을 위하여 동참하시는 불자님께는 스님이 직접 그린 달마도를 보시합니다.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1005번지
한국불교태고종 정법수행정진도량 팔공산 지혜정사

허준선생의 東醫寶鑑 - "약과 침으로 치유되지 않는 병은 반드시 뜸을 떠야한다"

연기와 화상 걱정에서 완전 해방된 새로운 쑥뜸용구 -

오행쑥뜸기/오행좌훈기/음양쑥뜸기(무릎관절용)

신개발품 출시기념
제품 구입시 쑥봉 1개월분 무료증정!

각종 통증 및 근육통 완화!



오행쑥뜸기

■ 제품의 특징
- 화상과 연기의 위험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쑥뜸을 할 수 있다.
- 복부의 5개 혈자리를 동시에 뜸할 수 있는 획기적 효과가 있다.
- 타이머 장착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배출.
- 온열판 내장으로 쑥의 원적외선 유효 성분이 체내에 유입하는 효과 증대.
- 혈 자리를 모르는 초보자나 노약자도 간편하게 쑥뜸을 뜰 수 있다.



오행좌훈기

■ 제품의 특징
- 좌훈기 내부에 온열판 장착으로 쑥이 원적외선 유효성분이 체내에 유입되는 효과가 증대 됨.
- 인체와 접촉되는 부위가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어 끓는 물에 살균소독이 가능하여 위생적임.
- 타이머 장착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 좌훈기에 등받이가 부착되어 편안한 자세로 뜸을 할 수 있다.



음양쑥뜸기 (무릎관절)

■ 제품의 특징

각종 통증 완화 사용후 35분이면...

- 벨트를 이용하여 무릎, 머리, 어깨, 허리 등에 간편하게 고정 할 수 있어 집중 쑥뜸을 할 수 있다.
- 타이머 장착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몸에 좋은것은 알지만 일반인들은 쉽게할 수 없었던 전통한방쑥뜸 -

이제 누구나 쉽고 편하게 각종 통증 및 근육통 완화를 위해 쑥뜸을 하십시오. 연기는 100% 밖으로 배출하고 화상 걱정은 타이머의 장착으로 완전해결한 획기적인 특허품 -

오행쑥뜸기, 오행좌훈기, 음양쑥뜸기

의료용구로 허가를 받은 믿을 수 있는 제품

대구한의대 및 대구 한방병원 교수진에 의해 개발

특허등록

BM TRADA CERTIFICATION ISO 9001:2000 / UKAS QUALITY MANAGEMENT 012

의료용구 제조품목허가 : 제 03662호
의료용구 제조업허가 : 제 1682호
전기용품 안전인증허가 : JC07019-3001
실용신안등록 : 제 0308642호
실용신안등록 : 제 0318970호
실용신안등록 : 제 0328990호
의장등록번호 : 제 0344295호
의장등록번호 : 제 0344295호의 유사 제 01호
ISO 9001인증서번호 : 제 017269호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대리점 및 취급점 문의 02)521-4405
■ 제품구입 문의 : 02)521-6353

www.moxa4u.com 오행쑥뜸 · 좌훈기 · 음양쑥뜸기 02)521-6353~4
D.M.I 산업 의료용구제조허가제1682호 대구한의대학교 한방바이오 창업보육센터

“우리 직장에 연등 걸어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전국 주요도시 중심가와 사찰 인근에 봉축연등이 걸리기 시작했다. 부처님 탄신을 널리 알리고 봉축분위기를 돋구는 이 연등이 내 직장에 걸린다면? 불자들에게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일이지만, 실제로 연등을 걸 수 있는 직장은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직장과 회사주변에 나름대로의 발원을 담은 봉축 연등을 다는 신행단체가 늘고 있다.

경불회, 철불협 등 ‘자비·지혜의 등’ 달기 확산
등 만들며 회원간 친분 불심 돈독, 자부심 키워


직장에 걸리는 연등은 직장내 불자들의 자긍심을 키울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친분들을 두텁게 하는 고리가 된다. 사진은 조방연등회 회원들이 거리에 등을 다는 모습.

서울 성북경찰서 법당에서는 요즘 봉축연등을 만드는 경찰불자들의 손길이 분주해졌다. 부처님오신날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 매년 이맘때가 되면 성북경찰서불교회 회원들은 법당에 옹기종기 모여앉아 연등을 만들면서 봉축행사를 점검하곤 한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연등은 법당은 물론 성북경찰서 관내에 내걸린다. 뿐만 아니라 경찰서 주변에도 봉축등을 내걸어 부처님오신날을 알린다.

전국 경찰서와 주변에도 ‘자비·지혜의 등’이 내걸린다. 지난해에는 20여 경찰관서에 걸렸지만, 올해에는 대한불교경승단과 경찰불교회의 주도로 100여 관서에 ‘자비·지혜의 등’이 걸릴 예정이다.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 산하 45개 지회는 불자 교도관과 재소자들이 직접 ‘참회의 등’을 만들어 교도소 내를 장엄한다. 교화위원스님들과 교도소 불자회, 재소자불자들의 염원으로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교도소 내외 연등달기는 20여년을 이어온 아름다운 전통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았다. 지금은 전국 50여 교정기관 가운데 연등을 달지 않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다.

한국철도공사불교단체협의회(이하 철불협)의 발원주제는 ‘무사고’. 철불협은 소속 22개 직장단체들은 5월초부터 주요 역사와 소속기관에 ‘무사고 기원등’을 건다.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와 부인들의 모임인 승만부인회는 성북역사와 주변거리, 가정에 ‘축제의 등’을 단다.

40여 병원불자회로 구성된 전국병원불자연합회는 원내와 주변, 병실을 ‘쾌유 기원 연등’으로 장엄한다. 서울 은평·동작·성북구청, 마산시청, 구미시청 불자회 등도 5월초 봉축등을 걸 예정이다.

직장직능 신행단체들이 직장과 주변에 다는 연등은 봉축위원회와 지역사암연합회가 주도해 내거는 연등 보다 볼품이 없거나 수적으로 열세다. 하지만 직장이라는 장소에 봉축등이 걸리는 것은 적지않은 의미를 지닌다.

직장에 걸리는 연등은 직장내 불자회 회원들과 불자들의 자부심을 높이는 효과와 ‘무명을 밝히는’ 등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된다. 또한 불자회의 활동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기회다. 연등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불자회 회원들간 친분과 불심을 돈독히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불자이면서도 불자회가 활동하고 있는지 몰라서 가입하지 않은 이들은 연등을 보고 가입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연등을 내걸기 위해서는 다른 종교인들을 의식해야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상하 직급이 분명한 직장에서 대표자가 다른 종교인일 때는 연등을 거는 일은 자리까지 내놓는 ‘모험’ 수준이다.

정찬연 철불협 포교위원장은 “다른 종교인들과 종교가 없는 이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고 공감할 있는 주제를 선택한다면 그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며 “직장의 분위기에 따라 적절한 테마를 연등과 현수막에 새겨넣어 모두가 함께하는 부처님오신날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우리단체 이사람



김호규
정부중앙청사불자연합회 총무

‘오늘의 경구’ 보내기 일상화
불자회 가입, 결성 등에 진력

행정자치부와 소방방재청, 중앙인사위원회 불자회를 아우르는 정부중앙청사공무원불자연합회(이하 중앙청사불자련)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김호규 총무(45·행정자치부 의정팀·사진). 98년 정부부처 개편에 따라 총무처에서 행정자치부로 자리를 옮긴 뒤 불자회 활동을 시작한 늦깎이 불자다. 그런데도 중앙청사불자련 총무를 맡은 것은 적극적인 활동을 보인 때문이다.

“불자회 활동을 통해 고마운 분들과 부처님법을 만났으니 참 얻은게 많아요. 제가 받은 공덕을 회향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 작으나마 회원들에게 좋은 경구를 보내게 됐어요. 회원들로부터 잘 읽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김총무는 국무회의를 비롯해 각종 행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좀처럼 여유가 나지 않는 바쁜 일과를 보낸다. 그러나 출근 후 자리에 앉으면 회원들에게 ‘오늘의 경구(經句)’ 이메일을 보내는 일부터 시작한다. 집에서 미리 경구를 준비해오는 날은 그나마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땐 적지 않은 시간을 들일 수 밖에 없다. 그래도 그는 경구를 읽으며 밝게 웃을 회원들을 떠올리며 기꺼이 경구를 준비한다. 요즘엔 업무가 너무 바빠서 보내지 못했다며 회원들에게 미안하단다.

“직장에서 마음이 산란하거나 일에 지칠 때 가까운 사찰을 찾아 좌선을 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껴요. 그럴 때면 불교가 참 가깝게 느껴집니다. 다른 불자들도 직장에서 힘이 들거나 인상 찌푸릴 일이 있을 때 불교에서 답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는 요즘 감사원불자회의 중앙청사불자련 가입을 추진하는 한편 불자모임이 없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불자회 결성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정부종합청사내에서 법회장소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김총무는 밤시간을 이용해 대학을 다니면서도 행정자치부 불심회 총무를 맡기도 했다. 불심회 회원들이 한명한명 늘어갈 때 보람을 느꼈다.

“우리 가족은 모두가 매주 일요일이면 절에 나갑니다. 저는 부인과 일산 여래사를, 고1,2년인 두 아이는 서울 조계사 중고등학생회에 나가고 있지요. 아이들도 절에 다니니까 이야기를 나누는 공감대가 만들어져 좋습니다.”

박봉영 기자

국회 정각선원 10주년 법회 봉행

국회 본관에 위치한 정각선원이 4월 26일 개원 10주년을 맞았다. 국회의원 불자모임인 정각회(회장 이용희)와 국회직원신도회(회장 이진섭)는 이날 ‘혜국 스님 초청 참선법회’를 봉행해 정각선원의 10주년 의미를 되새겼다(사진).

이날 서울 수효사 주지 무구 스님을 비롯해 권익현 前 정각회장, 이용희 회장, 강창일 부회장, 이계진 주호영 이시종 의원 등 정각회 회원들과 김문희 이범희 前 국회직원신도회장 등 170여 명이 법당을 가득 메웠다.



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은 “우리가 현재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지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참선을 시작해야 한다”며 참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문을 시작했다. 이어 스님은 “현실의 육신과 욕망에 이끌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자리 그늘진 곳을 잘 살펴야 한다”며 “국회 정각회 의원들부터 참선을 통해 마음자리를 밝히고 나아가 국회를 정화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용희 정각회장은 “정각선원이 만인의 법당으로 국민의 원력을 담아내고 국회가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키우는 도량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홍준 국회 간사장의 발원문 낭독과 서울 대원정사 합창단의 음성공양으로 이날 10주년 개원법회는 회향됐다.

김강진 기자

공불련, 중국 성지순례

7월 26~31일, 돈황 일대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김세호, 이하 공불련)는 7월 26일부터 31일까지 중국 돈황 일대로 제4회 해외성지순례를 떠난다.

4박 6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순례에서는 신라 혜초 스님의 <왕오천축국전>이 발견된 막고굴을 비롯해 양관 실크로드 유적지와 타클라마칸 사막, 돈황고성, 명사산, 천불동, 화염산 등지를 참배한다.

공불련은 45명 내외의 참가 접수를 받고 있다. (02)739-1080

박봉영 기자

성남시청 불자회 창립한다

5월 7일 창립법회

경기도 성남시청에도 공무원불자회가 생긴다.

성남시청 공무원불자회는 5월 7일 오후 3시 성남시민회관 소강당에서 창립법회를 열기로 했다.

지난해 창립을 준비해오다가 중지된 바 있는 성남시청 공무원불자회는 정토사 주지 보광 스님(동국대 교수),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이상선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장,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관계자 등이 4월중 두차례의 준비모임을 열고 부처님오신날 이전에 창립하기로 의견을 모았었다. 이후 공불련이 창립을 위한 행정지원에 나서 1개월만에 전격적으로 창립하게 됐다.

초대회장은 발기인모임을 주도했던 김인규 건설교통국장이 선출됐으며, 김병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장이 부회장을 맡았다. 감사에는 손순구 도시주택국 가로정비과장과 김우태 분당보건소장이 선임됐다.

김인규 초대회장은 “지역사암과 연계한 활동을 통해 회원들의 신심을 쌓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불자생활정보
●광고문의
TEL 02)732-1522
FAX 02)737-0697
●광고가격
1Box(4.4×4.4) 4만원
●계좌번호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사찰구함 부산시내 6억정도 011-9678-2340
행자모심 ▷고졸이상 만40세 미만 대학, 대학원까지 책임 후원함 02)917-3363 (정릉)
부전스님 모십니다 031)719-0408
공양주보살님 (급)구합니다 경남 합천 해인사 부근 대한불교조계종 010-9456-8495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50~60代) 내절처럼 운영하실 부전스님 모십니다 011-9155-812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천지역 011-781-3513
내절처럼 잘 보살피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영천 054)338-8202 011-379-4442

기도에 정진하고 있는 50대 비구의 교통수단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보시해 주실 분 011-9601-6676
공양주 보살님과 스님이 되고자 체계적 공부를 원하는 남녀 행자 모십니다 ▷경북 구미 054)973-8415 010-3131-1094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전통사찰, 충남) 010-2202-8090
부전스님 모십니다 ▷부산 051)542-4848 011-551-1719
부전스님 자리 구합니다. 각종 불공의식, 철학 가능. 절 운영 경험있음 (비구 50세) 031)708-2287
조계종 전통사찰입니다. 몸이 아픈관계로 주지직을 수행하지 못해 본 사찰 주지로 모시게 되오니 인연되시는 분께 위임하고자 합니다. 010-3174-3869
부산 포교원 안내 57평. 합 5300만원 기도하실 비구니스님 및 행자(여) 스님 모십니다 ▷도심속 포교원 010-8674-4484 011-9193-2351
43세 비구입니다 수도권지역에 부전자리 구합니다 011-9167-0108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50 ~ 60세) ▷충북 제천 043)643-4733 019-540-7450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북한산성 011-9350-3216
수행하는 스님 한분에게 토굴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덕유산 자락 055)943-7122 010-2721-5960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60대. 지리산 011-483-563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54)834-693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60대. 숙식제공 월 보시금 100만원 충북 괴산 다보사 다보수련원 043)833-7789
창원 중심지역 불교용품점 ●전세 500 월세 30만 ●평수 12평 1층 ●물품대 일체 3천만원 (절충가능) 055)265-7998 010-9662-7074

일주문



北 룡천 참사 복구현장 방문

지구촌공생회 대표이사 월주 스님은 룡천 참사 복구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4월 27~30일 북한 함경북도 지역을 방문했다.



한암문도회 정기총회

한암문도회 회주 현해 스님(동국대 이사장)은 5월 5일 낮 12시 평창 월정사 대강당에서 한암문도회 제34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해인사 음악법회 개최

합천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은 5월 7일 오후 7시 경내에서 임동창 등 불교국가 연주자들을 초청한 음악법회 '화엄만다라'를 개최한다.



쁜샘 스님 초청법회

서울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은 5월 2일 3층 법당에서 캄보디아 시엡립 왓 라자보 사원 쁜샘 큰스님 초청법회를 개최했다.



동국대 연등 점등법회

동국대 정각원장 진월 스님은 5월 2일 동국대 불상 앞에서 연등 점등대법회, 중강당에서 건학 99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우토로국제대책회의 공동대표에

불교인권위 위원장 진관 스님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를 위해 4월 27일 결성된 '역사청산! 거주권 보장! 우토로국제대책회의' 공동대표로 활동을 함께 한다.



봉축기념 '별주부전' 공연

부산 삼광사 주지 도원 스님은 5월 3, 4일 오후 8시 지관전에서 봉축기념 연극 '별주부전'을 공연한다.(051)808-7111



부산 부경대서 강연

서울 능인선원 주지 지광 스님은 4월 20일 부산 부경대 대연캠퍼스 대회의실에서 '삶과 깨침의 의미'를 주제로 강연했다.



군산 흥천사 경로잔치

군산 흥천사 회주 지환 스님은 5월 7일 오전 11시 경내에서 군산시 거주 노인 1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제7회 경로잔치를 연다.(063)445-37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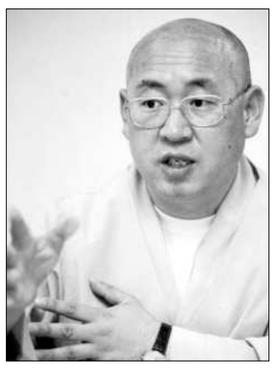


연꽃배지 보급 운동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성기태 회장은 최근 '자비의 연꽃으로 하나되는 세상'이란 모토로 연꽃배지 보급 운동을 시작했다(02)720-1963

"원통보전 · 산림 복구 전국민 힘으로"

'화재 1개월' 복구에 분주한 낙산사 주지 정념 스님



"원통보전과 사찰인근 산림만큼은 국민들의 동참으로 복원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포근한 사찰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4월 5일 강원도 일대의 산불 피해로 21채의 당우를 순식간에 잃어버린 낙산사 주지 정념 스님(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 사진).

스님은 "화재 한달이 지나면서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며 "'관음성지 낙산사'의 면모를 회복하겠다"고 복원에 강한 집념을 드러냈다.

신계사 복원, 스리랑카 복지타운 건설 등 총무원의 각종 현안만으로도 숨 돌릴 틈이 없는 정념 스님은 수시로 낙산사에 내려가 복원 전반을 진두지휘 하고 있다.

스님은 "전각 잔해처리는 거의 완료된 만큼 초파일 이후부터 발굴을 시작해 본격적인 복원에 돌입할 것"이라며 "3년 안에 80% 이상 복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스님은 특히 "낙산사가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각 전각들을 현대적 건축양식이 가미된 형태로 짓겠다"고 강조했다. 해수관음 법당과 홍련암 법당 등을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복원해 현대적인 신행활동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이 낙산사와 협의 없이 다소 즉흥적으로 일을 추진해 마찰이 일기도 했다"는 정념 스님은 "국가적 유산인 낙산사를 복원하는데 한 치의 오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종합 언론감시단체 역할 다 할것"

(사)보리 창립법회 29일 역사문화기념관서



사단법인 보리(이사장 김재일)는 4월 29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창립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기념식은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방송위원회 박준영 상임위원 등을 포함해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법장 스님은 치사를 통해 "불교의 권익과 발전, 시청자의 주권확보, 종교 간의 상생을 도모하는 언론 감시단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립 15주년을 맞은 보리방송모니터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사단법인 보리는 앞으로 방송활동은 물론 신문과 잡지, 출판 등을 아우르는 종합 언론단체로서 활동의 폭을 넓히게 된다.

노병철 기자

세계 13개국 순양하며 전법

해군사관학교 순양교육 참가 이경한 군법사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릴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하겠습니다."

해군이 5월 7일부터 9월 12일까지 영국 독일 싱가폴 등 세계 13개국을 돌며 실시하는 2005년도 순양교육에 4학년 해군사관생도들과 함께 군종장교로 참가하는 이경한(순양함 사령부, 대위 · 사진) 군법사.

이 법사를 포함한 충무공 이순신함 승무원 700여 명은 이들 방문국 기항지에서 한국을 대표해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유력인사들과의 외교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129일 동안 세계 바다를 누비는 이 법사는 이들 행사에 참석해 외국인들에게 한국불교의 찬란한 전통을 알려줄 계획이다. 이 법사는 함께 선상 생활을 하는 700여 승무원과 사관생들을 위한 법회도 개최한다.

강유신 기자

불교방송 개국 15주년 법회



불교방송(사장 이성언)은 4월 29일 본사 3층 법당에서 개국 15주년 기념법회를 열었다. 이날 법회에서 이성언 사장은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맞게 올 연말까지 BBSi(인터넷 불교방송), BBS TV(불교방송 케이블TV)를 설립해 뉴미디어 매체에도 뛰어들겠다"고 말했다.

서울 백련사 주지 설산 스님 진산식



서울 홍은동 태고종 백련사 제38세 주지 진산식이 4월 26일 열렸다. 태고종 전 총무원장 인곡, 백련사 회주 운경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한 이날 진산식에서 새 주지 설산 스님은 "부처님 말씀을 실천행으로 구현하여 중생과 호흡하는 사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보국사 개원 2주년 법회



개원 2주년을 맞은 인천 보국사(주지 지원)는 4월 24일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법회와 아미타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장수 죽림정사 조실 도문 스님은 "삼존불을 신앙의 대상인 동시에 수도의 표본으로, 삼아 지성으로 귀의하고 찬탄, 예배, 참회, 발원을 하라"고 당부했다.

양산 천불사 주지 보원 스님 진산식



조계종 선학원 양산 천불사는 4월 23일 신임 주지 보원 스님의 주지 진산식을 봉행했다. 이날 진산식은 선학원 총무이사 정관 스님, 천불사 회주 도봉 스님 등 1천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보원 스님은 "지역의 포교와 수행, 복지, 문화를 선도하는 도량으로 가꾸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부산 홍법사 '인간불교독서회' 창립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와 국제불광사 부산협회는 4월 22일과 23일 '인간불교독서회'를 창립하고 기념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심산 스님은 "인간불교독서회 활동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토론의 문화가 활발하게 성숙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 山寺조청 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조청 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 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 山寺조청 은 한의사 이기웅 원장과 약초연구가 김지문 거사님의 자문을 받습니다.

♣ 山寺조청 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1.2kg

山寺 천미래 조청
중금속해독, 풍습제거(부종), 사지관절, 중풍과 암 예방에 탁월한 기여 1.2kg

山寺 기천량 조청
상기, 기혈조절, 손발냉증, 보혈, 혈액순환에 기여 1.2kg

山寺 약도라지 조청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1.2kg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융사 054)372-3166, 372-5721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당신의 맑은 피부를 위한
청정생기세심비누
특 허 : 제0482418호(식양청 허가제품)
발명자 : 김지문
◆ 성분 : 천연진주가루, 콜라겐, 카마모일, 구기자, 당귀 등 천연생약 10여종 및 팜유와 라벤다 천연오일향
◆ 효능 : 피부에 무자극으로 보습효과 항균성 뛰어남, 아토피 피부염, 여드름, 기미, 각질제거, 발바닥 갈라짐 방지, 피부알레르기, 두피(탈모방지), 세안 및 미백효과 탁월 하며 청정한 생기력은 마음까지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제조원 : (주)海仁우리
■100g × 4개 1Box 42,000원
■전 화 : 054)372-3166
■입금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청정생기 세심 비누를 꾸준히 사용하시면 피부가 말고 젊어집니다.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조청원

공주대학교 식품과학연구소 | NSF-ISR에서 ISO 9001(2000), HACCP인증 | 3억원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이것이 명품이다!

현풍심마니 토종오가피는 자사 직영 농장인 포천, 영월, 홍성에서 직접 재배한 100% 국산 토종오가피와 경희대 한방연구소에서 배양한 산삼 배양근 원료를 ISO 9001 품질인증과 식품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 HACCP에서 인증 받은 초현대식 시설로 원료에서 제조, 생산, 유통에 이르기까지 원톱시스템을 갖춘 믿을수 있는 제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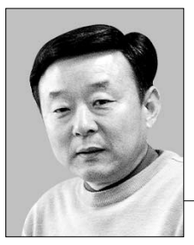
심마니 토종오가피 시음 무료체험
전화주시면 책자와 비디오테잎을 심마니 토종오가피와 함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무료체험의 즐거움과 건강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심마니 토종오가피

祝 : 현풍 토종심마니오가피 국내최초 여자프로 권투단 창단
(주)현풍은 세계 주니어 플라이급 챔피언인 김주희 선수와 여자프로 유망주 손초롱 선수외 4명으로 출범한 현풍 프로권투단은 한국프로 권투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국산토종오가피 묘목분양 및 상담※

상담문의 및 무료자료배송 02)455-1114 (주)현풍F&B HYUN PUNG F&B CO., LTD.



불자 세상보기

이 우 상

대진대 문창과 교수 · 본지 논설위원

칼날 위에 얹혀 있는 가정

가정은 행복의 최소단위다. 화평과 위안의 추상적 공간이 고향이라면 맨살로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곳이 가정이다. 참혹한 전란 속에서도 가정은 가족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였다. 그러나 세월의 비정함을 증명하려는 듯 가정이 위태롭다. 요즘 벌어지는 가정 폭력 사태는 날마다 아슬아슬하다.

세상에 알려지고 있는 제목만도 숨이 컥컥 막힐 지경이다. 애 못 낳는다며 며느리 때린 시아버지, 새벽 세 시에 문을 늦게 열었다며 열 살 난 아들을 마구 폭행한 아버지,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 가장 살해한 모녀, 강도로 위장해 남편 청부살해, 남편의 폭력 피해 도망치던 아내 옥상에서 추락사 등, 경우의 수를 나열하듯 사건의 유형과 방법이 파다하다. 그 잔혹극의 무대는 가정이고 등장인물은 가족이다.

급기야 얼마 전, 상습적으로 가정 폭력을 휘둘러온 알콜 중독자인 아버지를 넥타이로 목 졸라 숨지게 한 열 네 살 여중생 사건 소식을 접하기에 이르렀다. 귀와 눈을 막고 싶다. 숨이 멎을 지경이다. 가정 폭력의 원인과 대책이 숨 가쁘게 쏟아져 나오지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허무함에 사지가 축 늘어진다. 관계의 단절이니 소통의 부재니 하며 현란한 어휘로 치장하는 문학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낀다.

가정 폭력은 수많은 사례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낯선 체험이다. 그것을 예방하려는 법과 제도의 미비함에 피상적 책임이 있다. 그러나 법과 제도가 아무리 촘촘하게 짜여져 있다한들 낯선 체험을 막을 수 있겠는가. 가정 폭력의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강자 중심의 사법관행을 개선한다고 무너진 인륜과 사라진 생명이 부활할까.

법과 제도는 정치의 몫이다. 인간의 심성을 조절하고 순화하는 것은 종교의 몫이다. 정치와 종교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무명을 일깨우는 목탁이니 하는 공허한 구호에만 충실한 것은 아닌가.

모든 사건 사고는 감성의 산물이다. 특히 가정 폭력은 충동적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는 습관 때문이다. 촌수의 거리를 규정할 수 없는 부부, 부모 자식간에 저질러지는 야만적 횡포다. 충동을 자제하는 힘과 인내를 한 뼘만 기른다면 순간적 최면 상태를 억제할 수 있다. 부처의 자비라는 거창한 관념적 명제를 가르치기에는 그들의 가슴이 이미 너무 팍팍하다. 그저 하루 한 번이라도, 울컥하는 격분이 치솟을 때, '휴~ 관세음보살'이라고 한 마디만 읊어보자. 한 박자만 늦추면 악귀 같던 상대의 얼굴이 달리 보인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보인다.

의무와 권리, 이기와 이타가 오롯이 뭉쳐진 곳이 가정이다. 세상을 만드는 기초 세포조직이 가정이다. 핏발선 가해자 역시 천륜으로 맺어진 가족이다. 분노와 억울함 없는 자가 어디 있을까. 멧돼지가 자라나는 이빨을 마모시키려고 고목 둥치에 부지런히 이빨을 갈아대듯이 참고 삭이며 사는 것이 세상이다.

세상에 널린 것이 총칼이다. 마지막 안식처인 가정만은 칼날 위에서 내려놓자. 공포와 불안의 기운을 걷어내자. 숨 한 번 만 더 쉬고 가족을 바라보자. 그들은 적이 아니라 눈물겨운 동반자다.

며칠 전, 속상한 일이 있어 술을 과하게하고 밤늦게 귀가했다. 이유 없이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싶었으나 들숨 크게 쉬며, 참고 들어가 잠든 딸애의 방문을 열어보았다. 편한 자세로 세상 모르고 자고 있다. 머리가 띵하고 얼얼한 중에 또 다른 생각이 겹친다.

십여 년간 아비의 주정과 폭력에 견디다 못해 아비를 죽인, 딸애와 동갑내기인 강릉 여중생 이양은 지금 차디찬 교도소에 있다.

아! 관세음보살!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군포교 거시적인 틀 짜야

열악한 군 포교의 현황 속에서, 그래도 가장 큰 기여를 하면서 군 포교를 주도하는 것이 조계종이라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하기에 조계종이 중심이 되어 군 포교를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타 종교와의 상대적 포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힘의 결집에 나서야 한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조계종이 6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군종 특별교구' 제도도 군법사 활용과 군포교의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조계종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숨어있는 문제점 또한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문제의 핵심은 군 법당이 "조계종 ○○사'로 불리게 된다는 점이다. 지금의 현실은 종파와 종단을 초월하여 불법의 홍포에 힘을 합쳐야 할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하여 조계종이 일종의 독점선언을 한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다. 이는 다른 종단들의 군포교 의지를 원초적으로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 아무리 대승적 차원에서 힘을 합치자 해도 군 법당이 조계종 사찰 간판을 달게 된다면 자연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계종이 우선 대승적 입장에서 각 종단들의 군 포교 의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군 포교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하나의 힘이라도 더 모아야 할 형편에 이미 참여하고 있던 힘이 떨어져 나가서야 될 일인가? 모든 불자, 모든 사찰, 모든 불교 종단들이 군 포교를 자신들의 일로 여기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군 포교를 살리는 바른 길이라는 큰 원칙을 지녀야 한다. 그런 원칙 아래서 군 법당에 조계종 사찰로 불리게 되는 것이 군 포교의 체계화를 위해 그토록 필수적인 일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조계종 중심의 군 포교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현실적 효율성을 가진다면 그것을 살리되, 명분상으로 타 종단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믿는다. 조계종에서도 타 종단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길을 모색하겠다 하였으니, 이번 조계종의 '군종 특별교구' 시행이 범불교적인 군 포교 활성화의 토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가 되도록 불교계 모든 종단들이 힘과 지혜를 모으기를 기대한다. ■성태용(건국대 철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우토로를 아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이 바로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할 때이니라. 때를 놓치지 말고 참회하라. 사람이 세상을 살아감에 허물이 있을 지라도 곧 스스로 그것을 고치면 그는 훌륭한 사람이니라. 내 가르침은 넓고 커서 큰 허물이라도 용서하나니 지금 참회하는 것이 좋다." 〈증일아함경〉

'우토로'는 일본 교토 인근의 작은 마을이다. 그런데 이 작은 마을이 최근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 이유는 '우토로'의 문제가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과거의 아픈 역사'이기 때문이다.

'우토로'에는 1941년부터 교토 군비행장 건설을 위해 강제 징용당한 조선인과 그 후손 65가구 203명이 살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우토로 주민들에게 제대로 보상을 하지를 않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사법기구를 동원, 이들을 강제로 쫓아내려한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0년 땅 소유권자인 '닛산차체'의 요구대로 주민들에게 철거 명령을 내렸다 한다. 일본은 이미 1949년에 강제로 조선인들이 세운 민족학교를 폐쇄시켰으며 1987년까지도 제대로 된 상수도 시설을 만들어주지 않은 채 방치했다.

2차대전 전범국가인 일본은 한일 과거사 문제에서 보듯 반성은커녕 적반하장 격으로 독도가 자국 땅이란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일본의 몰상식한 태도는 바로 이 '우토로 문제'에서도 확인되는 것이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일본이 건전한 양심과 도덕, 제대로 된 역사의 의식을 가진 나라란 것을 믿기 힘들다

한국과 일본의 양심 있는 사람들은 4월 27일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우토로 국제대책회의'를 발족시켰다. '우토로 국제대책회의'는 국제 NGO단체와 연대해 일본정부에 항의하고 UN에 우토로 문제를 상정키로 했다. 진지한 참회와 반성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강유신(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기쁨과 나눔의 등' 불자의 자랑

매년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오면 서울시청 앞은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거대한 상징물이 등장한다.

올해 조형물은 '기쁨과 나눔의 등'으로 상서로움의 상징인 흰 코끼리를 등으로 만들어 밝힘으로써 상서로운 기운이 이 땅에 넘치고 기쁨과 나눔이 온 누리에 퍼지길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한다.

예년과는 달리 올해 행사는 조형물에 불을 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연등음악회가 열렸다. 불자로서 자긍심을 한껏 고취시킬 수 있는 행사였다. 장사익씨 신효범씨 등의 음성공양도,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사물놀이도 부처님오신날을 기쁘게 장엄하기에 부족함이 없어보였다. 온 세상에 부처님 오심을 알리고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인연을 나눈 기분이다.

이제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온다는 실감이 난다. 5월 8일 열리는 연등축제도, 15일 봉행될 봉축법회도 불자인 것을 기쁘게 느낄 수 있는 날 가운데 하나이다. 올해의 행사들도 여법하게 잘 치러지기를 바란다. 조순자(서울 중구 소공동)

'참선 얼차려' 라니…

구타 언어폭력 등 군대 내의 가혹행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육군이 기합을 참선으로 주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일명 '참선 얼차려'.

그 소식을 접한 순간 기가 막혀서 말이 다 나오지 않았다. 군대 내에서의 교육의 일환으로 참선을 활용한다면 불교 수행법의 활용이라 생각해 기뻐했을 것이다. 그러나 참선을 얼차려로 주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지 이 같은 얼차려 방식을 생각해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하다.

가혹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생각한다면 나쁘지 않은 의도겠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20분간의 참선은 '벌'일 뿐이다.

깨달음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참선이 벌의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은 절대 반대다. 육군본부 쪽에서도 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지만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소중한 수행법이 순간에 전락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유청훈(서울시 중랑구 군자동)

연등축제 소외계층과 함께

해마다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오면 전국의 사찰은 물론 거리는 온통 연등으로 밝혀진다. 불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남녀노소 누구나 부처님의 미소만큼이나 환한 연등을 바라보며 저 마다의 소원을 비는 모습은 숭고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우리는 아기부처님의 탄생에만 주목한 나머지 진정한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있진 않나 한번쯤 곱씹어 본다.

빈자일등(貧者一燈)이란 말이 있다. 부자의 만등보다 가난한 자의 정성스런 등 하나가 더 낫다는 뜻으로 〈현우경〉의 빈녀난타품에 나오는 것이다. 화려한 제등행렬을 통해 아기부처님의 탄생을 봉축하는 것에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축하현장 속에 가리워진 소외된 우리 이웃에 대한 배려를 조금 더 하자는 말이다. 일반인들에게 불교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행사도 좋지만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고아 등을 비롯한 소외계층도 함께 어우러져 참여하는 봉축행사로 거듭나길 기원해 본다. 최병현(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남산 마라톤 코스 변경 '환영'

경주 남산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산길 마라톤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었다. 경주 남산은 세계문화유산에 빛나는 불교의 성지다. 산 곳곳이 유적지 아닌 곳이 없는 자랑스러운 산이자 우리 조상의 얼이 담긴 그런 곳에서 수백 수천의 사람이 산길 마라톤을 또 한다는 생각에 아찔하기도 했다.

그런데 주최 측에서 남산 산길을 걷는 코스로, 경주왕경을 돌아오는 달리기 코스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다. 경주남산의 문화재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경주 시민 · 문화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스를 고친 주최 측의 용단에 박수를 보낸다. 백정훈(경북 경주시 동천동)

'현대' 만평 심 민 섭



국내 유일의 선서화 전시판매장
달마화랑



선서화 : 수행을 오래한 선사들의 심오한 깨달음을 표현한 글씨나 선의 경지에서 얻어진 수묵화(달마도, 산수도, 심우도, 용문, 불화 등)를 일컫는다.

귀한 선서화 작품을 많이 소장하고 계신분과 선서화를 꼭 소장하고 싶은데 길을 모르는 분들의 통로가 되고자 합니다.

◆ 선서화의 유통을 위하여 만들어진 선서화전문 화랑입니다.
◆ 소장하고 계신 스님의 글씨나 수묵화 등 선서화 작품을 양도하실 분도 상담을 받습니다.
◆ 꼭 소장하고 싶은 스님의 작품이 있으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작품을 내 놓으시는 분과 새로 소장하시는 분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해드립니다.

본 전시장 고문이신 KBS-TV 진품명품 감정위원 매산 김선원 선생께서 작품내용의 정확한 설명과 해제를 포함한 감정을 완벽하게 해 드리기 때문에 작품의 진위와 가격을 확실하게 믿으실 수 있습니다.

고문 : 매산 김선원 선생 / 방생회장 이건호법사

상담전화 02)420-4460 달마화랑

범주스님 (4月 29日~ 5月 29日)
달마도 특별초대전

달마화랑 오픈기념, 부루나양로원 기금마련



우리나라에서 참선스님이시며 달마도 최고의 대가(大家)이신 범주스님의 작품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단 한번의 기회!

약력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 전강 대선사 문하 입산
- 법보선원등에서 10년 참선 수행
- 안국사(무주 적정산) 주지
- 한국 승려 청묵회 초대회장
- 국제포교 10년 (LA 달마사 주지)
- 신체장애자 기금을 위한 자서전
- 선묵 개인전(LA, 뉴욕등)
- 자비의 집 건립 기금 자서전
- 노숙자 돕기 선묵 개인전
- 현 속리산 달마선원 선원장

범주스님

40년간 수행정진 해오신 범주스님의 달마도는 맑고 밝은 기(氣)를 대표하는 참 달마도 입니다.
선(禪)적인 기(氣)가 충만한 범주스님의 달마도를 한점씩 소장하시어 만사형통하시기 바랍니다.

※특전
- 비싼 대관료가 없는 만큼 진본 선서화작품을 전시회의 30~40% 할인가격으로 드림.
- 방문하시는 모든분께 범주스님 달마도와 반야심경이 담겨있는 순금카드 1매씩 증정.
- 가격관계 없이 작품 구매하신 모든분께 서화도자기(20만원 상당) 1점 증정.
- 직접 방문하시지 못하는 분도 전화주문하시면 같은 혜택을 드립니다.

상담전화 02)420-4460 달마화랑

한자 교육 지도사 육성

● 목적 : 1. 한자 공부를 통해 [우리말, 우리글]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사랑 할 수 있도록 양성.
2. 최근 각계에서 한자 교육의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조기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이들을 쉽고 흥미롭게 지도 할 수 있는 유능한 강사를 양성하기 위함.

개강일 2005년 5월 20일(금요일 오후 2시부터)
연수시간 80시간(월 20시간씩 4주간)
수강료 50만원(교재비와 시험 참가비는 별도)

● 교육과정 : 1. 한자 구성의 원리
2. 부수해설
3. 상용한자 자원, 자해풀이
4. 한자 지도 실습
5. 한문 문법 지도등

시험날짜 : 연수 지도 후 확정
합격후 취업 알선

命理(명리)四柱풀이 완성반 大모집

개강일 5월 12일(목요일 부터 6개월 과정)
시 간 오후 2시부터 ~ 5시까지

● 의의 : 우리는 우매한 인간이라 온 길을 모르듯이 갈 길도 모른다.
이제 천기의 흐름을 읽어 자신이 어디쯤 와서 머무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스스로 자신을 살펴보기 위하여 배워보자

● 육효 : 5월 14일 토요일 개강 오후 3시 ~ 6시까지
원장 6학년 직강
명리를 배운 후의 당신에겐 새로운 우주가 다가올 것입니다

구성학 5월 9일(월요일) 오전 11시 ~ 13시까지

● 의의 : 지리 방위학으로서 개운의 법을 함유하고 있어 현대인의 상담중 취길 피흉의 결정적인 학문으로 호평

관 상 매주 토요일 7시 ~ 9시 30분

전문 강사 : 신기원 선생님 직강

● 장소 : 한국 전통과학 아카데미 02)929-4646,4643
지하철 1호선 이용 신설동에서 하차 5번출구 40m 지점

Btn 불교TV

부처님 오신날

불교TV와 함께...

불기 2549년 부처님 오신날 연등축제를

불교TV와 **종각·광화문 사거리 전광판**을 통해

불교TV가 **생중계** 합니다.

특별 생방송

불기 2549년 부처님 오신날 연등축제

- 1부 어울림 마당 (동대문 운동장)
  5월 8일 오후 4시 20분 ~ 6시 30분
- 2부 제등행렬 (종로)
  5월 8일 저녁 7시 15분 ~ 9시 45분
- 3부 대동한마당 (조계사 앞 거리)
  5월 8일 저녁 10시 ~ 10시 35분
- 문 의 : 02 - 3270 - 3451

▶ 2005. 5. 8

2549

Buddha's Birthday





영원한 '피에로 아저씨'

박섭묵

향기 도반의

웃음과 희망 전하는 마흔 살의 '어린이'



자신을 '마흔살의 어린이'라고 소개하는 박섭묵씨. 그는 천상 피에로다.

웃고 있지만 울고 있다. 빨갛고 둥근 코, 하얗게 분을 바른 뺨의 피에로. 박섭묵(40) 씨는 피에로다. 무대에선 마냥 웃는 '피에로 아저씨'지만, 무대 밑 현실로 내려오면 눈물을 훔친다. 세상은 그에게 베체트병이라는 고통을 주었지만 그는 전국의 어린이들을 찾아 무료로 피에로 공연을 펼친다. 힘들어도 공연만은 멈추지 않는다. 해맑게 웃을 아이들이 그를 기다리기 때문이다. 정기 공연에 쫓겨도 고단함에 지쳐도 그는 웃음을 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간다. '행복'과 '희망'을 선사하기 위해서다.

 # 영원한 피에로이고 싶다

피에로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은 10년 전. 유치원 체육교사였던 박섭묵씨는 아이들과 함께 뛰노는 게 마냥 좋았다. 하지만 마음 속은 늘 무언가 2%가 부족했다. 문제는 아이들과의 교감이었다. 그래서 생각을 뒤집었다. '무엇을 보여 주기'보다 '어떻게 그들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지'에 더 큰 의미를 두었다.

그래서 그가 배운 것이 레크리에이션. 피에로와 동화 구연, 마술, 마임, 풍선 만들기 등 닥치는 대로 익혔다.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아이들이 좋아하는 말과 몸짓을 배워갔다. 자신을 '마흔 살의 어린이'라고 소개하는 그의 말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수시로 피에로 공연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어깨너머로 배웠어요. 심지어 마임은 3년을 따라다녔죠. 정식으로 배우지 못한 채, 혼자 동분서주하는 저를 보고 정통성이 없다고 무시까지 하더군요."

사실 그는 돈도 없었다. 유치원 일을 그만두고 아예 피에로 일로 전업하면서 돈벌이는 더욱 시원치 않았다. 무늬가 뭉개진 카드를 다시 색칠해 썼고, 길거리 쇼윈도를 전신 거울로 삼아 자신의 몸짓 하나 하나를 스스로 만들어갔다. 생활은 더 쪼들렸다. 피에로를 그만 둘 생각에 조리사자격증을 땄지만 늦은 나이는 취직도 어렵게 만들었다.

"아내가 제 손을 말없이 잡아주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괜찮아요. 여보!' 그때 피에로 인생을 다시 살기로 마음을 고쳐먹었죠."

그는 천상 광대였다. 좀더 일찍 피에로 일을 알았으면 더 많이 빠르게 배웠을 거라며 오히려 아쉬워했다. 식당 배달원, 웨딩 비디오 기사도 했지만 그는 피에로 일이 가장 재밌고 행복했다.

식지 않는 그의 열정은 지금까지 직접 써온 공연시나리오 편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0편이 넘는다. 그것도 순전히 창작극이다.

"아이템이 잡히면 밤낮으로 미친 듯이 메모를 했죠. '아이들이 무엇을 원할까' '진정한 사람의 향내를 어떻게 전할까', 제겐 창작 모티브를 잡는 것 자체가 하나의 화두였습니다."

 # 무료 공연 나선 사연

그렇게 피에로 인생을 걷기 시작한 박씨. 그가 무료공연에 나서게 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다. 지난 2003년 동두천보건소에서 자폐아를 위한 공연을 제안 받은 그는, 정기공연이 빈 시간에 피에로 공연을 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자폐아들은 무표정으로 그를 대했다.

"버거웠어요. 객석의 반응이 없으면 광대는 신이 안 나요. 힘든 공연을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한 자폐아가 '야, 재밌었어'라고 외치더군요. 그 순간의 기쁨은 이루 말 할 수 없었어요."



박섭묵씨가 4월 22일 서울 사당복지관에서 무료공연을 하고 있다.

그 일이 있고 그는 소외 받는 아이들에게 눈을 돌렸다. 10년간 전국의 보육원 재활원 복지관 등에서 아이들과 자폐인들을 위한 무료공연을 2백여 회 해 왔다.

"마냥 기뻐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좋아요. 피에로를 처음 본 아이들이 무서워하다가도 '아저씨'하고 달려들면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오히려 아이들의 미소에서 청량제를 얻어가는 느낌이에요. 제가 주는 것보다 얻어 가는 것이 더 많아요."

그는 한 마디를 더 보탰다. 무료 공연은 그에게 '솔직함'을 깨닫게 했다고 말했다. 천성이 광대기질에 있음을 자인하게 된 것도, 해맑은 아이들에게 순수함을 확인하게 된 것도 이런 솔직함에서 비롯됐다.

"공연하는 그 시간만큼은 가식이 없어요.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면, 스스럼없이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마음의 빗장이 열리면, 대화를 하듯 서로의 눈을 마주 보게 돼지요. 그럼 눈 속으로 빠져드는 순수함을 경험하게 돼요."

 # 난치병도 아랑곳 않고

벌써 몇 년째 자기 돈 들여가며 봉사활동에 매달리고 있는 박씨. 사실 그는 난치병 환자다. 10만 명 가운데 4명 정도가 걸린다는 베체트 병. 처음에는 아픈지도 몰랐다. 그저 바쁜 일정에서 오는 피로라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왔다. 돌아다닌 병원만 수십 곳. 3년 전 진단받은 베체트 병은 혈액에 염증이 생겨 몸속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병을 유발해 쉽게 피곤해지고 여기저기 염증이 생기지만 치료가 힘든 난치병이었다.

난치병 불구 10년간 2백여 무료 공연
시나리오 직접 쓴 '성교육 인형극'도
꼬마들 미소보며 배우는 것 더많아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공연을 보고 즐겁게 웃는 아이들만 생각하면 몸이 근질근질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의 곁을 지켜주는 가족들도 그가 힘을 낼 수 있는 후원자가 됐다. 부인 유희정 씨(38)와 3형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줬다.

"3년 전부터 아이들도 같이 따라다니면서 막의 사이에 공연을 해요. 큰 놈 중건이는 태권도를, 둘째 중현이와 막내 기철이는 노래와 춤을 추죠. 자폐인을 위한 공연을 갔을 때 처음엔 무서워하더니 나중에는 친해져 다음에 또 가자고 하더군요."

박씨는 최근 '어린이 성교육 인형극'에 공을 들이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 중 25%가 13세 이하의 어린이라는 뉴스에 충격 받고 관심을 갖게 됐다. 그 뒤 전문교육을 받고, 직접 시나리오를 썼다. 또 연출도 맡아 '우리 몸은 소중해요' 등의 인형극 작품을 완성, 공연을 했다. 올해는 충북도청과 함께 유아정보센터에서 공연을 시작했다.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마음의 상처를 가진 이들에게 웃음을 주는 것이 '팔자'라는 박씨. 그는 티없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삶을 사는 이유를 발견한다.

글=김철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www.bbsfm.co.kr 서울 FM 101.9 Mhz



"안녕하세요, 탤런트 김혜옥입니다.
삶에 지쳐 주저앉고 싶을 때 불교방송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저도 늘 불교방송을 곁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TV 에서만 인사를 드렸는데요,
이제 라디오에도 작은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귀한 기회를 주신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매일 오전 11시 5분 <김혜옥의 아름다운 초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BBS 불교방송 서울 FM 101.9 Mhz

부산 89.9 Mhz / 대구 94.5 Mhz / 광주 89.7 Mhz / 청주 96.7 Mhz / 춘천 100.1 Mhz / 안동 97.7 Mhz / 포항 105.5 Mhz

나의 수행법

김오복 (下)



사불수행으로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 나는 '버스를 탈 때도 기사님 수고하십니다. 장애인을 보면 저분들이 다음 생애는 복이 많고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라며 나도 모르게 발원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불수행이 내 본래 면목을 찾는 '첫걸음'이란 것을 깨닫게 됐다.

사불수행은 이렇듯 괴로움에 대한 바른 인식과 그것의 원인을 관찰해내게 했다.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길을 내게 제시했다. 사불수행이 나를 그렇게 만든 셈이다. 부처님이 좋아서 부처님을 그리겠다는 일념하나로 시작한 일이 이제는 내 수행의 전부가 돼버린 것이다.

그렇게 부처님을 그리다 보면, 을 감아도 천장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관세음보살의 영락이 맴돌았다. 아침에 관세음보살로 시작을 해서 잠을 잘 때까지 보살님을 떠나지 않는 생활을 하면서 힘이 드는 것은 마음자리에 맡기고, 열심히 마음의 수행을 쌓아갔다. 그러니 내 마음자리에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됐다. 두통으로 시달렸던 병도 어느 날부터인지 치유가 돼 약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게 됐다.

그렇게 불보살님 한 분 한 분의 그림을 완성가면서 난 늘 가슴이 벅차고 기뻤다. 세상을 기쁜 마음으로 보니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동

불보살의 기운 내 몸으로 전해져 평온
나도 모르는 사이 번뇌놓고 마음 관찰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른다. 자정을 넘기는 것은 기본이고,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운 적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았다. 내가 원하는 불보살님을 관하고, 그 불보살님의 기운이 내 몸속으로 전해지는 것을 체험하면 피로감은 눈 녹듯 사라졌다. 또 일을 하다가 잠깐 호흡만 멈춰도 몸속에서는 벌써 반응이 생겨 여의주의 불꽃이 빙글빙글 도는 현상을 느낄 수 있었다.

사불수행은 그렇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관하게 만들었다. 지난날에는 관을 해도 잠만 오고 번뇌만 쌓였는데, 지금은 감이 확실히 온다. '당신이 부처님을 그리라고 시켜놓고서 몸을 아프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고 또 '병을 만드는 것도 당신이고 병을 고치는 것도 당신이니 다 해결해달라' 고 발원하면서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난 모든 일은 마음을 떠나서는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화려하고 우아한 자태의 관세음보살을 그릴 때였다. 눈안 짜증내고 집안일을 소홀히 했던 날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난 번뇌 망상을 소멸하는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늘 곁에서 지켜봐주신 남편과 우리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준 3형제들에게도 감사의 맘을 전하고 나를 지도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무엇보다도 난 '제가 그린 부처님 상호를 죄지은 사람이 보면 죄의식을 느껴서 참회하게 해주시고 미소 짓는 입을 보면서 자비를 느끼게 해주소서' 라고 발원했다. 그리고 난 모든 수행단계가 자신들의 근기에 맞는 기도 방법만 달랐지, 결국에는 마음자리인 주인공을 찾기 위해서 행했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게 됐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

마지막으로 사불수행은 답답하던 마음이 청량한 음료수의 맛을 느끼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싶다. 사불수행에서 얻은 환희심을 이 글을 통해 여러 불자님께 전해드리고 싶다. (끝) ■ 주부

"'염송' 읽고나면 가차없이 불살라 버려라"

■ 8년만에 '선문염송·염송설화' 10권 완역한 동국역경원장 월운 스님

8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선문염송·염송설화(禪門拈頌·拈頌說話)〉를 총 10권으로 완역한 동국역경원장 월운 스님은 "상세한 공안 해설이 오히려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강조했다. 〈선문염송〉을 수행의 한 방편쯤으로 여겨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만 수행자가 대분심을 제대로 일으킬 수 있고, 문자선(文字禪)과 해오선(解悟禪)의 선병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스님은 극단적으로 "읽고나면 가차없이 불살라버리라"고 강조했다.

그럼 스님은 왜 원고지 4만매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선문염송〉을 번역했을까? 선가의 필독서로 수많은 납자들의 눈을 밝혀온 〈선문염송〉. 핵심내용과 마음공부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월운 스님에게 들어봤다.



〈염송〉의 핵심은 '바늘 끝으로 번뇌의 숨통에 꽂는 촌철살인(寸鐵殺人)과 같이 맥을 콕 찌르는데 있다' 고 강조하는 월운 스님.



월운 스님이 8년간 원고지 4만매 분량으로 완역한 〈선문염송·염송설화〉 총 10권.

" 상세한 공안해설 오히려 수행에 방해 모른다고 포기말고 꾸준히 참구해야 "

▲ '염송(拈頌)' 이란 용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염송은 어떤 한 상황을 놓고 역대조사들이 깨달음의 경계를 내보이는 방식이다. 가령 '부처님이 길가의 시체를 보고 우셨다' 고 할 때, 그 상황을 놓고 후인들이 선가적인 입장에서 시나 게송 등으로 읊은 것을 염송이란 한다. 여기서 염(拈)은 '어떤 상황을 들어 올린다' 는 뜻으로, 요즘 말로 '픽업(pick up)' 이란 말이다. 송(頌)은 어떤 한 사건을 올려놓고 여기에 대한 소감을 읊은 것이다. 이를 합쳐 염송이라 한다.

▲〈선문염송 · 염송설화〉가 초심자들에게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과 교, 현교와 밀교는 물론, 심지어 물(物)에 초연(超然)하라는 노장사상, 수당대에 발전된 시가도 담겨있다. 그래서 초심자들이 이해하기 힘들다. 〈선문염송〉은 교학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불교사상을 언제 어떻게 기록 · 기억하며 형식을 취하겠는가' 하는 반성 끝에 만들어졌다. 즉 '한 생각에 딱 깨치는 법은 없는가' 하는 공부법으로 채택한 선(禪)을, 쉽게 설명한 것이 〈선문염송〉이다. 지엽적인 것을 추려내고 핵심만 모아 선을 풀이한 것이다.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키워드는 무엇인지요?

-가령 불을 쓴다고 하자. 불은 필요한 만큼 쓰고 해가 되는 쪽으로 쓰면 안 된다. 〈선문염송 · 염송설화〉의 핵심은 이런 '불조심' 을 체질화 · 생활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불을 제대로 쓰는 방법을 스스로 체험하기까지의 과정을 알려주는 것이다. 즉 수행자가 그런 과정을 통해 화두로써 수행의 목표치로 삼으라는 것이다. 〈선문염송〉의 핵심키워드는 바로 '성성착(惺惺着)' 이다. '정신 차려라. 깨어있어라' 는 뜻이 이 책의 핵심키워드다. 이 말은 상황에 맞춰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일러준다.

▲〈선문염송 · 염송설화〉 중, 한 칙을 통해 핵심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칙(則)은 부처님의 생애, 불멸 후 조사들이 수행하면서 한 대화, 후대에 와서 선방에 있었던 이야기들 중에 교훈이 될 만한 상황을 공안 형식으로 만든 것이다.

1463칙 중, 제2칙 염송칙명 '주행(周行)' 은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 이다. 이 자체가 칙이자 화두다. 그걸 놓고 어떤 사람은 '어두운 광야에 등불이 나타났도나' 하고 시를 읊었고, 어떤 사람은 '웃긴다. 그때 내가 부처님을 봤으면, 떼려 잡아 개에게 실컷 먹게 했을 걸' 하고 게송을 읊기도 한다. 전자는 현실론에, 후자는 본질론에 입각한 입장이다.

후자는 '석가모니가 태어났든 상관없이 본래 모두가 부처라는 진리가 그대로인데, 왜 요란스럽게 하는가' 라는 입장이다. 즉 '중생들이 보이는 부처에게 매달리게 해, 도리어 본래 자신이 부처임을 못 보게 하니, 떼려 죽여 차라리 천하를 대평하게 했어야 했다' 라는 설명이다. 결국 이 칙은 부처이전의 부처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선문염송〉은 한 상황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안에 대한 상세한 해설이 오히려 수행에 방해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선의 개념으로서는 〈선문염송 · 염송설화〉를 이용할 것이 아니라, 불 질러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선을 다루는 사람들은 기존 공안 해설에만 집착을 한다. 때문에 읽고나면 가차없이 불살라버려야 한다. 염송은 선을 다루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이해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돈 잘 버는 법을 안다고 해도 돈을 직접 벌어봐야 한다.

또 공안의 상세한 설명은 대분심(大憤心)을 일으키지 못하게 한다. 대분심은 마치 높은 산에 오를 체질이나 훈련이 쌓여졌는가를 되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한다. 때문에 산에 오를 자질이나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상세한 공안 해설은 독약이 되기로 하고, 자질이 되는 사람에게는 높은 산을 올라가게 하는 지도가 된다. 산 밑에서 오르지 못하고 빙빙 돌기만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도 고쳐먹게 한다.

▲〈선문염송 염송설화〉로 마음공부 하는데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책만 보고 선을 이해하면 안 된다. 무임편승하는 것과 같다. 또 선수행의 자질이 있는 사람이 〈선문염송〉을 보지 않고, '혼자도 수행을 할 수 있다' 는 생각을 내면 안 된다. 보물을 퇴비장에 묻어놓고 안 찾는 것과 같다. 특히 좀 앞서 간다고 지적받은 사람은 겸허한 마음으로 읽어야 되고, 자기 공부에 용맹심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용맹심을 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 책을 한 권씩 읽어나가면서, 수행자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치우쳤구나' , '내가 너무 풀어놓고 살았구나' 하고 자신을 늘 반성해야 한다.

▲요즘 들어 많은 사람들이 선어록 공부를 통해 선에 대한 안목을 넓히고 있습니다.

-선문의 틀에는 두 가지 있다. 어록과 염송이다. 어록은 조사들이 법문한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그 사람의 사상이 현실을 부정하는지 인정하는지 시각이 어떤지 알 수 있다. 반면 염송은 어록의 복잡한 형태를 거부한다. '촌철살인(寸鐵殺人)' 의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몽둥이로 때리고 칼 들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늘 끝으로 숨통에 꽂으면 그만 이라는 것이다. 긴 말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리다. 맥을 콕 찌르면 된다는 뜻이다.

▲간경수행 차원에서 〈선문염송 · 염송설화〉 읽기는 가능한지요?

-간경은 경전의 소중한 가치에 호감을 가지는 것 자체가 무량공덕이 된다. 그럼 〈선문염송〉을 읽으면 공덕이 될까? 그렇지 않다. 한 구절 알고 읽으면서 그 뜻을 음미해야 한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내버리거나, 또 조금 내용이 눈에 보인다고 까불면 안 된다. 내용을 모르면 '그 말에 뜻이 있을 턴데' 하고 자꾸 참구하는 자세가 돼야 공덕이 된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 '선문염송·염송설화' 는 어떤 책?

간단히 말하면, 〈선문염송〉은 '화두 종합교과서' 고, 〈염송설화〉는 〈염송〉의 참고서다.

〈선문염송〉은 고려시대 진각국사 혜심(1178~1234) 스님이 선가의 여러 선사들의 어록 등을 일일이 열람해 편찬한 것으로, 선가의 1463 고칙(古則)과 이에 대한 선지식들의 징(徵:화두에 있는 사건을 예로 들어 문답하는 형식) · 염(拈:한 사건을 예로 화두의 제시와 풀이) · 대(代:화두 속에서 답을 못하는 자를 대신해 한 마디 하는 것) · 별(別:화두 속에서 문답의 주인을 달리해 대답) · 송(頌: 화두 속의 사건을 시로 낭송) · 가(歌:송이 긴 것) 등을 선별해 집대성한 책이다. 또 〈염송설화〉는 혜심 스님의 제자 각운 스님이 〈선문염송〉 각각의 옛 화두에 대한 배경, 용어 설명, 일화 등 상세한 주석을 붙여 30권 5책으로 펴낸 책이다.

보우승가대학 학인모집안내

불교계 최고의 인재양성을 위한 본 대학은 최초로 출가득도를 원하는 분들을 위한 출가자(행자)교육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불교의 제반의식과 경전강의및 특강반을 개설하고 유명 강사진으로 교수진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알찬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과정

교육 과정 / 내 용		강 의 내 용	강의일자	지도교수
출가자(행자) 교육 과정		출가득도를 희망하는분을 대상으로 기본교육 의식 습의 불공등을 집중강의하며 출가에 관한 모든것을 지도해드림	목.금	본교 교수진
경전연구과정		금강경,원각경 화엄경 육조단경 선어록 등 대승경전등을 권위있는 교수님이 일반인도 쉽게 이해하도록 강의함	금	신규탁 연세대교수
의식교육과정	기본반	사물다루는법 도량석 종성 각단예불 불공 시식 축원등 초심자도 여법히 의식을 집전할수 있도록 함	목.금	능해스님
	전문반	각단불공 시련 대령 관욕 시식 사십구재 천도재의식과 바라무 나비무등의 작법의식 을 집중강의함	목	능해스님
	연구반	상주권공을 중심으로 천도재 방생 점안등 전문적인 의식을 위주로 심도있는 강의를 함	수	경허스님
특강과정	작법반	불교의식중 바라춤 나비춤등 의식무를 배우고자 하는분을 대상으로 집중강의		도명정안스님
	호적반	불교의식 악기중 호적을 배우고자 하는분을 지도함	화	대혜스님
	서예반	수행과 교화 취미활동에 도움이 되는 서예를 스님께서 직접지도 해드림	목	지홍스님
	생 활 역학반	이사 택일 기초사주 궁합등 기초적인 지식습득과 전문적인 인생카운셀링등을 지도해 드림	금	대각스님

2 장 소 서울 종로구 창신동 원각사내 (주차장 완비)

3 모집방법 서류전형및 면접(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반명함판사진2장. 각반 30명이내,선착순접수함)

4 원서교부 및 접수처 본교사무처 - 전화 02)763-5213. 팩스02)747-9290

보우승가대학 학장 월봉 합장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 (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명상치료’ 아직도 낯선가요?

▮가톨릭 의대에 통합 보건센터 여는 장현갑 교수



장현갑 교수는 오는 6월 국내 최초로 명상치료를 핵심으로 하는 ‘통합보건센터’를 가톨릭 의대에 개원한다.

명상과 의학을 접목시키는 작업으로 2001~2005년 5년 연속 ‘후즈후’(Who’s Who in the World: 세계적으로 이름난 현존 인물에 관한 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 장현갑(영남대 심리학과)교수. 최근 ‘스트레스와 심신의학’ ‘몸의 병을 고치려면 마음을 먼저 다스려라’ ‘삶의 질을 높이는 이완명상법’ 등 3권의 명상서적을 잇따라 펴내기도 한 그가 국내 명상치료 시대를 본격 개막했다.

그는 지난 해 3월 가톨릭 의대에서 국내 최초로 통합의학교실을 개설하고 오는 6월 같은 곳에서 명상치료를 핵심으로 하는 ‘통합보건센터’ 개원을 준비 중이다. 명상치료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장 교수를 만나 명상치료의 현실과 전망에 대해 들었다.

국내 ‘심신의학’ 시대 이끌어

▲가톨릭의대 통합보건센터는 어떤 곳인가?

–신체의 질병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에는 심리적 요인이 신체질병의 발병과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관점의 ‘심신의학’이 주류의학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톨릭의대 통합보건센터에서는 보완대체의학의 핵심인 심신의학의 치료방법을 제시한다.

특히 명상과 치료를 접목한 의료명상을 선보인다. 중증의 환자를 포함해 만성적인 스트레스 등에 시달리고 있는 일반인에게 심신을 다스리는 치유방안을 일러줄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최초라고 들었다.

–국내에서도 정신과 전문의들이 개별적으로 정신질환자들에게 치료명상을 적용한 경우는 있었다. 그러나 종합병원에서 관련 메디컬 센터를 개설하고 또 환자가 아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명상치료 클리닉을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의 경우는 관련 연구도, 실제적인 치료도 활발하다.

–미국은 연방정부기관인 국립보건원 산하 대체의학연구소에서 명상 연구를 위해 연구비를 공식적으로 지원한다. 70년대 중반 허버트 벤슨(하버드 의대 교수)에 의해 명상의 임상적 적용에 대한 연구가 촉발된 이래, 최근에는 명상치료를 포함하고 있는 ‘보완대체의학’의 규모가 ‘전통의학’의 규모를 넘어섰다.

얼마 전 22개의 미국 내 주류 의과대학이 회합해서 치료의 핵심을 ‘심신의학’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그 심신의학의 핵심은 명상을 바탕으로 한 치료 프로그램인 MBSR(Mindfullness-Based Stress Reduction)프로그램으로 내세웠다.

지난해 미국 내 주류 의과대학에서 MBSR을 주제로 배출된 박사논문만 해도 103건에 이른다.

치료 현장의 활용도도 커졌다. 카밧진을 거쳐간 심리전문가들은 1만 6천명을 넘어섰고, 1년에 관련 클리닉이 270개씩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美선 연방정부가 연구비 공식지원

▲미국 병원의 프로그램을 국내에 도입하는 것인가?

–카밧진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했지만,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현재 대학원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자체 개발한 명상치료 기법에 관한 임상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피실험자의 혈액채취를 통해 명상 전후 호르몬 및 면역기제 변화, MRI를 이용한 뇌파 변화, 혈압 및 맥박 변화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치료의 명상지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치매, 불임, 피부병 등 각각의 병증에 맞는 명상프로그램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치료인력도 그에 맞게 양성중이다. 5~6월 건강심리학회 · 한국임상심리학회 등을 통해 전문가들에게 선보이고, 이후 6월 중에 심신건강연구소를 설립해 명상치료전문가 양성과 대중보급의 길을 열려고 한다.

▲명상치료와 관련해 개인적인 인연이 있나?

–98년 카밧진 박사의 저서 ‘총체적 위기의 삶(Full Catastrophe Living)’을 번역하며 명상치료에 주목하게 됐다. 서울대 의대와 가톨릭 의대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는 8년 동안 ‘마음과 뇌의 관계’를 연구하는 ’생리심리학‘을 국내에 도입하면서 각별한 관심을 갖기도 했다.

수행 덕에 죽을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체험’도 한 몫했다. 20대부터 고혈압, 심장병으로 고생했고 40대에는 당뇨병으로 병원을 오갔다. 스스로를 치료하기 위해 그때부터 명상을 시작했다. 국선도, 태극권, 참선, 요가, 관법 등 시도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렇게 20년 넘게 살다보니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이제는 그것을 사회에 회향하려 한다.

병증에 맞는프로그램 자체 개발

▲앞으로 명상치료가 보편화될 수 있을까?

–래리 도지(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대체의학연구소 심신개입위원회 책임자)는 심신의학 이후에 기(氣)신체의학이 각광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를 통해 환자를 진단하고 치유하는 의학이 일반화될 것이라는 얘기다. 기의 축적은 명상수련과 무관하지 않다. 명상치료가 주류의학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전통의학에 기대는 전통이 여전하다. 사실 가톨릭 의대 내에서 명상치료클리닉을 오픈하는 것에 대해 반대가 많았다. 불교 명상을 응용한 것에 대한 거부감과 명상 치유효과에 대한 불신임이 그 이유였다.

불교명상을 의학과 접목하려는 시도에 대해 불교계의 관심이 요구된다. 센터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10여명의 석 · 박사 가운데 개신교 목사가 2명이나 있다. 게다가 상당히 열성적으로 참여한다. 부처님 법을 따르는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제대로 살려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존 카밧진 교수의 MBSR프로그램

장현갑 교수가 명상치료의 모델로 삼은 MBSR(Mindfullness-Based Stress Reduction) 프로그램은 ‘명상을 통한 스트레스 감소-이완 프로그램’이다. 미국 메사추세츠 의과대학 부속병원 존 카밧진 교수가 10년 이상 5000명이 넘는 환자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고안했다. 불교에 바탕을 둔 이 명상치료법은 현재 전 세계 수백여 개 병원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다.

바디스캔(bodyscan · 몸을 훑으며 느끼기), 호흡명상, 정좌명상, 요가, 걷기명상 등이 프로그램의 주를 이룬다. 먹기명상, 자비명상 등의 추가명상을 통해 일상에서 무슨 일을 할 때나 현재에 마음이 깨어 있기를 강조한다. 명상수행과 더불어 평소의 마음가짐과 행동, 태도 7가지를 지침으로 삼는다. 첫째 판단하지 말 것, 둘째 인내심을 가질 것, 셋째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을 가질 것, 넷째 믿음을 가질 것, 다섯째 지나치게 애쓰지 말 것, 여섯째 수용할 것, 일곱째 내려놓을 것 등이다.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16> 선객의 영가를 천도하다



담당문준 선사가 수좌로 있는 절에 ‘오시자(悟侍子)’라는 선객이 있었다. 소임이 시자였던 모양이다. 게다가 아는 소리를 더러 하니까 주변에서 ‘깨달을 오(悟)’자를 별명으로 붙여주었던 모양이다. 어느 날 우연히 지객실에 들렀다가 인기척이 나서 문을 열고 부엌으로 나갔다. 그 때 화대 소임자가 장작불꽃 휘젓는 것을 보고는 경계가 달라졌다. “이제 드디어 내가 깨쳤구나!” 그리하여 곧장 방장실에 인가를 얻고자 쫓아올라갔다. 그러나 그에게 되돌아온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이었다. ‘그럴 리가 없다’며 옥신각신하다가 쫓겨났다. 이럴 경우 제대로 된 공부인이라면 더욱 분심을 일으켜 용맹정진해야한다. 하지만 오시자는 기대가 너무 컸던 탓에다가 마음까지 여렸다. 그 바람에 심화(心火)가 불타올라 이른바 홧병으로 죽어버렸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오시자 영가가 나타나 대중을 괴롭혔다. 밤이 되면 대중의 신발을 다른 장소로 옮겨놓고, 변소에서 볼일을 마치면 어디선가 나타나 뒷물할 물병을 건네주곤 했다. 깜깜한 곳에서 형체도 없는데 물병만 왔다갔다 한다면 아무리 담력있는 스님이라 할지라도 혼비백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 바람에 대중들은 밤마다 공포에 떨어야 했다. 영가는 함께 정진하던 대중을 배려해서 신발도 옮겨주고 뒷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데 산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던 것이다.

마침내 멀리 절강지방으로 떠났던 문준 선사가 돌아오자 대중들이 전후사정을 아뢰었다. 그날 밤 선사는 일부러 변소에 갔다. 그 때 벽에 걸린 등불이 갑자기 꺼져버렸다. 똥을 누기도 전에 오시자가 와서 물병을 건네주었다. 선사는 담담하게 물병을 받아 볼일을 마치고 나서 그 물로 천천히 뒷물을 하였다. 그리고는 물병을 다시 가져가도록 불렀다. 오시자는, 나타나자마자 기겁을 하는 다른 대중들과 달리 자신의 호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선사가 고마웠을 것이다. 산중에 대한 원망스런 마음까지 잊고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자 선사가 말했다. 그야말로 영가법문인 셈이다.

“자네가 당시에 지객실에 있다가 장작불꽃 휘젓는 것을 보고는 깨달았다는 오시자인가? 참선하고 도를 배우는 일이란 오로지 생명의 본원이 가는 곳이 어딘가를 알기 위함이다. 그러나 네가 장경각에서 어떤 선객의 짚신을 옮겨놓는 그것이 어찌 당시 네가 깨달은 그것이겠는가? 밤마다 변소에서 뒷물할 물병을 건네주는 것이 어찌 네가 깨달은 그것이겠느냐? 무슨 까닭에 갈 곳을 모르며 어쩌자고 여기에서 이렇게 대중을 괴롭히느냐? 내가 내일 대중들에게 권해 너를 위해 경전을 읽고 돈을 모아 공양거리를 마련, 천도해 줄 터이니 너는 특별히 생사를 벗어나기를 구하고 이곳에서 더 이상 머물지 마라.”

이튿날 대중들이 독경과 법문을 통하여 오시자 영가를 천도하고

스승에게 깨침 인가 못받자 홧병나 죽은 ‘오시자’
영가 나타나 공포 유발…스승 법문 듣고 천도돼

나니 예전처럼 아무 일이 없게 되었다.

선가에서는 스승의 역할과 중요성을 참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문답점검을 통하여 인가를 해주고 또 그것에 의해 법을 이어가는 제도에 의거한 독특한 가풍 때문이다. 그래서 스승의 인가없이 깨쳤다고 하는 놈들은 모조리 천마외도(天魔外道)라고 불러도 아무 허물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다. 스승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그것을 도리어 인정하지 않고서 ‘자기가 깨쳤다’고 믿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스승을 부정하는 경우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하긴 억울할 것이다. 각고의 노력끝에 뭔가 잡혔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배신감 바로 그것이다. ‘그럴 리가 없다’ 면서 여기저기 제방의 선지식이라는 선지식은 다 찾아다니면서 인가가 아니라 동의를 구하러 다니게 된다. 이쯤되면 깨달음 그 자체가 병이 된다. 이를 ‘대오선(待悟禪)’이라고 하여 큰 병통의 하나로 분류해놓고 있다.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개 천지조화 벽

●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지는 천기도량 완성**

● 원효대사님의 미륵상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 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친것인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인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음양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림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특히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하오니 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산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신명의 영통학문에 의한 진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皇道師)이 직접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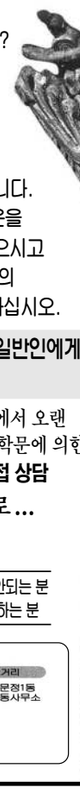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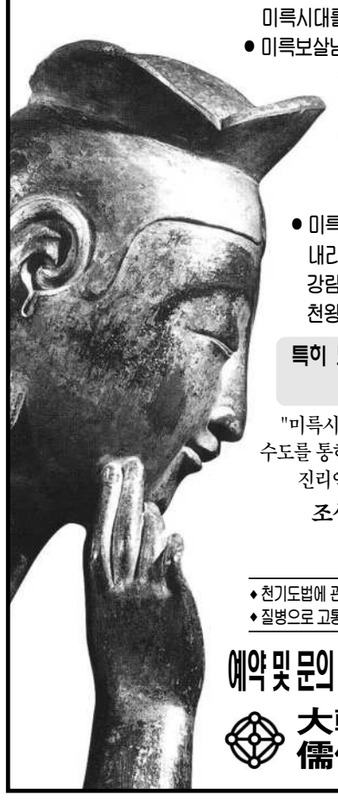
"천기도법"(天氣道法)

♦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 하시려 하시는 분 ♦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잘안되는 분
♦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 집안이 잘 안풀리는 분 ♦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 및 문의 : 02)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개천구지(開天救地)... 벽도구인(闢道救人)”

환기 9202년 개천 5903년 단기 4338년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이 하여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 시대를 펼칩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시공초월하여 미륵인(彌勒人)이 되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미륵인이란? 과거의 전생업장(육신, 정신업장)을 소멸하고 새롭게 태어나므로서 정신과 육신이 하나가 되고 또한 道를 수행 (佛,知,行)함으로써 혁명적인힘 (미륵님의 원력)을 갖고 자기에 맞는 大業과 天業을 대성공하고 나가서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새시대 (미륵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천기도법(天氣道法)으로 道門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 미륵인이 되면 미륵님의 원력(天氣)과 조상님의 공덕을 받으므로서 어려운 일이 풀리고, 자기분야에서 대성공 할 수 있습니다.
● 道門을 열어 천지조화의 기운 (초광력에너지, 생명에너지)을 받으므로서 건강하게 됩니다 (난치병 치유)
● 자기스스로 치료함과 동시에 체형의 교정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 초능력과 약사력이 생기므로 누구든지 치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됩니다.
● 시공초월 함으로서 명산대천을 찾아 헤메이지 않고 천지조화의 기운을 받는다.
● 도술도법(원기력, 수인력, 대화력, 약사력, 관음력, 천도력, 용맹력, 지혜력, 보살력, 여래력, 성인력)과 육신통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타심통, 누진통, 신족통)이 열리게 되므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유불선 天氣道場

시공초월하여 道門을 열수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끝에 이치에 맞게, 또 미륵시대를 맞이하고자 유불선을 통하여 완성한 道場으로 초과학적인 인간구제 발전소 입니다.
3시간 만에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도록 도문을 열어드립니다. (百 聞不如一見, 百見不如一行)

最上情報心身復生 **至寶文化彌勒弘益**

21세기 최상의 정보는 내마음과 몸을 다시살려 장생의 신선세계에 동참함이요
지극히 보배스러운 문화는 미륵시대에 부합된 홍익인간 이념을 구현함이니라!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43)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원효의 <진역 화엄경소(晉譯 華嚴經疏) 서(序)>

원효의 스타일은, 그의 삶처럼, 좀 파격적인 데가 있습니다. 가령 <대승기신론>에 대한 원효의 소와, 당대 최고라는 현수 법장의 주석을 비교해 보십시오. 법장이 해당 경전의 의미를 풀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면, 원효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텍스트와 자신의 경험이 만나는 자리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법장의 글이 학자답게 정통적 논소의 형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반면, 원효의 글은 철인답게, 자신의 통찰을 전달하기 위해 독자적 전략을 구사합니다. 이로 하여 원효의 글은 남다른 생기와 파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가 쓴 <진역 화엄경소>의 서(序), 그 전문입니다.

원효가 전하는 화엄의 근본 소식

晉譯華嚴經疏序 釋元曉 撰

⑴ 原夫無障無碍法界法門者, 無法而無不法, 非門而無不門也. 爾乃非大非小, 非促非奢, 不動不靜, 不一不多.

由非大故, 作極微而無遺; 以非小故爲大虛而有餘. 非促之故, 能含三世劫波. 非奢之故, 擧體入一刹. 不動不靜故, 生死爲涅槃, 涅槃爲生死. 不一不多故, 一法是一切法, 一切法是一法.

⑵ 如是無障無碍之法, 乃作法界法門之術, 諸大菩薩之所入也, 三世諸佛之所出也, 二乘四果之聾盲, 凡夫下士之所笑驚.

若人得入是法門者, 卽能不過一念普現無邊三世, 復以十方世界 咸入一微塵內. 斯等道術 豈可思議.

⑶ 然依彼門 用看此事, 猶是一日三出門外, 十人共坐堂內, 侹然之域, 有何奇特. 況乎, 須彌入於芥子者, 秭來入於大倉也. 方丈內乎衆座者, 宇宙內於萬物也. 內入甚寬,何足爲難乎哉.

若乃鳳皇翔于靑雲, 下觀山岳之卑, 河伯屆乎大海, 顧羞川河之狹. 學者入乎此經普門, 方知曾學之齷齪也.

然短翮之鳥, 庇山林而養形, 微鱟之魚, 潛涓流而安性. 所以淺近敎門 亦不可已之耳.

⑸ 今是經者, 斯乃圓滿無上 頓敎法輪, 廣開法界法門, 顯示無邊行德. 行德無畏而示之階階故, 可以造修矣. 法門無涯開之的的故, 可以進趨矣. 趨入彼門者 卽無所入故, 無所不入也. 修行此德者, 卽無所得故, 無所不得也.

於是三賢十聖, 無行而不圓, 三身十佛, 無德而不備. 其文郁郁, 其義蕩蕩, 豈可得而稱焉.

⑹ 所言大方廣佛華嚴者, 法界無限大方廣也, 行德無邊佛華嚴也.非大方, 無以廣佛華, 非佛華, 無以嚴大方. 所以雙擧方華之事, 表其廣嚴之宗.

所言經者, 圓滿法輪 周聞十方, 無餘世界, 遍轉三世, 無際有情, 極軌窮常, 故名曰徑. 擧是大意 以標題目, 故言道大方廣佛華嚴經也.

무장무애한 법계의 법문 어디 있는가?

무슨 소린지 알아듣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번역도 암호처럼 우선 해 봅니다.

서문을 초벌로 번역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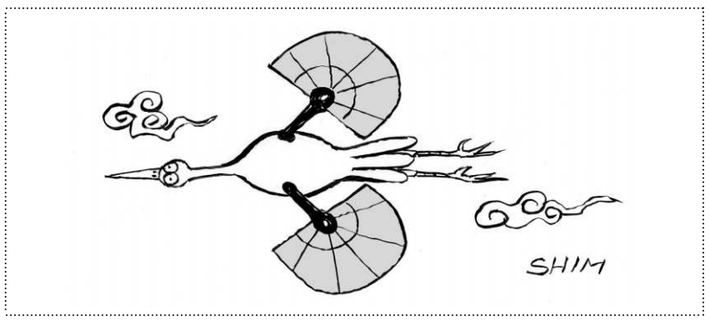
⑴ 대저 무장무애(無障無碍)한 법계의 법문을 확인해보니, 법이 아니면서 법 아님이 없다. 그래서 크지도 작지도 않으며,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으며, 움직이는 것도 멈추는 것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또 여럿인 것도 아니다.

크지 않은 까닭에 극미(極微)를 지어도 남김 없이 들어가며, 작지 않은 까닭에 태허(太虛)라 하더라도 오히려 남은 자리가 있다. 짧은 시간이 아니기에 거기 삼세겁을 포함하고 있으며, 늘어진 시간이 아니기에 거체(擧巨)가 한 순간에 들어간다.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고요한 것도 아닌 고로, 생사가 열반이고, 열반이 곧 생사이다.

하나도 아니고, 여럿도 아닌 까닭에, 한 법이 일체법이고, 일체법이 한 법이다.

⑵ 이렇게 무장 무애한 법이 법계법문의 술(術)이 되니 그곳은 제 보살이 드는 바요, 삼세 제불이 나오는 바이며, 이승(二乘) 사과(四果)가 귀먹고 눈멀어지는 곳이고 범부 하사(下士)들의 멋모른 웃음거리가 되는 소이이다.

이 법문에 든 사람은 한 생각에 능히 무변 삼세를 나툴 수 있고, 시방세계를 온통 한 티끌속에 넣을 수 있으리니, 이같은 도술을 어찌 가히 사의(思議)할 수 있겠는가.



⑶ 그렇지만 저 문(彼門)에 기대 이 일(此事)을 보게 되면, 하루에 세 번 문을 나서는 것같고, 열 사람이 방안에 앉은 듯 덤덤한 세계이니, 무엇 기특한 일이 있겠는가.

하물며 수미산을 겨자씨에 넣는 일이 제미(秭米)를 큰 창고에 들이는 듯하고, 방장(方丈) 안에 여러 사람 들어차는 것이 넓은 우주가 만물을 포용하듯 힘들지 않고 무난하다. 어디 어려움이 있겠는가.

이는 봉황이 푸른 구름을 타고 올라 산악의 낮음을 바라봄과 같고, 하백이 한바다에 이르러 시내 황하가 좁았음을 겸연쩍어 하는 것과 같으니, 배우는 자는 이 경전의 너른 문에 들어서야 비로소 지금까지 배운 것이 악착했음을 알리라.

그렇지만 날개 짧은 작은 새는 산림에 의지해서 크고 있고, 송사리처럼 작은 물고기는 여울에 살면서도 본성에 편안한 법이니, 천근한 방편의 가르침이라 하여 내버릴 수 없다.

⑷ 지금 이 경은 원만무상의 돈교법문이라, 법계법문을 널리 열어 무변의 행덕(行德)을 현시한다. 행덕을 거리낌없이 내보여도 스텝이 있는 까닭에 가히 닦을 수 있고, 법문이 끝이 없으나 열어도 모두 부합하는 까닭에 가히 나아갈 수 있다.

그 문에 초입(超入)한 사람은 들어섬이 없기 때문에, 들어서지 않음이 없다. 이 덕을 닦는 사람은 얻음이 없기 때문에 얻지 않음도 없다. 삼현 십성이 이에서 행함에 두루하지 않음이 없고, 삼신시불이 구비치 않은 덕이 없으니 (화엄경의) 그 문장이 밝게 빛나고 그 뜻이 넓고 무궁함을 무슨 말로 칭탄하랴.

⑸ 대방광불화엄(大方廣佛華嚴)이란 이름은, 법계가 무한하기에 대방광(大方廣)이요, 행덕이 끝이 없으므로 불화엄(佛華嚴)이다. 대방이 아니면 불화를 넓힐 수 없고, 불화가 아니면 대방을 장엄할 수 없다. 이래서 방(方)과 화(華)의 뜻을 함께 들어 그 광엄(廣嚴)의 종(宗)을 드러냈다.

이른바 경(經)이란, 원만 법륜이 시방에 두루 들리고, 무여(無餘) 세계의, 삼세를 두루 전하니 끝없는 유정(有情)들의 지극한 궤도요 최종적 진리라, 그래서 '길(徑)'이라 부른다. 이 취지를 들어, 제목에 걸었으니, 고로 <대방광불화엄경>이라 한다.

수수께끼의 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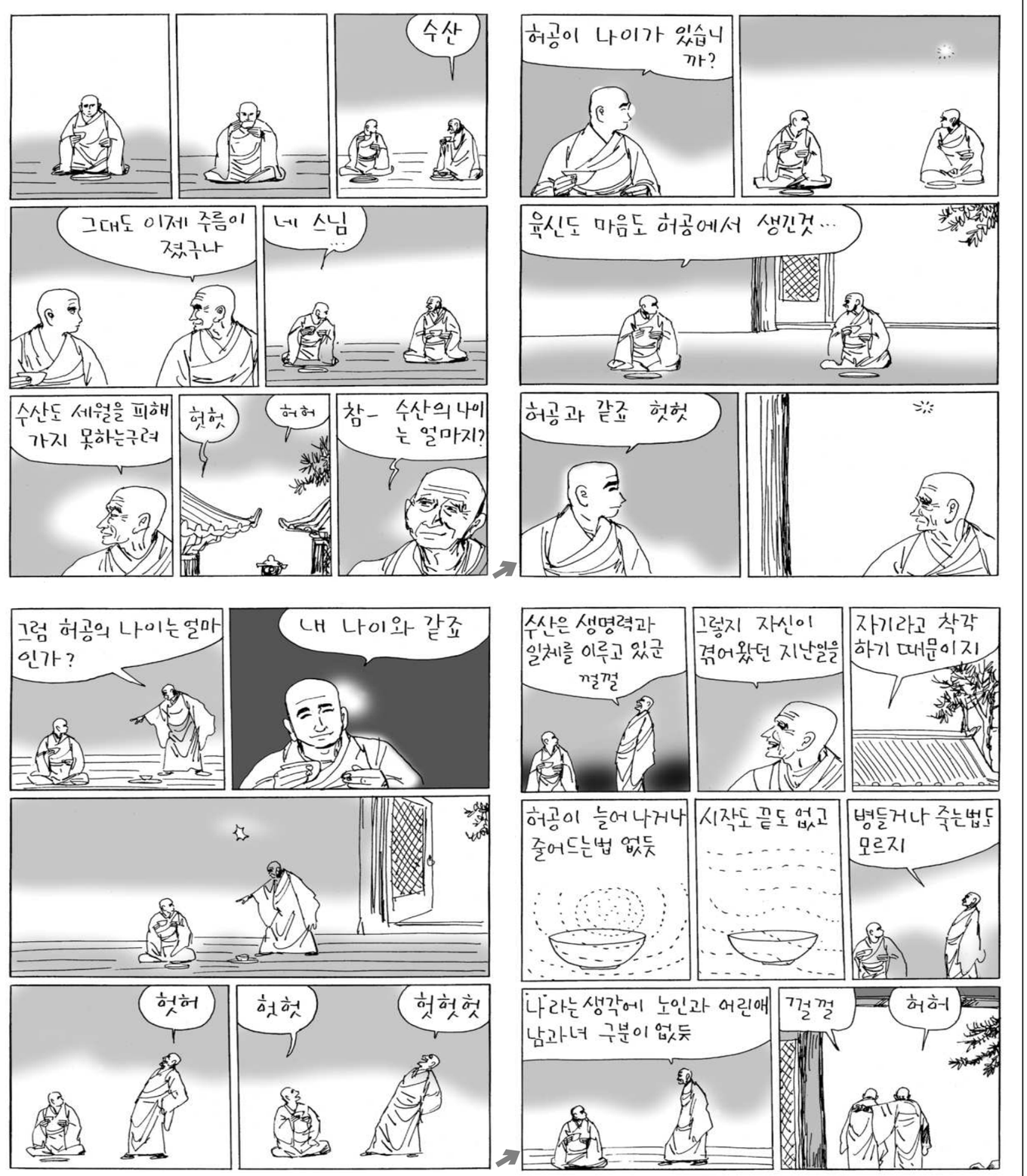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기 힘들다고요. 번역이라고 해 두었지만, 이런 초벌 수준의 언해(諺解)로는 정확한 뜻이 전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수수께끼같은 글을 서너 회에 걸쳐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겁먹지 마십시오. 이 구절은 결코 황당한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그것이 전하는 소식은, 강의 첫머리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부연 사족을 달기 이전에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입니다. 혹, <화엄>의 소식이 좀 독특하다 한다면, 그것 또한 제가 이제까지 구구절절 설명해 드린 것 속에 드러나 있으니, 그것 또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주장자따라…

⑹ 수산사해의 '나이'

조태호



수산사해(壽山師解 ; ?~?): 당대(唐代)스님으로 남악회양 스님의 법손. <전등록>에 기록이 있음.

네티즌 교리문답

사홍서원의 참뜻은?

문 불교에는 총원(總願)이라 불리는 네 가지 큰 원(願=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심지관경>에 나오는 사홍서원(四弘誓願)이 그것인데요, 불자들은 언제나 네 가지 큰 서원을 이정표로 삼아 삶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럼 그 내용과 참뜻은 무엇인가요? (보현)

답1 : 그 내용은 중생이 아무리 끝이 없어도 맹세코 제도하며(衆生無邊誓願度), 번뇌가 아무리 많아도 맹세코 모두 끊고(煩惱無盡誓願斷), 법문이 아무리 한량없어도 맹세코 모두 배우며(法門無量誓願學). 불도가 아무리 높아도 맹세코 이루겠다(佛道無上誓願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홍서원은 단순히 불교 수행의 목적이나 이정표일뿐 아니라, 우리가 원을 일으켜 수행으로 나아가 성불하게 되는 과정과 순서를 그대로 요약한 것이 바로 사홍서원입니다. 부처가 되려는 마음을 낸 이는 먼저 서원을 세우고(先立淸淨願), 보살행을 닦아라(修習菩薩行)는 말이 있듯, 수행에 앞서 원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특히 이 원은 처음부터 부처 되겠다 성불하겠다 깨닫겠다 등 이런 것보다는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 부처가 되는 것이지, 부처 자체가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금강소석)

답2 : 선과 교가 둘 아니니 뉘라서 교가 중요하다 선이 중요하다 분별심을 내겠습니까. 사람마다 미오의 차이가 있는 까닭에 사람마다 깨침에 더딤과 빠름이 있으니 이에 응한 가르침과 수행 방편인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행자가 차근차근 밟아 가게 하는 것도 한 방편이요 조사님들의 일초직입여래지 또한 한 방편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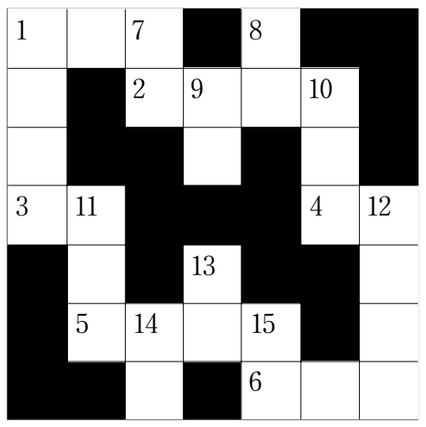
그러므로 사홍서원에 대해 말한다면, 왜 중생무변인가? 제도할 중생이 따로 있음이 없기 때문이며, 왜 번뇌는 무진한가? 끊어야 할 번뇌가 따로 있음이 없기 때문이며, 왜 법문이 무량한가? 따로 배워야 할 법문이 있음이 없기 때문이며, 왜 불도가 무상한가? 애초에 높고 낮음이 따로 있음이 없기 때문이다. (나그네)

답3 : 사홍서원은 불도를 구한 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부처를 이루어 부처의 자리에서 중생을 구하고, 부처의 자리에서 번뇌를 끊고, 부처의 자리에서 법문을 배우며 부처의 자리에서 부처를 구한 뒤, 처음으로 돌아가 일체 중생이 구제될 때까지 끝없이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이 무변(無邊)하고 번뇌가 무진(無盡)하며 법문이 무량(無量)하며 나의 서원도 다함이 없으니, 이것을 이름하야 네 가지 큰 서원(四弘誓願)이라 합니다.(불학자)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정답은 26면에

가로 1. 사군자를 이루고 있는 것들 2. 나무 · 돌 · 쇠붙이 · 옥 등에 문양을 새기는 것 3. 열에 여덟을 나타내는 한자성어 4. 고려시대 고승 경한(景閑)이 부처와 조사(祖師)의 설법 등에서 선(禪)의 요체에 관한 내용을 뽑아 엮은 책 5. 세계를 여행하는 것 '80일 간의 ○○○○' 6. 물결이나 비늘 모양으로 펼쳐진 구름으로 비늘구름이라고도 함 .

세로 1. 돈이나 재물을 받고 벼슬을 시킴 8.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 9. 칼을 빠뜨린 자리를 뱃전에 표시해 놓았다가 나중에 그 표시를 보고 칼을 찾으려 했다는 고사(故事) 10. 음력 칠월 보름을 말하며 우란분절이라고도 함 11. 지자체에서 걷어 들이는 세금 13. 닭갈비란 뜻으로 그다지 쓸모 있는 것은 아니나 버리기에는 아까움을 비유함 14. 주인 된 국민의 권리 15. 나라의 운수.

유교에 정면으로 맞선 中 사상계 이단아


명 · 청 교체기의 중국 사상계를 거침없이 비판한 이탁오의 초상화.



이탁오평전
옌리에산 · 주지엔구오 지음
홍승직 번역
돌베개 펴냄 | 2만2천원

'나이 오십 이전의 나는 한 마리 개에 불과했다. 앞에 있는 개가 자기 그림자를 보고 짖으면 같이 따라서 짖었던 것이다. 만약 누군가 내가 짖은 까닭을 묻는다면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쑥스럽게 웃을 수밖에….'

얼핏 들으면 섬뜩한 느낌이 든다. 유교이외에는 다른 학문은 철저히 배척했던 명 · 청 교체기의 사상계를 거침없이 비판한 말이다. 철저한 자기 반성에서 나온 이 촌철살인의 주인공은 유교의 전제에 맞선 중국 사상사의 최대 이단아 이탁오(李卓吾, 본명 이지 1527~1602)다. 그의 사상과 철학, 일대기가 최근에 한권의 책으로 묶여졌다. 제목은 <이탁오 평전>.

사상적인 스펙트럼이 다양했던 중국. 하지만 이탁오가 살던 시대의 중국은 양명학의 창시자인 왕양명조차 공자는커녕 주희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을 하지 못했다. 이점을 감안하면 국가에서 인정한 유일한 학문체계였던 유교의 전횡에 반격을 가한 이탁오의 사상사적 위치는 자명하게 드러난다.

가정 6년(1527) 푸젠(福建) 취안저우(泉州)부 진장(晋江)현에서 태어난 이탁오의 이름은 지(贄)다. 탁오는 그의 호이다. 이탁오의 사상은 당시 중

공자 팔아 백성들의 눈과 귀 막아버리고 사상의 자유 박탈한 유교사회에 일침

국과 같은 유교국가에서 부처와 노자보다 훨씬 파괴력을 지닌 이단이었다. 송나라 이후 주희의 주석으로 고정된 유교경전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학문체계였다. 공자를 비판하거나 경전의 진리성을 부정한다는 것은 당시로선 충격적인 일이었다. 그렇다고 이탁오가 공자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고대의 한 사상가이자 교육자요 학자로서 공자를 존경했다. 하지만 그를 신성불가침의 우상으로 떠받들면서 중생의 눈과 귀를 다른 사상으로부터 막는 것은 가증스러운 짓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탁오 평본 서유기>에 나오는 삽도(揷圖).

이탁오로서는 목숨을 버릴지언정 이런 행태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탁오가 공격한 공자는 춘추시기의 공자가 아니라 '백가를 배척하고 오로지 유가의 학술만 존중하는' 후대의 공자였으며,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음에도 주희의 것만을 신봉하는 주희의 유교였다.

이탁오는 '분서' '장서(藏書)' '설서(說書)' 등 수많은 저작들을 통해 자신의 이 같은 사상을 설파했다. 그는 책을 집필할 때 이미 예견했다. 책이 세상에 선보여질 때 자신에게 미치게 될 화가 단지 지금처럼 비난 하는 강도에 끝마쳐질 것이 아니라는 걸. 그러했기에 책 이름도 불태워버려야 할 책(분서), 감추어야 할 책(장서)이라고 스스로 붙였다.

이탁오의 사상은 이 책에 소개된 '동심설'(童心說)에서 한층 물이 오른다. 그는 인간이 사회화되기 이전의 동심을 '진성진정'(眞性眞情)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도리와 견문, 그리고 사회로부터 무언의 암시가 인간의 마음속으로 들어오면서 동심이 오염되고, 결국 소멸돼버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독서란 본래 동심을 지켜서 잃지 않게 하려는 것인데, 오히려 대의를 훔치고 성현을 사칭하는 도구로 전락했음을 꼬집는다.

특히 송대 이후 독서란 곧 주희를 통한 공자 읽기가 모두 였으며, 이는 과거를 통해 입신양명하려는 과정과 다를바가 없다는 것이다. 이탁오의 동심설은 이같은 전제적 유교, 그리고 이를 신봉하며 부와 명예를 낚는 관리와 학자들에 대한 뼈아픈 충고이다.

이탁오가 말년에 불교에 귀의해서인지 책 말미에는 '생사초탈'이라든가 '인연' 등 불교적 용어들도 간혹 등장한다.

이 책은 관료로서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오직 사상적 자유를 추구하며 겪는 외롭고 고통스러운 여정도 함께 묘사한다. 사상적 독립투사들의 삶이 대부분 외로웠듯이 그도 결코 예외의 모습은 아니었다. 그로부터 수백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엄연한 사상적 · 문화적 전제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시대를 초월해 고개를 끄덕이며 읽을 수 있는 책이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나이 오십 이전의 나는 한 마리 개에 불과했다. 앞에 있는 개가 자기 그림자를 보고 짖으면 같이 따라서 짖었던 것이다. 만약 누군가 내가 짖은 까닭을 묻는다면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쑥스럽게 웃을 수밖에….'

● 이탁오는 누구

이탁오는 26세 때 관리 등용문인 '거인'에 합격해 하남 · 남경 · 북경 등지에서 하급관료 생활을 하다가 54세 되던 해 운남의 요안 지부를 끝으로 관직에서 물러났다.40세 되던 해 왕양명의 학문을 접하고 심학(心學)에 몰두했으며, 62세에 삭발하고 이단임을 자처하며 불교에 심취했다.

그는 유 · 불 · 도의 종지(終止)가 같다고 보았으며, 유가의 전제에 반대했다. 76세 되던 해 혹세무민의 죄목으로 투옥돼 옥중에서 자살했다.

저서로는 '분서' 6권, '속분서'(續焚書) 5권, '장서'(藏書) 68권, '속장서' 27권' '설서'(說書) 등이 있다. 그의 저서들은 명 · 청 시대의 가장 유명한 금서였지만, 대부분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전문가 서평



촘스키,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
드리로베르 글 | 강주헌 옮김
시대의 창 펴냄 | 9800원

'미국의 양심' 노암 촘스키(영어학자)와 프랑스의 두 언론인이 두 시간에 걸쳐 나눈 대화의 내용을 정리한 책이다. 거대한 지배권력에 맞서 진실을 외쳐온 촘스키 사상의 고갱이이자, 지금까지 그의 저서에서 독자들이 궁금해했던 부분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일종의 촘스키 사상의 본론이기도 하다.

책은 촘스키가 늘 주장해온, 미국의 세계 지배 음모, 지배권력의 속성, 지식인과 여론조작,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메커니즘 등을 속속들이 파헤치고 있다. 특히 언론과 지식인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지배권력의 편에 서서 소극적이고 무지하며 프로그램화된 민중을 만드는 데에 일조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두 시간의 짧은 인터뷰이지만, 대화의 주제는 점점 깊어져 권력의 속성과 실체, 현실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허구성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의 이야기는 책 제목처럼 현재 세계를 누가 무엇으로 움직이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촘스키의 생각이나 사상, 그의 주장 등이 쉽고도 간결하게 고스란히 담겨 있어 촘스키를 알고 싶었던 독자들에겐 유용해 보인다.

복지국가 흔드는 신자유주의

그는 특히 '권력의 중심에 있는' 다국적 거대 기업들의 오만과 횡포, 그럴듯한 홍보에 가려진 치부를 낱낱이 까발린다. 또 "그럴싸한 논리로 포장된 신자유주의가 민주주의를 무차별 공격하며 거대 기업에 힘을 실어주고 복지국가의 기본틀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며 민주주의를 보전키 위한 시민들의 각성과 실천적 행동을 촉구한다.

이 책에는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명분 아래 세계 도처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미국의 패권전략에 대한 비판,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사례인 '포리송 사건'에 얽힌 이야기, 사생활 등도 실었다.

촘스키는 "지식인이란 진실을 말하는 자"여야 하지만, 역사적으로 지식인들은 대개 지배권력의 이해를 대변 · 선전하는 데 복무해왔다고 말한다. 요컨대 '조작된 동의'의 배달부 노릇을 해왔다는 것이다.

촘스키가 프랑스에서 '천대'받게 된 경위는 이렇다. 1970년대 말 로베로 포리송이라는 한 대학교수가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부정하는 글을 발표했는데, 그는 그 때문에 교수직에서 해임됐다. 촘스키는 이 사건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탄원서에 서명했다. 이후 프랑스에서 촘스키는 반유대주의자를 옹호한 "빌어먹을 촘스키"가 됐고, 그의 책도 거의 소개가 되지 않았다.

틀에 얽매이지 않은 거침없는 대화와 두 기자의 리드미컬한 진행, 그리고 삽화를 이용한 경쾌한 편집은 세계적인 석학 촘스키의 사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미 촘스키 저서들을 읽은 독자라면 그리 새로운 내용이 없어 다소 실망할 것이나, 평소 촘스키를 궁금해하면서도 어렵게 생각해 선뜻 손이 가지 않았던 독자라면 이 책으로 가볍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허광무(한림대 영어학과 강사)

의식이 깨어있는 분들께 드리는 글

(어리석은 분은 읽은들 무슨 뜻인지 모르니 읽지 마세요)

"UFO와 하나님의 실체" <천지창조의 비밀>에 대한 책의 광고를 10여 차례 게재한 취지의 설명입니다.

민족의 정서와 의식이란 그 밑바탕이 그 민족의 오래된 전통적 신앙과 종교적 관습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 봅니다.
민족의 바른 정서와 바른 종교와 바른 의식(意識)의 전환운동이란 그 시대를 잘 간파하여 주어진 여건과 환경을 잘 인지함으로서 우리 민족의 의식(意識)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잘 알고 대처하는 일입니다.
의식이 깨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옳고 합리적인 이론과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 온 바른 사상과 종교를 널리 홍보함으로서 민족의 깨닫기 운동이 자연적으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은 다(多)종교 사회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기독교(천주교)의 독무대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천주교 교황이 서거하자 마치 우리의 國父가 서거한 것보다도 더한 뉴스의 독무대는 민족의 주체적 의식이 망각된 채 사대주의 신앙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깨닫기 운동이란 바로 전 인류가 최종적으로 가야할 지표이며, 이 길은 동양의 대표적인 종교들이 설파한 일입니다. 미물까지도 널리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보살의 마음인데 어찌 사도(邪道)들이라 하여 내팽개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도하고 바르게 이끌 사람들은 불교인 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이웃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의 친척이며 형제들인 기독교(천주교)인들입니다.
바른 이치를 바르게 알려 주는 것이 수행자의 옳은 행위이며 자비 정신이므로 그들을 가련하고 측은한 마음에서 그들을 바르게 이끌고 더 나아가 우리의 전통과 교권수호의 여러 가지 차원에 있는 것이지 결코 남의 신앙을 비방하거나 헐뜯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바른 법도 널리 알리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요, 비록 잘못된 것이라도 항상 쓰고 있으면 타성이 붙어 그것이 진리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깨닫기 운동이란 바른 법을 널리 홍보하고 깨달음의 길을 몸소 체험하고 실천하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어찌 성현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천지창조의 비밀**>을 널리 홍보하고 읽게끔 하는 그 자체가 포교이며, 많은 노력과 자금을 들이지 않고 종교 간에 갈등과 다툼 없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자연히 교화가 되리라는 생각에서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도는 전 종교인의 과반수(過半數)가 넘고 천주교인도 4백만이 넘는 지금의 시점에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의학 예술 등 각 분야에 있어 지도급 인사들 70%가 기독교인들이라는 통계가 나왔으므로 사회는 그들의 논리에 좌지우지됨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불교인은 몇%일까요? 10%도 못되는 현실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몇 천억이 아니라 몇 조(兆). 우리나라의 전 예산을 퍼붓는다 해도 기독교의 교세를 역전시키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일부 스님들은 아직도 시대의 흐름을 모르고 신도가 줄어 폐사 위기의 사찰이 많은데 지금도 대형 사찰과 거대한 불상을 조성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절이 크고 불상이 크면 영험한 부처님이 계신가요? 불교계 신문의 광고에 나와 있는 많은 사찰 매매는 무엇을 뜻하나요. 신도가 없으면 한 줌의 재가 된다는 것을 모르니 아무리 큰 절을 짓고 불상을 크게 만든들 무슨 공덕이 있겠습니까?
<**천지창조의 비밀**>, 김종성 씀>을 日刊紙에 꾸준히 광고하여 많은 사람들을 읽게끔 한다면 불교인은 자긍심에 개종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무종교인은 기독교(천주교)로 가는 일이 없을 것이며 기독교인들도 비논리적인 성경의 내용을 알게 되므로 스스로 자각의 소리에 귀를 열고 깨달음의 종교에 귀의할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교화하는 방법, 종교전쟁이 없이 교화하는 방법은 메스컴을 통한 교리의 홍보입니다, 이것이 지혜가 아닐까요. 성현의 가르침이 <깨닫기 운동>이라는 것을 알고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범민족 깨닫기 운동모임> 임원 일동
회장 **김 도 기**(관음사 주지)

동참하실 분 :
농협 751025- 51- 021224 (예금주 : 김 팔 영(도기))
(054-633-0108, 010-2465-1357)

"뜻대로 안 되는 일은 심신 단련하는 도가니"

만해 스님이 풀이한 정신수양의 길 '채근담'


만해 한용운 스님.

불법 대선자금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현역 국회의원 26명을 사법처리해 '한국판 마니풀리테(깨끗한 손)'라 불리기도 한 송광주 前 검찰총장. 송 전 총장은 지난 4월 2일 열린 퇴임식에서 '한때의 적막(寂寞)을 겪을지언정 만고(萬古)에 처량한 이름이 되지 말라'는 <채근담(菜根譚)>의 구절을 소개하며 "사회악에 맞서 정의를 세우기 위해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중국 명대 말 홍자성이 지은 <채근담>은 시대를 뛰어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는 고전이다. "사람이 나물뿌리(菜根)를 늘 씹어 먹을 수 있다면 세상의 어떠한 일이라도 못할 게 없다"고 했던 <소학>의 구절에서 제목을 따온 <채근담>은 인생과 처세술에 관한 훌륭한 지침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독립지사이자 시인이었던 만해 스님은 왜 <채근담>에 주목하고 해설서를 펴내게 됐을까?

"세상에는 분에 넘치는 권력을 얻기 위해 허리를 만 번씩 굽히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자들과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온 몸을 다 바쳐 일하고도 만족하는 자들이 넘쳐납니다. 자유롭되 방탕하지 않고 포용하되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편안히 가지기 위해서는 오직 정신을 수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만해 스님은 '정신 수양의 길'을 제시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채근담>에 주목한 것이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마음에 흡족함을 기뻐하지 말라. 오랫동안 편안한 것을 믿지 말고, 초기의 곤란을 꺼리지 말라"는 구절에 대한 스님의 강의를 들어보자.

"자신의 뜻대로 안 되는 일은 심신을 단련하는 도가니와 같습니다. 천하만사는 변동이 무상해서 성공과 실패가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어떠한 경우에 처하더라도 눈앞의 상황에 구애 받지 말고, 사물의 공통된 이치에 의거해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처럼 스님은 <채근담>의 각 구절을 풀이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바른 이치와 자신의 정신을 수양하는 길을 조목조목 친절히 설명하고 있다.

중국 청나라 건륭 시대에 내림 스님이 간행한 <채근담> 광본(廣本)을 저본으로 삼았고 일본에서 널리 읽히는 약본(略本)을 일일이 대조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 출간됐던 <채근담>이 전집과 후집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과 달리 만해 스님의 <정선강의(精選講義) 채근담>은 수성, 응수, 평의, 한적, 개론의 다섯 편으로 구성돼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스님이 1917년 신문관에서 발행한 <정선강의 채근담>을 원본으로 삼았으며 한문투의 번역을 우리말로 새롭게 다듬어 현대인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원본에 실렸던 박한영 스님의 추천사도 이번 책에 그대로 실렸는데 한영 스님은 "책을 덮고 사방을 바라보니 적막한 하늘에 서늘한 바람이 한점 일며 스스로 감화됨도 깨닫지 못했다"고 적고 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한용운의 채근담 강의
한용운 지음
어성원 · 이민섭 옮김
필맥 | 1만6천원

편견없는 시대의 눈 비판적 글쓰기

'비판적 글쓰기'란 시대와 사회의 흐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사안에 대한 균형적인 분석, 그리고 다른 관점을 지닌 타자와의 치열한 대화가 바탕이 된 글쓰기라 할 수 있다. 때문에 구승회 교수(동국대 윤리문화학과)는 "비판적 글쓰기를 하는 사람은 억압과 부자유의 공간에 머물면서도 긍정의 눈빛으로 세상을 보며, 냉혹한 비판 정신으로 시대를 거슬러 빗질하는 투사적 영혼의 소유자"라고 정의한다.

불교 생태철학과 환경윤리학 연구에 천착해 온 구 교수는 지난 10년간 시론과 칼럼, 논평, 에세이 등을 통해 다양한 '비판적 글쓰기'를 시도해 왔다. 그간 언론 매체에 기고했던 글 중에서 61편을 선별해 엮은 책 <덕과 악덕사이>를 펴낸 구 교수는 "비판적 글쓰기가 늘 건강하고 편견 없는 시대의 눈인 동시에, 세상을 긍정하는 파수꾼이기를 희망한다"고 말한다.

인터넷을 통한 '가벼운 글쓰기'에 길들여진 요즘의 젊은이들에게 쉽게 읽히는 글은 아니지만, 대학과 학문, 아나키즘과 휴머니즘, 세계 석학의 이론에 대한 진단과 우리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되짚어볼 수 있다.

여수령 기자



덕과 악덕사이
구승회 지음 | 미토 | 1만2천원

알음알이 버려야 보이는 임제록



임제 100할 이진오 김태완 옮김 | 장경각 | 9천5백원

임제의현(?~867) 선사의 어록을 모은 <임제록>에는 글자의 뜻만으로는 그 진의(眞意)를 헤아리기 힘든 선문답들이 가득하다. 이러한 선문답들은 알음알이로 해석을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 참구해야 할 화두 그 자체다. 하지만 먼저 선문답을 이루는 '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속에 담긴 의미도 바르게 읽을 수 없을 것이다.

이진오 교수(부산대 한문학과)와 무심선원 김태완 원장(부산대 민족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이 펴낸 <임제 100할>은 원전 텍스트에 충실한 <임제록> 해설서로 평가된다. <임제록> 전체를 대화의 주제와 참가하는 사람이나 장소 등에 따라 100개로 나눈 후 원문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번역을 시도했고, 주요 용어들은 주를 통해 풀이했다. 선문답의 내용에 대한 해설은 따로 하지 않고 있다.

<임제 100할>의 또 다른 특징은 저본의 차별성이다. 현존하는 <임제록>의 판본은 <사가어록(四家語錄)>(1648년)과 <천성광등록(天聖廣燈錄)>(1148년) <고존숙어록(古尊宿語錄)>(1403년) 그리고 가장 널리 읽히고 있는 '선화본(宣和本, 1298년)'이 있다. <임제 100할>은 이 중에서 <사가어록>을 저본으로 삼고 있다.

번역자들은 "가능한 초기 임제록의 편집 체제를 따르자는 취지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유통되고 있는 '선화본'이 아닌 <사가어록>을 저본으로 삼고 <천성광등록>을 대조본으로 삼았다"고 말한다.

<임제록> 해설 뒤편에 부록으로 <조당집>과 <송고승전> 등에 전하는 임제 스님의 일화와 법문, <임제록>에 나타나는 선(禪)사상 등을 소개하고 있다.

여수령 기자

계환 스님의 대승기신론 해설



대승불교의 세계 계환 스님 지음 | 운주사 | 1만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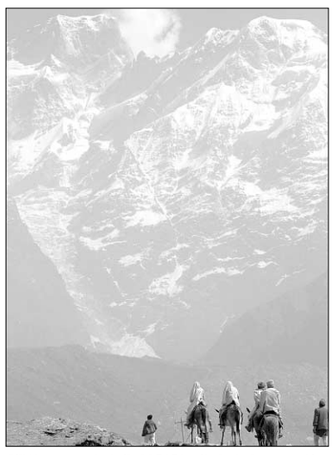
"대학원 교재로 <대승기신론>을 강의한지도 벌서 8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해설서들은 전문적인 불교용어가 너무 많아 접근하기 어렵거나 또는 지나치게 일반적이어서 그 심오한 뜻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늘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불자들을 위한 <대승기신론> 해설서 출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에 그동안 강의한 내용을 정리해 책으로 펴내게 됐습니다."

5세기경 인도 마명 스님이 저술한 것으로 알려진 <대승기신론>은 '대승불교 최고의 입문서이자 개론서'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일반 불자들은 '대승'이나 '기신'의 뜻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계환 스님(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은 가능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원문과 해석 그리고 일반 불자들을 위한 자세한 해설을 덧붙였고, 연구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내용은 각주로 처리했다.

1부에서는 '대승'과 '기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껏 논란이 되고 있는 저자 마명보살에 대한 진위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석마하연론> <대승기신론의소> <대승기신론별기> 같은 <대승기신론>의 주석서와 연구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살피고 있다. 다양한 도표 등은 대학원 강의 노트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다. 2부에서는 <대승기신론>의 내용을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말로 풀이했다. 3부는 논의 취지를 보다 정밀하게 살피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장으로, 원문과 직역, 해설을 비롯해 300여개의 각주를 덧붙여 자세한 뜻을 살피고 있다.

여수령 기자

영혼의 어머니 히말라야


해발 3583미터에 위치한 케다리나트로 가는 길에 만난 히말라야. 임현담씨는 "은빛 설산 히말라야를 오르는 길은 곧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히말라야는 눈덮인 산봉우리와 '신이 머무는 산' '어머니의 산'이라는 이미지로 기억되어 있다. 하지만 서쪽으로는 파키스탄과 인도 북부에 접하고, 남동쪽으로는 네팔과 부탄 인도 시킴주에 이어지며 동쪽으로는 브라마푸트라강의 대굴곡점에 이르는 히말라야 산맥은 아직 그 살결을 다 내보이지 않은 미지의 산이다.

시킴 히말라야, 가르왈 히말라야, 펀잡 히말라야, 부탄 히말라야 등 히말라야를 7개의 권역으로 나눠 기행문을 펴내고 있는 임현담씨(진단방사선과 전문의)는 최근 <가르왈 히말라야> 1, 2권을 선보였다.

해마다 봄이면 1~2개월씩 히말라야를 찾는 그는 "나를 키워낸 것의 8할은 히말라야였고, 그 히말라야에서 또다시 8할은 가르왈 히말라야였다"고 말할 정도로 가르왈 히말라야에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 히말라야와의 인연을 처음 맺게 해주었고, 세상을 보는 또 다른 시각을 갖게 해 준 곳이 바로 가르왈 히말라야기 때문이다. 집 혹은 성(城)을 의미하는 '가르'와 주인을 의미하는 '왈라'가 합쳐진 말인 가르왈은 네팔 서쪽 국경과 인도 북부 지역에 위치한 힌두교도들의 성지다. 하지만 가을이면 눈과 얼음으로, 여름이면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빈발하는 쉽지 않은 순례길이기도 하다.

"부모가 나를 육체적으로 키웠다면 가르왈 히말라야가 정신적으로 나를 성장시켜 그동안 눈을 마주쳤던 계곡, 시냇물, 수행자들 그리고 눈부신 설봉(雪峰)들이 법문으로 각인되어 있었다. 그들이 서로 다투어 입을 연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책에는 순례길을 따라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과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라는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여수령 기자

가르왈 히말라야 1, 2 글/사진 임현담 | 종이거울 | 각권 1만7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 · 편자	출판사
1	임제록 강설	무비 스님	불광
2	선을 가까이 하라	참회승	여시아문
3	불타석가모니	와타나베 쇼코	동쪽나라
4	기도	일타 스님	효림
5	방외지사	조용헌	정신세계원출판부
6	산색	연관 스님	호미
7	용서	달라이 라마	오래된미래
8	한글통일법요집	조계종포교원	조계종출판사
9	입보리행론	샨티데바	하얀연꽃
10	길을 걷는 자 너는 누구냐	장휘옥 외	더북컴퍼니

도서 안내 : (02)737-0695


선수행 문답집,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1
억겁 무명의 체증을 막힘없이 시원하게 뚫어줄 선수행에 대한 문답집!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일체종지를 통달한 안목으로 통쾌하게 답하였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상쾌한숙면 건강한하루 신비의은행석
배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은행석배개볼 1인용45.000원
생명의 빛 생명의 기
북한에서온 은행석은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잇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을 받아 붕어를 넣으면 붕어는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붕어는 씽씽하게 살아납니다. 고급난등 이외의 죽어가는 것도 다 살릴 수 있어요. 베개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천식등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심하게 코를 골거나 기침을 하신는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북한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며 저를 믿고 주무시어 건강하게 장수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손발이 자주 붓는 분은 은행석 목걸이, 팔찌와 같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목걸이, 팔찌 95.000원
◆목걸이,팔찌 : 머리를 맑게 함, 손이 붓거나 어깨결림해소, 혈압조절, 혈압상승억제, 전신에氣를 골고루 전달, 심장박동원활, 신진대사촉진, 신경 및 피가 맑아짐,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좋아요.
은행석 108염주, 손목압장주도 제조 판매합니다
◇ 현재 많은 스님 ,불자님들의 사용 후 기적같은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금강닥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 입금계좌: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법회때마다 음향 때문에 고생 하셨다면..."
사찰에 설치된 음향이 대부분 단순히 확성기능의 음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스님의 법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취급브랜드 JBL dbx AKG MACKIE crown

www.15440108.com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점검 및 음향 설계해 드립니다.
야단법석 문의 : 050-5844-0108 (관음사업부)
사원 모집
㈜야단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행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야단법석과 함께 하십시오.
• 모집구분 : 지점장 - 남 0명, 여 0명. 사원 - 남 0명, 여 0명
• 근 무 처 : 본인 거주지 • 문 의 : 050-5244-0108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속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

목조건축물

목조 건축물의 문제점
서광사
특히 곰팡이, 해충, 가루나무좀벌래, 흰개미 목재부식 이 모든것을 해결합니다.
저희 동화특수산업(주)은 목조 건축물을 과학적으로 보존에 임하고 있습니다!
취급품목
• 흰개미 방제 시스템 • 가루나무, 좀벌래살충
• 목재, 석재, 기와발수제 • 곰팡이 이끼 제거제
• 목재전용(부식)방부제
목재 복원 시스템 (특허번호 특허 제 0476325호)
www.dongwhaind.co.kr
동화특수산업(주)
본사/공장 :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427-1
TEL. 031)451-6232 (代) FAX. 031)451-6238
HP. 011-747-2111



옥천범음대학 작법강좌 현장

중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부설사학인 옥천범음대학의 '작법' 강의시간. 해사 스님의 박자에 맞춰 30여 수강생들이 바라춤을 배우고 있다.

이론 · 실기 · 예술 魂 삼박자로 *UP*



옥천범음대학 학장 일운 스님.

상주권공 과정 늘리며 4년제 대학 틀 마련
올해부터 졸업증 따면 '대선법계 품수' 수여
구해 · 일운 · 기봉 스님등 탄탄한 교수진

딩딩딩 징이 울리자 사뿐히 들린 수십 쌍의 바라가 춤을 춘다. 법당에 들어찬 30여 수강생들의 바라가 강사 스님의 박자에 맞춰 일제히 돌아간다. 움직이는 것은 바라만이 아니다. 넉넉한 법복 안에 숨은 팔 · 다리의 작은 움직임이 잠시도 쉬지 않고 이어진다.

4월 27일 신촌 봉원사 법당. 옥천범음대학(학장 일운) 작법 강좌가 한창이다. '작법' 시간은 올해 3대 학장 일운 스님이 취임하고부터 이론 강의와 별도로 마련된 일종의 실기 과정. 범패의 기초를 배운 2학년 이상 수강생들이 들을 수 있는 수업으로, 바라춤 · 나비춤 · 법고춤 등의 춤사위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다. 이날 배우는 내용은 바라춤의 기본인 '요잡바라'.

"바라 돌리는 데에만 신경을 쏟다보니 무릎을 못 쓰는 분들이 많아요. 장삼자락이 바닥에 닿았다 떨어지는 모습이 항아리 치마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형태와 비슷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끊임없이 무릎을 움직여야죠."

한 차례의 단체시연이 끝나자 강의를 맡은 해사 스님(옥천범음대학 강사)이 입을 연다. 1주일에 한 번씩 한 달을 갓 넘긴 수업으로 제대로 된 의식을 구현하는 것은 무리일 터. 박자를 맞추지 못하고 허둥대다 저 혼자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바라를 받친 팔을 힘차게 뻗어 올리지 못해 바라가 귀 옆에서 뱅글뱅글 도는 경우도 있다. 그래도 단 한 사람도 시연중에 바라를 내리는 법이 없다.

힘이 들면 드는 대로, 틀리면 틀리는 대로 묵묵히 몸짓을 이어갈 뿐이다. 그 치열한 움직임에는 이유가 있다.

"올해부터 중간 · 기말고사를 본대요. 출결상황과 성적 등을 종합해서 '수료증'이냐 '졸업증'이냐를 결정한다고 해요. 열심히 해서 '졸업증' 따야죠. 그러면 대선법계(선덕) 품수도 받을 수 있어요."

올해부터 법계 품수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신입생 등록을 서둘렀다는 태고종의 한 비구 스님. 올해 옥천범음대학은 새로 개편된 제도 덕에 많은 신입생을 얻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소리를 주로 배우는 상주권공(1학년) · 의식집전의 실제를 배우는 각배(2학년)와 영산(3학년) 등의 3년 과정에 불과했다. 그러나 상주권공 과정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면서 4년제 대학의 틀을 갖추고, 우수 수강생에게는 전액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교양대학 답지 않은 면모를 보여 인기를 끌었다.

"옥천범음대학 출신은 그 어디에서든지 어장(魚丈 · 실력이 출중한 범패승)의 호칭을 얻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는 학장 일운 스님의 지침이 제도 개편에 불을 당긴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설 교육기관을 거쳐온 수강생도 적지 않다. 이들은 추가 수강을 통해 자세를 교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꾼다. 특히 신라때 범패를 들여온 진감선사의 맥을 이었다고 자부하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부설사학의 탄탄한 교수진'이 이들 지원의 계기가 되고 있다.

구해(준보유자), 일운(전수교육조교), 기봉(전수교육조교) 스님 등이 수업을 진행한다.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몸은 하나의 공양구가 돼야 합니다. 동작으로 모양을 내겠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신구의(身口意) 모두를 부처님께 오롯이 올린다는 지극한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징이 울리고 둥둥둥 북소리가 그 뒤를 잇자, 다시 한번 수십 여 쌍의 바라가 돌고 돌기 시작한다. '징'하는 소리를 내며 바라가 맞닿는 순간, 공양을 올리는 지극한 마음이 문득문득 살아난다. 옥천범음대학의 작법 과정은 매주 수요일 그렇게 이어진다. (02)392-3234

글=강신재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아! 찬란한 고구려

한국토공 '생명의 땅, 역사의 땅'展
개발 지구서 출토된 300여점 전시



고구려 금니여래입상



고구려 니조보살입상

삼국시대의 유일한 금니불상 등 쉽게 공개되지 않았던 고구려 유물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한국 토지공사 토지박물관은 30년 동안 공사 개발사업지구에서 출토된 유물 300여점을 선보이는 창립 30주년 기념 특별전 '생명의 땅 역사의 땅'을 연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2004년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한 개성공단 발굴조사 당시 출토된 유물 100여점이 공개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가운데 단연 관심을 모으는 유물은 고구려 금니여래입상과 고구려 니조보살입상. 니조불(흙으로 빚어서 만든 불상)에 옻을 칠하고 그 위에 금을 입힌 금니불(金泥佛) 형태는 삼국시대를 통틀어 유일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7세기 초반에 조성된 이 금니불상을 발견함에 따라 고구려 불상 조성의 계보를 7세기까지 세울 수 있게 된 것 역시 유물의 가치를 더한다.

이밖에도 금동삼존불입상(통일신라), 감지금니사경(고려), 청동주악비천문범종(고려) 등 불교관련 유물을 10여점 만날 수 있다. 또한 3세기 고구려에 대한 기록을 소상히 담고 있는 고구려 벽비(壁碑)도 공개된다. 10월 29일까지. (031)738-7211

강신재 기자



금동관음보살입상



청동9층탑

여주 신륵사
'한국의 대장경' 展

우리나라 불교경전의 인쇄역사를 살필 수 있는 전시회 '한국의 대장경'이 여주신륵사 유물전시관에서 6월 19일까지 열린다.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 이하 연구소)가 '제3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를 맞아 개최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연구소가 수집한 <초조고려대장경> <재조고려대장경(해인사 팔만대장경)>을 비롯해 산스크리트어, 티베트어, 스리랑카어, 태국어 등으로 기록된 대장경과 디지털 대장경 등의 자료가 공개된다.

전시장에는 탁본 체험장이 마련돼 인쇄문화도 체험할 수 있다. (02)926-8144

박익순 기자

스님, 불자님 전용 가방 (길벗 가방)

스님, 불자님 외출 시 승복 및 필수용품을 넣는 좋은 가방을 개발하여 권해드립니다.



가 격
본가방 1개 + 핸드작은가방 1개
3만 8천원
※ 택배비는 1개 주문시 구매자 부담, 2개이상은 판매자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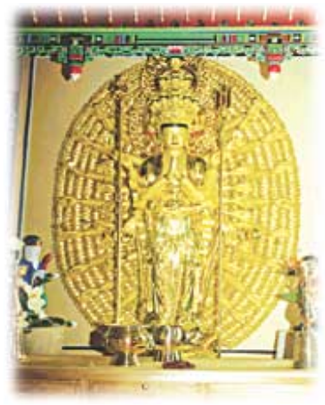
사이즈
본 가 방 : 가로 440 × 세로 350 너비 90 × 끈길이 110
핸드가방 : 가로 295 × 세로 210 너비 70

● 제조원 : 국내(한국산)
● 특 징 : 불자님께 꼭 필요한 필수 용품, 승복 내장 시 구김 및 흐트러짐 방지(고무밴드 부착), 가방끈 탈부착 가능, 불자님께 맞는 품위있는 디자인(음字, 佛字 고급자수), 어깨끈 사용시 미끄러짐방지 기능(찍찍이 부착), 명찰 부착 기능(다른 가방과 혼돈 방지), 본 가방 1개 외 작은 가방 1개 추가, 물세탁 가능, 의장등록 출원중

※ 고급원단 사용으로 견고하며 국내에서 제조하여 반 영구적이며 모든 스님과 불자님께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단 가방이 수입품이거나 하자시 100% 반품 가능합니다.

● 주문전화 : 051)507-7555, 503-7722
[계좌번호 : 농협 121072-56-116911 예금주 조연순]

승광불교전통미술원



• 불 상
• 탱 화
• 개 금
• 원 형 조 각
• 불 사 상 담
• 천불삼천불
• 불 교 용 품

귀의 삼보 하옵고....
대덕 큰 스님의 성원으로 불교미술 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수 있도록 지도 편달 바라옵니다

전 화 02-491-5336, 02-494-7478
공 방 031-595-6557, 031-595-6558
휴대폰 011-226-5336
e-mail : 0112265336@nate.com
목우 손 동 술 합장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교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 울 : 011-379-0667
강원도 : 010-3044-9708
경기도 : 019-690-4018
충청도 : 011-327-7697
경상도 : 016-9294-8580
전라도 : 011-368-0667

조은칼라지붕공사

눈비를 맞아도 썩지않는 평상,벤치탁자



◆ 평 상 1300 × 820 × 400[mm] 가격:150,000 할인가:130,000 / 1800 × 1830 × 480[mm] 가격:220,000 할인가:190,000
◆ 벤치탁자 set 1500 × 1700 × 750[mm] 가격:420,000 할인가:370,000

칼라지거나 터짐이 전혀 없고 주기적 도색이나 관리가 필요 없어 반 영구적이며 특히 촉감이 부드럽고 비 온후 바로 앉을 수 있는 제품.
(목상, 가든, 휴양원, 해수욕장, 업소, 공원 등등에서 사용 할 수 있는제품.)

지구산업 http://산업간별대로.com TEL:(063) 323-3010-1 FAX:(063) 323-3012
계좌번호:[농협]505055-56-005933 예금주:지구산업 박영호
전화주문시 무료배송 지역대리점 모집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초청

설선대법회 지상중계 ⑧

4월 23일

주제 - 화두는 조사공안이다

"올가미 걸린 맹수처럼 화두 들라"

說禪 원융 스님 (해인총림 해인사 수좌)

무문관은 힘으로 여는 것도 아니고 쇠망치로 때려 부순다고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또 범부고 성인이고 통과하지 못합니다. 부처님 법을 깨달은 묘각지(妙覺地) 보살이라야 통과합니다.

오늘 주제인 '화두는 조사공안이다'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공부의 명제인 화두를 왜 '공안(公案)'이라고 하는가? 공안이라는 말은 공공법규를 말합니다. 법률 · 법규가 있어야만 나라를 다스리듯 조사문중에서 공부인을 바로 잡아 이끌고 밝고 어둠을 판별하기 위해선 최후의 관문에 도달한 불조(佛祖)의 공안으로써 바른 법령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점검할 때도 공안으로 하고, 구경도리(究竟道理)도 화두를 깨쳐야 요달[了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조(六祖) 문하생입니다. 화두가 없으면 화두를 받아서 생명으로 삼고, 자기 부처님으로 삼아야 합니다. 화두만 요달하면 성불합니다.

성불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있는 그대로 자성을 요달하면 부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도리를 알고 화두만 깨치면 성불합니다. 화두 없이 참선하면 전쟁에 나간 병사가 소총을 안 가지고 나간 것과 같습니다.

1700 공안이 있지만 오로지 하나면 됩니다. 자기가 믿는 큰스님에게 화두를 받아서 본참(本參)공안으로 삼고 매달려 죽기 살기로 하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한 개 공안만 결택(決擇)해 그 공안만 해결하면 나머지 공안도 해결됩니다. 하나를 모르면 다 모르고 하나를 통하면 다 통합니다.

맹수가 포수들이 놓은 올가미에 걸려들면 빠져나가려 발버둥을 칩니다. 맹수는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날카로운 이빨로 올가미를 물어뜯어서라도 도망을 치려고 합니다. 포기하면 결국 죽기 때문입니다. 옛 스님들도 생사의 올가미에서 뛰쳐나와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화두라고 했습니다.

옛날 제가 살던 동네에서 포수들이 멧돼지 잡는 것을 봤습니다. 포수들이 쏜 총에 맞으면 멧돼지의 창자가 흘러내리기도 합니다. 흘러내린 창자가 나무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면 멧돼지는 나무를 한바퀴 돌아서 창자를 끊은 다음 도망갑니다. 얼마 후 죽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살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참선도 바로 그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화두를 타파하지 못하면 성불을 못하는가요? 〈증도가〉에서 법의 재물을 축내고 공덕을 없애는 작용을 하는 것은 심의식(心意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심(心)은 제8식 아뢰야식(阿賴耶識)을 말합니다. 이 아뢰야식은 있는 것 같지도 않아서 도인경지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8식 아뢰야식은 제8 마괴라고도 합니다.

심의식 중 의(意)는 제 7식을 말합니다. 제 7식은 말라식(末那識)이라고 하는데 현대 심리학 용어로 잠재의식을 일컫습니다. 이에 비해 심(心)은 무의식이죠. 식(識)은 제6식인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를 말합니다. 이 심의식 경계를 초탈해야만 생사해탈을 할 수 있습니다.

끊어짐 없이 화두 들어야

이 때 역점을 둬야 할 것은 폼 잡고, 호흡 고르고, 앞 뒤 둘러보고 할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덫에 덜커덕 걸려 아차 하는 순간 포수에게 잡혀 죽을 지경인데 앞 뒤 둘러볼 겨를이 있습니까? 체면불구하고 올가미를 끊고 도망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화두만 깨치면 성불할 수 있다는 것에 역점을 두고 거세게 달라붙어 해결해야 합니다.

화두를 열심히 오래 들면 깨친다고 했는데 당신은 30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란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온 것도 염라대왕 앞에 밥값 계산하러 온 것입니다.

총림이란 쉽게 말해서 대중처입니다. 평생을 총림에서 이가 누렇고 머리가 허옇도록 살면서 이 도리를 모르면 '총림의 골동품'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골동품은 가치는 있지만 용처가 없습니다. '밥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도리를 못해 마치면 바로 밥중입니다. 저도 내일 모레가 칠십인데 밥중이라는 소리를 안 들을 수 없을것 같아요.

하지만 공부에도 시절인연이 있어요. 대혜 스님은 불성이 뜻을 알고자 하면 마땅히 시절인연을 관찰하라고 했습니다. 때가 오면 그 뜻은 저절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다만 빨리빨리 해서 마쳐야지, 가만히 기다릴 수 없습니다.

원오극근(圓悟克勤) 선사가 15년을 시자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원오극근 선사가 깨친 것을 보고 오조법연(五祖法演) 선사가 "이 시자, 이제부터 참선할 줄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참선은 폼 잡고 좌복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성을 확철히 깨친 것을 말합니다.

더러는 참선 오래하고 거세게 달라붙는다고해서 구경까지 요달하는가 라고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거든요. 〈선요〉를 말씀하신 중국의 고봉(高峰) 스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고봉 스님은 열다섯 살에 스님이 됐습니다. 그 때 머리를 깎고 보니 머리카락이 떨어진 자리에 하얀 좁쌀 같은 것이 떨어졌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모두 사리였습니다. 그런 선근 공덕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스님은 20살까지 경도 보고 율도 익힌 다음 21세 때 단교묘륜(斷敎妙倫) 선사에게서 '만 가지 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고?' 화두를 받았고, 설암조흠(雪巖祖欽) 선사에게서 '무엇이 너의 송장을 끌고 왔는가?' 화두를 받았습니다.

고봉 스님이 무자 화두를 받아서 정진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졸음이 엄습해 주체를 못했습니다. 앉아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한 스님이 3년을 서서 정진했습니다. 3년 가까이 되던 날 화장실에 들렀다 대중처소로 건너가던 중 대중이 안행(雁行)을 하면서 어디로 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대중을 따라 갔더니 법연 · 달마 · 지공 선사 세분이 모셔진 삼탑전에서 독경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을 읽다 머리를 드니 오조법연 선사 영에 사구게(四句偈)가 써 있는 것이었습니다.

'100년, 3만6000일을 반복하는 것이 원래 이 놈이다'라는 구절을 보는 순간, '송장을 끌고 다니는 이놈이 무엇인고?' 화두를 깨쳤습니다. 일 주일 전부터 꿈속에서 무자 화두를 공부해왔는데 무자 화두가 떠올라 화두삼매에 든 것이 아니고 '만법귀일' 화두가 작용해 그 계송을 보고 깨쳐버린 겁니다. 그때 그 경계가 어떤 경계인지 모르고 점검도 받지 않고 구경을 요달한 지 알았습니다.

참선은 참구해도 다함이 없다

몇 해 뒤 설암(雪岩) 스님을 조실로 모시고 공부할 때였습니다. 설암 스님이 고봉 스님의 경계를 확인하려고 "평상시나 바쁠 때나 화두가 주인이 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고봉스님은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걸어 다닐 때나 머무를 때나,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말 할 때나 말을 들을 때나, 움직일 때나 고요히 있을 때나 항상 삼매를 유지하는 '동정일여(動靜一如)'의 경계입니다.

또 '꿈을 꿨을 때도 화두가 주인이 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역시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몽중일여(夢中一如)의 경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이 "잠이 들었을 때 보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고 꿈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는가. 그때 주인공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말문이 막혀 버렸습니다. 그러자 고봉 스님은 설암 스님으로부터 "오늘부터는 부처를 배우고 법을 배울 것도 없고 고금(古今)을 궁구(窮究)할 필요도 없으니, 다만 배고프면 밥 먹고 곤하면 자고 잠이 깨면 곧 정신을 가다듬어 '나의 일각주인공(一覺主人公)은 필경 어느 곳에서 안심입명(安心立命)할 것인가?'하라"는 지시를 받고 스스로 맹세했습니다.

"내 일생을 바보처럼 지낼지언정 이 한 일 결단코 밝혀내고 말리라"면서 5년을 정진하던 끝에 한 암자에서 밤중에 잠이 깨 이 일을 바로 의심하던 차에 같이 자던 도반이 목침을 떨어뜨리는 소리를 듣고 홀연히 의단(疑團)을 타파했습니다.

납자의 구경처가 안심입명(安心立命)입니다. 동정일여 몽정일여 오매일여 이 공부의 삼분단을 투과하면 바른 깨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올가미에 걸린 맹수처럼 거세게 달려들어 올가미를 날카로운 이빨로 끊고 도망쳐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당나라 때 습득(拾得)과 한산(寒山)이라는 문수보현의 화신이 있었습니다. 한산은 국청사라는 절에 드나들며 스님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얻어먹고 그때마다 시 한 수를 지어 주는 것으로 밥값을 대신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은 시가 2백수가 넘어서 묶은 것이 〈한산시집〉입니다.

한산자가 말씀한 '참선백수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언시로 참선의 요체를 백가지로 말씀한 것입니다. 그 시에 나온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참선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참선은 참구해도 다함이 없다."

정리=남동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원융(圓融) 스님은

- 1938년 전남 고흥 生
- 성균관대 영문과 졸업
- 72년 해인사에서 성철 스님을 은사로 출가
- 74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 계사로 비구계 수지 후 30년 넘게 해인사 선방에서 참선수행
- 2004년까지 7년간 조계종 기본선원 교선사 역임
- 현재 조계종 기본선원 운영위원

법회 전체 동영상중계
buddhanews.com
비디오·오디오 CD·테이프 구입은
범어사 (051)508-3636
현대불교신문 (02)732-1520

탱화의 미적가치에서 각각의 의미까지 전달 **신비한 불화의 세계**



사찰에서 만나는 많은 종류의 탱화들, 그 안에는 다양한 불보살들이 각기 다른 형상으로 표현돼 있지만, 그 명호들을 제대로 부를 수 있는 불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신비한 불화의 세계〉는 부처님을 주존(主尊)으로 하는 상단탱화, 보살을 중심으로 그린 중단탱화, 신중과 천왕 등을 형상화한 하단 탱화 등을 간단한 설명과 함께 종류별로 선보여 우리를 불화의 세계로 한걸음 다가서게 합니다.
소개되는 불화들은 박정자씨가 직접 제작한 것으로, 명장의 붓끝으로 살아난 부처님 형상의 장엄미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박정자 지음 / 광진문화사 / 3만원 / 양장본 올 칼라 / 신국판

부처님을 친견하는 사불(寫佛) 수행

한국 최초 사불 교본 출간 !! 붓끝 하나하나에 환희심을 담는 사불수행!! 이제 내안의 부처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1권】249쪽/50,000원 【2권】269쪽/55,000원 【3권】87쪽/20,000원 【4권】55쪽/15,000원

● 사불 교본 1,2,3,4 (책크기 : 4절 395 × 545mm)

1권 – 탱화전문가에게 꼭 필요한 상단, 중단, 하단 독존도의 탱화초와 부모은중경, 팔상도, 비천상초를 그리고 채색할 수 있다.
2권 – 관음 32응신도와 42수관음, 천수천안관음의 출현, 53불을 매일 그리고 채색하여 예불할 수 있다.
3권 – 만다라와를 그리고 채색하여 조파일 연등에 붙이거나 법당이나 가정에서 실에 꿰어 부처님을 장엄할 수 있다.
4권 – 삼신불, 팔대보살, 시왕님을 그려보고 채색할 수 있다. 사찰에서는 지장재일에는 지장보살을, 관음재일에는 관세음보살을, 약사재일에는 약사여래를 그려 부처님 복장에 넣어 모시거나 법당 부처님 좌복에 모시고 기도하여 신심을 높일 수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후보 박정자

사불수행이란 ?

조금은 생소한 수행법이지만 이미 고려시대부터 사경과 함께 널리 행하여 그 찬란한 빛을 발했으나 억불정책의 과정에서 맥이 끊어지고 지금은 사경활동만 발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불수행은 사경보다 쉬워 남녀노소가 누구든지 쉽게 따라할 수 있고 마음속의 부처님을 눈으로 확인하며 신심을 다져 가기 때문에 불자들의 신심을 마음 깊이 각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안의 부처와 하나가 되는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불이라는 또 다른 수행으로 삼천리 방방곡곡 우리들의 절마당에서 모든 불자님들이 천백억화신의 부처님을 사불하여 금수강산을 불국정토로 이루고자 발원하나이다.

나무마하반야바라밀
만하 박정자 합장

주문전화 061)333-4472 (은행계좌에 입금 후 전화하시면 택배로 배달)
국민은행 073-01-0289-484 / 농협 637015-52-036279 예금주 박정자

스님께 묻습니다

사회 : 화랑 스님(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초청

설선대법회 지상중계 ⑧

화두 하나 깨치면 모든 공안 깨치는 것



질의 법사 : 흥수 스님

· 1978년 성라원에서 법성 스님 은사로 출가
· 84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
· 85년 봉녕사 승가대학 졸업 후 제방선원에서 정진 중
· 현재 조계종 기본선원 비구니 선감

흥수 스님 : 화두를 참구할 때 덫에 걸린 맹수가 올가미를 끊고 탈출하듯이 맹렬히 화두를 들어서 금생에서 타파하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화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전 선지식들은 납자들을 제접할 때 그 근기를 잘 살펴서 화두를 주셨는데 오늘날은 천편일률적으로 화두를 줘 화두에 대한 간절한 의정(疑情)이 돈발(頓發)하지 않고, 또 천년 전 화두로 과연 조사관을 투과해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화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기지 않아 몇 년 정진하다 다른 길로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두가 조사공안이라고 한다면 이 시대 선지식들이 납자들을 제접할 때 이 시대의 화두로 제시하면 좀 더 확고한 믿음으로써 돈발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스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원융 스님 : 어떻게 해야 의정을 발휘해 간절하게 화두를 참구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당사자의 신심여하와 원력여하에 달려있다고 봐야 합니다. 화두를 어떤 자세로 참구해야 할 것인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긴가민가해 드는 둥 마는 둥 해서는 곤란합니다. 간절하게 해야 합니다. 한순간도 끊어짐 없이 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억지로 쥐어짜서 의심을 일으키려 하지 않고 스스로 들리는 경지가 돼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지요.

화두가 아니면 생사해탈 도리를 성취할 수 없다. 나는 포수한테 잡혀 죽는다, 올가미를 끊고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화두를 참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무자 화두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두 번째로 '간시궐(乾屎橛)' 화두가 있습니다. 무자 화두가 종문의 제일 공안입니다.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이게 화두의 내용인데 〈서장〉에서는 다만 화두를 보라고 했습니다. 무자 화두를 타파하지 않고는 생사해탈법을 성취할 수 없다는 신념과 확신으로 꾸준히 열심히 참구해야 합니다.

옛날 스님들은 근기에 따라 화두를 줬습니다. 우리 종문에 1700 공안이 있다고 소문났지만 실제 종문의 중요한 공안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조주 무자든지 간시궐이라든지 동산수상행(東山水上行)이라든지 종문의 저명한 공안 중 하나를 결택해 본참공안으로 삼고 참구하면 됩니다. 〈서장〉에도 공안 중에서 하나만 깨치면 그것이 법계무량회향(法界無量廻向)이라고 했습니다. 대표적 화두 하나만 깨치면 모든 화두를 깨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화두도 못 깨치면 다른 화두도 못 깨치는 것입니다. 옛날 조사스님처럼 학자 사이에 법을 거량하는 기연, 이것을 종문에서는 인연이라고 합니다만 이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화두를 줄 수 있고 화두를 생산할 수 있고 현대에서도 화두를 생산할 수 있는가. 옛날 조사스님들처럼 화두를 말씀해 그 화두를 믿고 우리의 공안으로 결택해 참구할 수 있는가 라는 기준의 관건은 그 조사스님이 화두를 타파했는가 입니다.

고봉 스님이나 대혜 스님 정도 법을 확철히 요달한 도인이라만 공안을 말할 수 있고 줄 수 있고 새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부처님 법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흥수 스님 : 간화선을 최상승선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원융 스님 : 간화선을 최상승 도리 또는 조사선 도리라고 하는데 우리 문중에서 자화자찬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육조단경〉에 연유합니다.

〈육조단경〉에서는 최상승법에 의지해 수행하면 결단코 성불한다고 돼 있습니다. 육조 스님이 설하신 법을 최상승법이라고 했습니다. 육조 스님 문하생으로서 육조 스님 문하에서 전승되는 화두참선을 최상승선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데, 그러면 육조 스님 이전에도 화두참선이 있었습니까 하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임제 문중에서 간화선을 주된 참선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형식상 옛날과 다르지 않습니까 하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화두 참선법 양상과 방식은 다를지언정 옛날 조사스님이 참구해서 깨친 바탕을 그대로 전승하는 법입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겉으로 흐르는 것만 보지 말고 속에 흐르는 지하수맥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20세기 지성이라고 일컫는 영국의 시인 겸 평론가 T.S 엘리어트는 '전통이라는 것은 밖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도 흐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간화선 참선법은 형식과 내용은 다를지언정 깨침의 구경법을 말하는데 일치하고, 조사선 도리 전통 이념을 계승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김윤환 : 선에서는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敎外別傳)을 말합니다. 그러나 대혜종고 스님이 〈서장〉을 남기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간화선이 이렇게 성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먼저 책을 읽어서 믿음을 깊이하고 수행의 과정에 대한 예비지식을 갖춘 뒤에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융 스님 : 단적으로 말해서 공부방법을 거꾸로 한 것입니다. 〈서장〉의 요지가 척사해현정견(斥邪解現正見)입니다. 이 말은 삿된 법을 꺾어서 물리치고 정견을 바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른 법이란 우리의 자성을 확철히 요달한 법입니다. 바른 법을 요달하려면 조사공안인 화두를 확철히 깨쳐야 합니다. 부처님의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삿된 법을 꺾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서장〉에서 전편을 통해 대혜 스님이 삿된 법이라고 질타하고 배척한 것이 조동 묵조선입니다. 조동 묵조선은 이론은 그럴듯하고 한 소식 하면 성성적적(惺惺寂寂)하고 경쾌한 것 같지만 거기에 주착(主着)합니다. 묵조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망상을 일으키지 말고 쉬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종문에서 중요한 것은 깨침입니다. 깨침으로써 안심입명처를 찾고 생사해탈법을 성취하는 것인데 묵조선에서는 깨치려고 하지 않고 두번째 목적으로 칩니다. 아주 성성적적하면 그 자리가 바로 법을 성취한 자리긴 하지만 그야말로 성성적적한 자리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망상을 일으키지 않고 가만히 쉬는 식으로 주장합니다. 깨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조용한 곳에만 멈춰서 주착하는 그것이 사람 버리고 법 버리는 도리입니다.

그래서 대혜 스님이 삿된 법으로 친 것입니다. 무슨 법 무슨 법 따지지 말고 화두를 타파해야 하는데 책을 읽고 이론을 습득해 마음자리를 안정시킨 다음 참선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하는 질문이지요.

사실 참선하는데 지식이나 문자는 차라리 모르는 것만 못합니다. 시골에서 가난해 학교도 못 다니고 했던 입장에서 지식을 습득하고 머리 좋은 것이 도움 될지는 몰라도 옛날 남전 스님도 "천하에 미련한 놈 하나 찾아보려고 해도 못 찾겠다. 이 문중에서는 미련한 놈이 제일인데 영리한 놈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일류 대학 나온 스님들에게 화두를 시켜 놓으면 잘 못합니다.

문자 이론에 휘둘려 책을 안 읽으면 직성이 안 풀리고 안 되는 모양입니다.

참선법은 세계 인류 정신문화사상 하나의 금자탑이라는 것은 알아야 합니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간결하고 짤막한 화두로 죽기 살기로 매달려 이것만 해결하면 생사해탈법을 성취하면 되는데 이런 좋은 법이 어디 있습니까. 간화선을 목숨 걸고 해 보세요. 좋은 도리가 나옵니다.



범어사 설선대법회 8번째 법회는 봄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4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법회에서 원융 스님은 "올가미에 걸린 맹수가 올가미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것처럼 화두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가 질의자 : 김윤환 거사

· 2005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
· 현재 (주)영광도서 대표이사, 이웃사랑을 파는 〈나눔의 가게〉 대표, 부산불교실업인회 회장

김윤환 : '화두는 조사공안이다' 라는 주제가 오늘 법문입니다. 간화선이란 중국 송나라 때의 대혜종고 스님에 의해 완성된 선의 수행방법론입니다. 그렇다면 간화선 참구법이 유행하기 이전의 당나라 때 조사들이 행했던 참선수행방법이란 어떠한 것입니까? 아울러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원융 스님 : 화두가 생기기 전 참선법은 큰스님들마다 한결같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달마 스님은 벽관(壁觀)으로 참선하도록 가르쳤고, 삼조 승찬(僧璨) 대사는 본분도리(本分道理)에 입각해 참구했다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사조 도신(道信) 대사의 경우 여래선도리(如來禪道理)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래선도리의 요체는 일행삼매입니다. 사조 도신 대사부터 일행삼매가 나옵니다.

육조 스님 문하로 마조 백장 황벽 임제 스님이 연결되는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여래청정선을 말합니다. 여래청정선이 종문에 화두가 생기기전 참선의 내용이고 이념입니다. 황벽 마조 임제 스님의 경우, 내용에 따라서는 조금 달리 이야기하지만 여래청정선이 종문의 정통 참선법이었습니다.

후대에 여래선은 얕고 조사선은 깊은 도리라 오해해서 말씀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후대에서 잘못 이해해 와전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종문의 바른 참선법은 여래청정선이고, 여래선이 곧 조사선이며, 조사선이 여래선 도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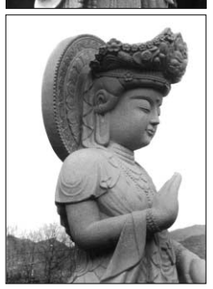
정리=남동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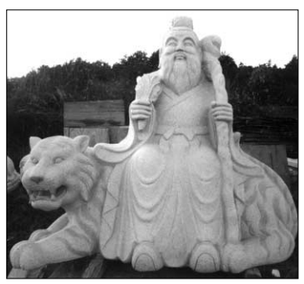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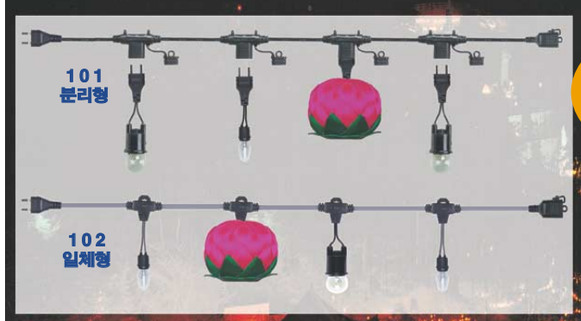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5349 / 휴대폰: 010-7474-5349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불자기업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기업입니다.)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등간격

22cm,30cm,50cm,
1M,2M,3M,5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전구(정품)

▶볼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종류:3W, 5W, 10W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컬라멘트가 6배 (특 칼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사찰용(1W, 2W, 3W), 반 영구적인 특수전구(정품)
건전지용 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군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시공

연등물결 전국 '넘실'

부처님오신날 맞아 5월 4~15일 전국서 시민축제

서울 5월 8일 연등축제 우정국로 개념도



일러스트 / 최정근

불교 최대의 명절인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오고 있다. 전국 각지의 봉축위원회와 사암연합회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5월 내내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8일을 전후로 서울 동대문에서부터 종로에 이르기까지 제등행렬이 펼쳐지고 외국인 등경연대회, 불교문화마당, 어울림마당, 대동한마당 등 시민과 어우러지는 '연등축제'가 펼쳐진다.

 # 서울 조계종봉축위원회는 5월 8일 열리는 연등축제에 앞서 6일부터 부대행사 및 연등축제 전야제 격인 연등놀이를 펼친다. 부대행사인 전통등전시회는 5월 6일부터 15일까지 강남 봉은사 보우당에서 열린다. 봉은사는 전통등전시회 기간 동안 전통등의 제작과정을 시연하고 누구나 참여해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축제 전날인 7일에는 봉축 분위기를 북돋을 연등축제 전야제가 우정국로에서 열린다. 연등축제에 참가하는 약 80여 단체의 연희단이 모여 흥과 신명으로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이 전야행사에는 7천명이 참가해 장엄한 등을 동대문운동장으로 이동시킬 예정이다.

축제의 분위기는 8일 절정에 달한다. 이날 우정국로에서는 불교문화마당 및 어울림 · 대동한마당 등 '연등축제'의 본행사가 펼쳐진다. 놀이마당에서는 풍물굿, 영산재, 선무도, 수화 등을 함께 배워보거나 관불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 국제불교마당에서는 태국, 네팔, 대만, 스리랑카, 인도, 캄보디아 등의 수행 프로그램을 체험해 볼 수 있다. 해마다 많은 불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전통문화마당에서는 온가족이 탁본을 인경하거나 천연염색, 불화시연, 불상개금, 연화그리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한편 동대문운동장에서는 오후 4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5만여 명의 제등행렬 참가자들이 모인 가운데 봉축법요식이 거행된다. 이어 오후 7시, 종묘, 탑골공원을 거쳐 조계사 앞을 이르는 제등행렬이 펼쳐지고 9시 30분부터는 축제를 회향하는 대동한마당이 시작된다. 풍물패가 흥을 돋우고 꽃비가 내리는 가운데 일반시민과 외국인, 행진참가자 모두 한데 어우러져 연등축제를 마무리한다. 조계종봉축위원회 (02) 2011-1744~8

 # 부산 부산봉축위원회도 '미래로! 세계로! 불교로!'라는 주제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5일 오후 5시에는 부산역광장에서 시민 · 불자들과 함께 하는 연합대법회가 있다. 이어서 부산역 광장에서부터 부산진역을 거쳐 부산불교방송, 범냇골로타리, 서면로타리로 이어지는 제등행렬을 6시 30분부터 시작한다. 이날 부산역 광장에서는 전통차 무료공양, 연등 만들기, 낙동 가족축제 및 불교조각, 달마그리기 체험 한마당 등 다양한 불교문화행사들이 열린다. 도자기 체험(7일 금정도자기체험센터), 삼광사 봉축음악제(13일 삼광사), 성암사 연등축제 및 산사음악회(15일 성암사) 등 다양한 봉축행사가 5월 중순까지 부산 곳곳에서 이어진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051) 867-0501

 # 경기 경기도는 서울과는 달리 각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연등축제를 개최한다. 대부분의 지역이 15일에 연등축제를 하는데 반해 수원에서는 5월 8일 만석공원에서 연등축제 및 봉축문화제를 갖는다. 또 만석공원저수지에서는 5월초까지 시민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연꽃심기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남양주 별내면 문화센터에서는 5월 4일 불암사가 주최하는 연꽃 노인잔치가 있을 예정이다. 양평에서는 15일 양평종합고등학교에서부터 군청앞사거리에 이르는 구간을 제등행렬하며, 같은 날 평택시민들도 시내를 돌며 연등축제를 벌인다. 경기양평봉축위원회 (031) 772-8776

 # 충청 대전불교사암연합회는 불교음악회(5일 보문산 야외음악당)와 불교전통등 전시회(6일 신덕심인당)를 개최하고 봉축전야제(7일 그린타워 예식장)를 연다. 이어 보문 중 · 고등학교에서 8일 연등축제를 개최한다. 한편 천안과 청주에서는 각각 천안불교사암연합회의 봉축 대법회 및 연등축제(8일 천안농고 운동장), 청주청원불교연합회의 휘호 그리기 대회(5일 화장사) 및 봉축 사진전(6일~13일, 예술의 전당)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청주 연등축제는 13일 청주 무심천에서 시작되며 이날 청주 시내 곳곳에서는 연꽃등을 시민에게 나눠주는 행사가 진행된다. 대전불교사암연합회 (042) 537-8214

 # 전라 광주사암연합회는 8일 광주공원 내에서 연등축제를 갖고 15일 각 사찰별로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을 연다. 전주의 봉축행사는 12일 절정에 달한다. 호국충경사가 주최하는 연등제가 4일 35사단 세병호에서 열리는 것을 시작으로 6일 전북학생회관 공연장에서 봉축 연합합창제로 음성공양을 올리고 12일 전주시청광장에서 연등축제를 열기 때문이다. 29일에는 어린이 · 청소년 불자들을 위해 청소년 모악축제(금산사 특설무대)가 열린다. 전주봉축위원회 (063) 277-3497

 # 경북 대구 대구봉축위원회는 5일 동화사에서 '꿈이 있는 문예마당'을 개최하고 15일에는 '자비광명을 기원하는 타종법회'를 경상감영공원에서 봉행한다. 또 상주 · 고령 · 의성 · 성주 · 구미 · 포항 · 안동봉축위원회도 가족등 만들기, 국립국악원 초청공연, 봉축음악회 등의 행사를 10일을 기점으로 각 지역마다 진행한다. 대구봉축위원회 (053) 629-9783

 # 강원 강원원주사암연합회는 5일 각 사암별로 봉축어린이 백일장을 연다. 또한 10일 원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연등축제에 앞서 5일 원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봉축탑 점등법회를 봉행한다. 한편 오대산 월정사와 상원사는 7일 오전 10시부터 휘호대회, 문화재 그리기, 걷기대회, 환경콘서트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강원원주사암연합회 (033) 732-4800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게시판

어린이 뮤지컬 공연 서울양재동교육문화회관은 4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 어린이 불자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플레이뮤지컬을 공연한다. (02) 571-8100

무료 서예강좌 한국불교문화원은 추사 김정희 선생의 서체를 중심으로 한 서법실기와 이론을 한학과 결부시켜 교재비 없이 무료로 5월 10일부터 8월말까지 4개월간 강좌를 연다. 접수는 5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02) 823-7086

긴급구호봉사단원 모집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는 재해발생시 파견하여 대민봉사와 구호활동을 실시할 불교계 긴급구호봉사단원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13일까지. 불교사회복지정보센터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조계종복지재단으로 우송하면 된다. (02) 723-5101

발마사지 · 컴퓨터교실 성북구립장위실버복지센터는 발마사지 교실 및 왕초보컴퓨터반을 12일 개강한다. 성북구 거주 60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교육비는 무료. (02) 913-3369



직장인불교교리강좌 동산반야회는 5월 4일부터 7월 27일까지 직장인을 위한 불교교리강좌를 연다(사진).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동산법당에서 불교의 정신유산인 팔만대장경 속 부처님 가르침을 배운다. (02) 732-1206

20면 상식 퍼즐 정답

매	난	국	죽		전	각
관		채		백		주
매			십	중	팔	구
직	지	심	경			검
	방					
	세	계	일	주		국
		륵		권	적	운

전시

붓끝으로 녹여 낸 신심의 결정체

조영희 전통불화전 5월 4일부터



조영희 作 '오백나한전'.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수상자인 고석 조영희 씨가 10여년에 걸쳐 그린 불화들을 전시한다. 5월 4일부터 10일까지 갤러리 라메르에서 열리는 <전통불화전>은 조씨가 수행하는 마음으로 그려온 불화 50여점과 병풍 10여 개가 전시된다.

작품중 채색탱화, 금니탱화 등은 선이 굵고 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민속박물관에 소장 중인 <금니백팔불> 병풍을 비롯, 예전에 소실됐던 금박기법을 조씨가 복원해 그린 금박탱화들이 전시된다. 조개가루와 아교로 돋움질을 한 후 옻칠을 하고 금을 덧입힌 <104나한도>는 그리는 과정만 꼬박 1년이 걸렸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하는 <12지병풍>은 금박바탕에 석채와 경명주사로 그려, 화려하면서도 무게가 느껴진다. (02)730-5454

앨범

삼라만상 이어주는 대나무 향기

이생강 60주년 기념 앨범 '죽향' 발매



중요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 예능보유자 죽향(竹鄕) 이생강의 60주년 기념음반 <죽향(竹香)>(사진)이 출시됐다. 이씨는 1958년 태어나 호적명인인 부친 이수덕의 영향으로 5세 때부터 피리와 단소를 익히기 시작했다. 이후 1970년 대한민국 7인의 명인에 선정, 1973년 국민훈장 목련장 서훈, 1984년과 1987년 두 차례에 걸친 KBS 국악대상 등에 선정되어 마침내 1996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받기에 이른다.

이씨는 특히 대금산조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앨범에는 대금뿐만 아니라 피리, 단소, 태평소 등 모든 국악관악기에 뛰어난 연주력을 갖추고 있는 이씨의 발표작 중 '이생강류 대금산조'를 비롯해 피리산조, 퉁소산조, 단소산조, 소금독주, 태평소 시나위 등이 빠짐없이 수록됐다.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동자승캐릭터 스티커 세트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귀여운 동자승캐릭터 스티커 세트를 소개한다.

다양한 동자승의 모습을 담고 있는 캐릭터 스티커는 어린이 선물로도 좋다. 봉축위원회 추천상품.



소: 크기60X156mm (30매) 3만원. 중: 크기130X176mm (60매) 6만원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2일 14:05 낭만라디오
3일 15:00 음악의 마을
4일 09:05 행복한 미소
5일 11:05 아름다운 초대
6일 09:05 거룩한 만남
7일 07:05 아침저널
8일 07:05 사랑의 징검다리

Btn 불교TV
sky-life:161
케이블: 지역방송사 문의

2일 08:00 명상음악산책
3일 15:10 명상육아
4일 23:35 한국의 명찰
5일 14:25 불교TV메디컬
6일 16:40 향토음식기행
7일 16:05 부처님경전이야기
8일 15:20 산중대담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다시 듣고 싶은 노래(5월 7일 저녁 8:05~9:00) 마음의 노래, 다시 듣고 싶은 노래를 김병조의 정겨운 입담으로 다시 들을 수 있다. 틈틈이 소개되는 '명심보감'의 구절을 통해 삶의 지혜도 얻을 수 있다.

■**불교텔레비전**: 왜 지금 붓다와 노자인가(5월 8일 아침 9:45~10:30) 동양철학 사상을 대표하는 노자의 도덕경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해 본다. 각박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올바른 삶의 지혜와 도를 일깨워 준다.

이영화 어때요?

버림받은 4남매 어떻게 살았을까?

아무도 모른다 감독:고레에다 히로카즈, 출연:야기라 유야 등, 등급:전체관람가



도쿄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에 철없는 엄마가 4남매를 데리고 이사를 온다. 각자 아버지가 다르고 아키라 이외에 동생들은 출생신고도 안됐지만 아이들은 엄마와 행복하게 살아간다. 그러던 어느날 엄마는 재혼을 위해 집을 나가고 장남 아키라는 엄마가 남긴 적은 돈으로 살림을 꾸려 보지만 돈은 금세 바닥이 난다. 전기도 물도 끊긴 상황에서 아이들은 힘겹게 살아간다. 영화 '아무도 모른다'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이 영화는 지극히 비참한 삶을 그리면서도 희망의 빛을 잃지 않는다. 무거운 짐을 떠맡은 소년 가장 아키라와 세 남매는 자신을 버린 부모와 아무런 관심과 보호의 손길도 외면한 사회를 원망하지 않고 꿋꿋이 삶을 이어간다.

그렇다면 영화 밖 우리 주변의 삶은 어떤가. 정서가 메마른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자신의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별 관심조차 없는 듯 보인다. 얼굴을 마주치고 지나가도 그냥 지나칠 뿐이다. 옆집 사람의 직업이 뭔지, 나이는 몇인지, 굶고 지내는지는 정말 '아무도 모른다'.

현대인들의 극에 달한 이기심과 소외계층의 삶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영화 '아무도 모른다'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금 되돌아 볼 수 있게 하는 작품이다.

노병철 기자

고통의 바다에서 건져주신 부처님 (하)

원정언 (부산시 사상구 모라 3동)

절을 다녀와서 우울증 약을 먹고 자리에 누웠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고 팔이 쑤시고 머리가 지끈거렸다. 구토증세가 느껴져 토했더니 방금 전에 먹은 약은 안 넘어오고 멀건 물만 토해냈다. 그리고 온몸이 으슬으슬 추워졌다. 우울증 약을 1년 넘게 복용해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암이 온몸에 퍼져서 죽으려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자 묘하게 기분이 편안해졌다. 시계를 보니 오후 4시 50분이었다. 가만히 누워 '지금 병원에 가면 담당교수님도 안 계시는 날이고 시간도 너무 늦는데 가야할까'라는 생각을 하던 중 갑자기 무엇인가가 머리 위로 휙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배와 머리가 텅 비는 듯 한 느낌과 함께 배 위를 쳐다보자, 돌부처님 상이 배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 보였다.

"어머, 깜짝이야"라고 말하면서 손을 배 위에 갖다 대며 일어나보니 한바탕 꿈이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마음속에 부처님이 있다고 옛 사람들은 이야기했던 것이 아닐까.

눈 깜짝할 새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갑자기 방안이 온통 빛으로 가득 차는 느낌이었다. 내가 언제 어둡고 우울하게 살았냐는 듯, 마음이 너무나 벅차고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제서야 잊고 있었던 허기가 느껴졌다. 너무나 춥고 아팠던 터라, 기운을 차리고 나자 뜨거운 죽이 먹고 싶었다. 안 그래도 기도하고 내려올 때 스님께서 '흰 죽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 가스렌지에 불린 쌀을 올렸다.

부처님을 만나게 된 인연을 생각하자 묘한 기분이 들었다. '내게도 불성이 있다'는 말이 생각났다. 안 그래도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데 내가 부처님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생각하며 웃지 않을까. 하지만 나는 내 마음 속에도 불성이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너무 좋아서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사찰에 가서 절도 많이 해야겠다는 결심을 세우게 됐다.

그 뒤 절에 갈 때마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만 보면 '저 사람도 절에 가면 나처럼 부처님을 만나 뵙게 될텐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다.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고, 풀 한포기도 소중하게 느껴졌다.

점차 절이 내 집같이 느껴졌다. 요즘에는 꼭 스님 모시고 기도 정진 하는 것만이 불자의 본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해서 비굴할 필요도,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을 업신여길 필요도 없다. 다만 부처님이 하신 일을 널리 알리는 것만이 내가 할 일이 아닐까. 배움도 없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던 사람이 참 많이 알게 된 셈이다.

요즘의 나는 매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다 부처님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다.

선지식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상근기는 60일, 중근기와 하근기는 90일에서 120일이면 불도를 성취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갖고 있는 것을 다 내놓는 일이 있더라도 한번 해볼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불교대학에서 강의 들으며, 졸립지도 않은데 자꾸만 눈이 감길 때마다 바짝 눈을 뜨고 긴장하느라 힘들기도 했고, 마침내 마곡사로 졸업여행을 떠나면서 무념무상을 느끼기도 했다.

그 3년 6개월 동안 아름다운 연꽃 봉오리들을 본 기분이다. 미세한 번뇌가 없어지면서 법신을 알고 자비를 알게 됐다.

2002년 구정 다음 날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남편은 술을 마시고 귀가했고, 나는 밥도 약도 못 먹은 채로 있었는데 약이 너무 독해서 빈속에 먹을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야채를 갈아달라고 남편에게 부탁해서 함께 마시려고 했더니 남편이 피곤하다며 짜증을 부리며 야채를 갈아주기 시작했다.

'기왕에 하는 거 잘해주면 얼마나 좋아.'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며 국을 데워서 상을 차린 후 식사를 하고 누워서 잠깐 졸았다. 갑자기 꿈속에서 부처님이 나타나 부처님 특유의 미소를 보여 주시며 서운했던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다. 내가 꿈을 꾸면서 "부처님 미소, 미소…"라고 중얼거리니까 남편이 "어디, 어디?"라며 일어났다. 나도 순간 꿈에서 퍼뜩 깨어나 정신을 차렸다. 다시 부처님의 미소를 뵙고 나니 부처님이 더욱 함께 계신다는 생각이 강하게 스쳤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나는 그런 일이 있고도 3개월 쯤 지나자 다시 믿음이 약해 지고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때마다 스님께서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부처님 가피 속에서 살아오고 있다.

불교대학 다니며 법신·자비 알게돼
참선 통해 우울증 벗고 건강 되찾아

사찰에 갈 때마다 역대 조사님들과 스님, 그리고 이곳 운주사의 큰 법당을 창건하신 분들께 날마다 감사 기도를 올리고 있다. 항상 스님 곁에서 어려움을 함께 하는 신도들께도 감사기도를 올리고, 조석으로 부처님께 예불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이 온 세계로 전파되어 모든 생명이 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불국정토를 이루기를 서원한다.

이렇게 부처님 만나 뵙고 무념무상으로 기도하고 법문을 들으면서 일심으로 참선한 뒤로, 나는 점차 우울증을 벗어나게 됐다.

우울증 때문에 그간 30년 넘게 고통 속에서 살아온 것을 모두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암 투병을 하면서 우울증은 더욱 심해져만 갔지만 부처님을 만나 뵙고 강한 믿음으로 낫겠다고 결심하며 1년 넘게 복용하던 수면제와 우울증 약의 복용을 중지했다.

처음에는 갑자기 약을 끊어서 그런지 머리가 지끈지끈하며 아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나 차츰 좋아지더니 마침내 잠도 잘 오게 됐다. 아마도 불교대학을 다니면서 마음도 안정되어 한결 더 건강해진 것이 아닐까 싶다.

처음 약을 복용할 땐 백혈구 수치가 많이 떨어져서 약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는데 한의원에서 체질검사를 하고 몸에 맞는 음식을 꾸준히 섭취했다. 요즘은 음식보다 참선으로 얻는 것을 마음의 양식 삼아 살아가고 있다.

서울에서 처음 암 치료를 받을 때만 해도 수치가 7.8이었는데 부처님을 처음 만나 뵌 뒤 25.7에서 멈추고, 3개월 뒤 검사하니까 수치가 10으로 내려가 있었다. 3개월 후 다시 검사하니 수치가 5로 내려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검사한 수치가 0.9였다.

항암치료 끝나고 회복기간도 없이 바로 암수치가 30이면 다시 독한 주사를 맞으며 살아가야 한다고 들었던 터였다. 나는 우울증이 심해서 그런 치료를 병행해나갔으면 아마도 내 몸과 정신이 견뎌내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지금도 부처님을 만나 뵌 덕택에 암수치가 25.7에서 멈추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조금만 늦었어도 30이 될 뻔 했는데,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부처님을 만나게 되어서 행복하다.

특히 나는 참회기도를 하며 내 참모습을 찾는 것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참회가 업장을 녹여주기 때문이 아닐까.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공부할 기회가 닿기를 기원한다. 그래서 건강도 되찾고, 나아가 자기 내면과 바깥이 하나 되어 삶과 죽음의 고통을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란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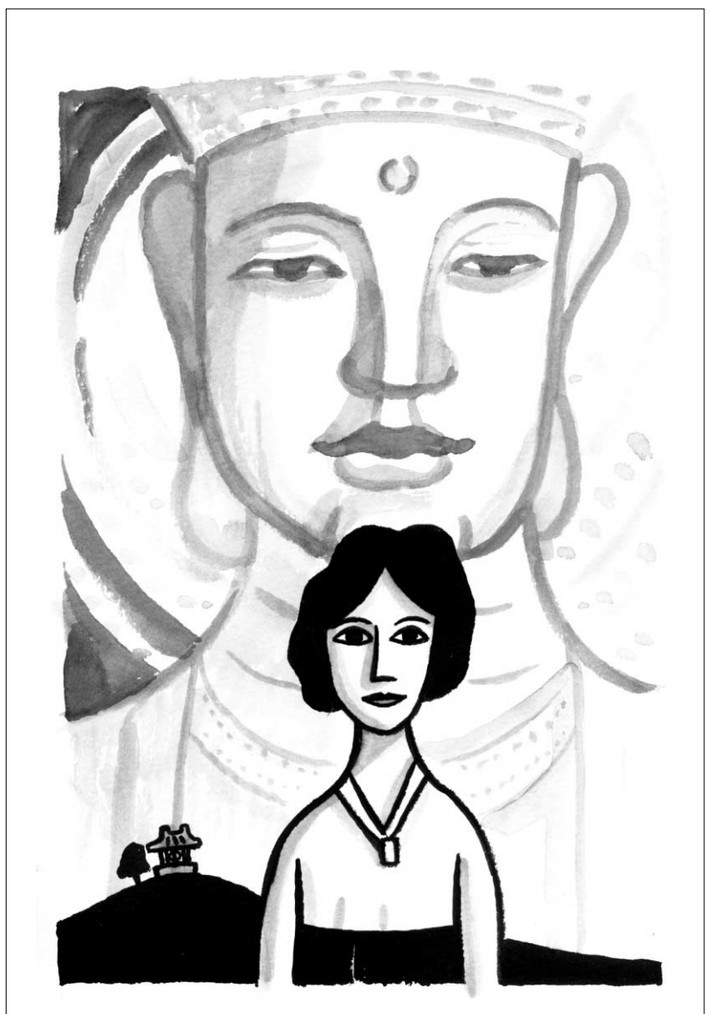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renvy@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승기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구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보름분 30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원증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지수 대진 합장

간(肝)이 간염 간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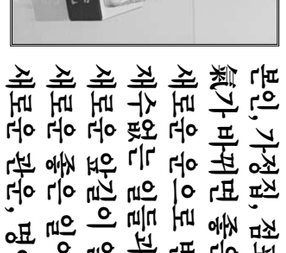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氣방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면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를 처방해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같틀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덩어리 북덩어리 氣가막힌 북이틀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전남 구례군은 지난 4월21일 차시배지 비석을 세우고 '장죽전 시배지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차시배지 관련 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구례군청



전남 구례군이 지난 4월21일 화엄사 입구 장죽전에 건립한 '신라대렴공 차시배지' 비석.


1981년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쌍계사 입구에 세워진 '김대렴공 차시배 추원비'.

하동 vs 구례

'차 시배지' 논란 1라운드

하동-초의선사 〈동다송〉, 정약용 글 근거제시
구례-"대렴공보다 연기조사가 먼저 재배" 주장
전래시기, 쌍계 · 화엄사 창건연대까지 쟁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차를 심었던 곳은 어디일까?

그동안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의 쌍계사 입구냐, 전남 구례군 화엄사 장죽전(長竹田)이냐를 두고 공방이 뜨거웠던 '차 시배지' 논란이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4월 21일 구례군이 화엄사 입구 장죽전(長竹田)에 '신라대렴공 차시배지(新羅大廉公 茶始培地)' 비석을 세우고 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녹차 9000주를 식재하는 등 '차 시배지'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1981년 5월 25일 한국차인연합회는 쌍계사 입구에 '김대렴공 차시배추원비(金大廉公 茶始培追遠碑)'를 세운 바 있다. 차인들뿐만 아니라 학자들과 지방자치단체까지 가세한 '차 시배지' 논란은 차의 전래시기와 중국에서 차씨를 가져온 '대렴'의 존재, 쌍계사와 화엄사의 창건연대 고증으로까지 번져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차 시배지에 관한 기록이 보이는 문헌으로는 〈삼국사기〉와 〈동국여지승람〉 〈동국통감〉 등이 있다.

〈삼국사기〉 10권 흥덕왕 3년 12월조에는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대렴이 차종자를 가져왔으므로 왕은 이를 지리산에 심게 했다(入唐 廻使大廉茶種子來, 王使植地理山)"는 기록이 보인다. 또한 〈동국여지승람〉 30권 '진주목' 토산편에는 "신라 흥덕왕 때에 대렴이 당나라에 사신으로 들어갔다가 돌아오면서 차종자를 가지고 와서 지리산에 심게 하였더니, 성덕왕 때에 비로소 무성하였다(新羅興德王時 入唐回使 大廉持茶種 來使植地異山 至聖德王時始盛焉)"고 기록되어 있다.

이 밖에도 서거정이 쓴 〈동국통감〉과 이수광의 〈지봉유설〉 등에도 비슷한 기록이 보인다. 이러한 '정사(正史)'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다면 처음 차를 심은 때가 흥덕왕 3년, 즉 828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차를 심은 곳은 '지리산 일대'라고만 명기되어 있어 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하다.

지리산 화개면 운수리 쌍계사 입구는 1985년 한국차인연합회가 전문가들의 고증을 거쳐 차 시배지로 지목하고 '김대렴공 차시배추원비'를 세운 후 통상적인 '차 시배지'로 인식되어 왔다. 쌍계사 입구를 차 시배지로 지목하는 학자들은 초의 선사의 〈동다송〉 중 "지리산 화개동에는 차나무가 50~60리에 걸쳐 자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차밭으로 이보다 넓은 곳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기록과 최치원이 지은 진감국사 대공탑비문, 그리고 조선후기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이 남겼다고 하는 '대렴공이 당나라에서 가져온 차종자는 화개동 계곡에 심었다' 기록을 그 근거로 든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쌍계사 시배설'을 반박하는 연구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화엄사 장죽전을 차 시배지로 지목하는 학자들은 "828년 당시 쌍계사는 창건되기 전이었으며, 화엄십찰 중의 하나인 화엄사를 두고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었던 화개동 계곡에 차를 심었을 리 없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4월 21일 열린 '장죽전시배지 학술발표회'에서 '신라차 시배지 연구'를 발표한 이형석 박사(한국차문화연구회장)는 "〈대화엄사사적〉과 〈조선의 차와 선〉에서 화엄사 장죽전을 차 시배지로 지목하고 있고, 828년 당시 쌍계사는 창건되지 않았다"며 "화엄 10찰 중의 하나인 화엄사에 고승대덕들이 주석하고 있었으며, 왕명에 의해 차를 기념식수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박사는 1991년 전남도 지방기념물 제138호로 지정된 '구례장죽전 녹차시배지' 용어에서 '녹차'를 '차'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석정원 차회를 이끌고 있는 선혜 스님은 '한국의 차시배지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 "〈화엄사지〉에 '인도의 고승 연기조사가 화엄사를 창건하고 장죽전에 차종자를 심었다'는 기록으로 볼 때 화엄사 장죽전을 차 시배지로 봐야 하며, 그 시기도 흥덕왕 3년보다 74년 정도 앞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죽전의 위치가 화엄사 일주문 근처인지 아니면 화엄사 구층암 근처인지 혹은 제3의 장소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한국차문화협회는 이능화의 〈조선불교통사〉에 전하는 '김해 백월산(白月山)에는 죽로차가 있다. 세상에서는 수로왕비인 허씨(허왕옥)가 인도에서 가져온 차씨라고 전한다'는 기록과 〈삼국유사〉에 근거해 백월산이 위치한 경남 창원시에 '가야 차시배지 비'를 건립할 계획이라 또 다른 차 시배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황실다례 체험 행사

조선 황실 다례를 체험해 볼 수 있는 행사가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마다 창경궁에서 열린다. (사)전주이씨대동종약원 황실다례보존회는 전통 황실 다례 의식을 배워볼 수 있는 '황실 행다례 체험 행사'를 4~6월, 9~11월 동안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낮 12시 30분과 오후 3시 30분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다. 강의는 황실의 차문화에 대한 설명과 행다례 실습으로 이루어지며 참가자는 매회 10명으로 제한한다. (02)762-9515

한국차인회, 팔도차문화 잔치

한국차인연합회(회장 박권흠)는 5월 1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하이서울페스티벌의 일환으로 5월 4일 서울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팔도 차문화 큰잔치'를 개최한다. 오후 1시부터 펼쳐지는 이날 행사에서는 무형문화제 제15호 이양자씨의 다도무 공연과 신라화랑 다유회 시연, 안숙선 명창의 공연을 비롯해 다도구 전시회와 무료 차 시음회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02)747-0474

'국제 녹차 심포지엄' 개최

태평양 설록차와 한국식품과학회(회장 김성곤, 단국대 교수)는 5월 13일 오전 10시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제8회 국제 녹차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가족의 건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구강건강'과 '식중독 예방' '항전립선질환'에 관한 논문들이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대 백대일 교수와 가톨릭대 조용헌 교수를 비롯해 일본 쯔루미 대학 오카모토 교수, 미국 뉴져지주립대학 알렌 코니 교수 등이 참가해 논문을 발표한다. 인터넷 홈페이지(www.sulloc.co.kr)를 통해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조선시대 ②



불교에 대한 규제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 사찰의 새로운 건립을 금지하고 전국 사사(寺社)를 36사(寺)로 통합하도록 했다. 자연히 사원을 중심으로 했던 고려시대의 융성한 다풍은 선비들 사이에서 꽃피우게 된다. 가정의례에도 차를 쓰고 묘제(墓祭)나 시제(時祭)에도 차례를 행하게 된다. 일본과의 교역에도 다기나 차가 많이 소요되어 각 지방마다 자기가 생산된다. 자기의 질은 떨어졌지만 수적으로는 팽창한다. 명나라와도 차 교역은 계속된다.

나라가 안정되어 정비되니 자연 지방의 산물(産物)에 관한 특징, 유통 및 농작법이나 기타 백성들에게 필요한 저서들도 나오기 시작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서적들이 글 모르는 백성들에게 직접 영향을 주지 못하고, 국가적으로도 정책적 배려가 없어 농업이나 어업은 물론 요업(窯業)같은 특수산업은 기술적 장려나 전승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말았다.

중국도 변동기를 치르고서 다풍이 일변하여 소강상태를 이루었고, 일본은 계속해서 무사 중심의 다도가 확대되어 갔다.

① 서거정은 조선 초의 학자로 호는 사가정(四佳亭)이었다. 중국에 다녀와서 차와 깊은 인연을 맺었다. '사잠상인혜작설차'를 비롯한 다시 수편이 전한다.

② 예조(禮曹)에서 묘제에도 술을 쓰지 말고 차를 쓰도록 했다.

③ 사헌부에서 시작된 다시(茶時)가 다른 부서에 확대되었다.

④ 원도진(源道鎭)이 자완 1000여 개와 다른 예물을 보냈고, 11월에는 등원만정이 자완 1000여개를 보내왔다.

⑤ 우대언, 허성을 보내어 범유에게 작설차 등을 내렸다.

⑥ 묘제에까지 차를 올린다는 것은 차가 생활 속에 뿌리내려 조상들도 차를 많이 마셨다는 증거다.

⑦ 창성이 채문자발(彩文磁鉢) 10벌과 자완 20벌을 요구하니 그대로 내리고 방동아(房童兒) 등에게도 예물을 주었다.

전국 사사 36사(寺)로 통합
선비들 사이 다풍 융성

⑧ 심주(1427~1509): 명대 화가로 오문사대가(吳門四大家)의 한 사람. 차에 관해 〈서오다별론후〉라는 글과 다화(茶畵)를 남겼다. 고저차(顧渚茶)를 좋아했다.

⑨ 왕비옹: 명대인으로 차를 즐겨 〈육다기사(六茶紀事)〉를 지었다. 이는 그가 곽산령으로 있을 때 친히 찻일을 맡아 공다(貢茶)까지 관리하며 지은 작품이다.

⑩ 섭자기: 명대 산문가로 그가 옥중에서 지은 〈초목자(草木子)〉 권3에 '어차(御茶)'에 관한 기록이 있어 다사(茶史)상 귀중한 자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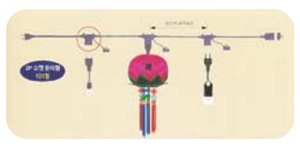
⑪ 복강현 팔자(八姉) 주서선사가 차씨를 심고 부초(釜炒)법을 받아들여 후에 팔녀차(八女茶)로 이름을 얻었다.

■성균관대 예절다도학

@ 표는 약(about)

한국		중국		일본
조선시대	1420 서거정의 출생 ① 1421 묘제(墓祭)에 차를 씀 ② 1423 사사(寺社) 창설 엄금 모든 관청에서 다시(茶時)를 행함 ③ 1424 사사를 선교양종으로 36사로 통합 1425 경상도 지리지 간행(하연) 1426 일본 사신이 자완 천개를 올리다 ④ 대마주에 다식을 보내다 1427 범유에게 작설차를 내림 ⑤ 1429 삼국시조묘(三國始祖廟)에 다례를 올림 ⑥ 창성에게 발(鉢)과 완(椀)을 주다 ⑦ 명나라 사신 요구 품목에 다기와 차가 있었다 〈농사직설(農事直說)〉	명대	1425 창고에 쌓인 차로 관리의 봉급 지급 1427 심주(沈周)의 출생 ⑧ @ 왕비옹의 활동 ⑨ @ 섭자기(葉子奇)가 활동 ⑩	남북조	실정(室町) 1424 주서(周瑞) 선사가 차를 심고 부초 차를 만들다 ⑪

불기 2549년 마하몰 | 봉축용품 기획상품전
단체 홍보상품
• 이미지 큐브 – 신기한 입체블록으로 보는 부처님 일대기
※ 300개 이상 주문시 원하는 이미지에 맞춰 제작해 드립니다


· 안전성, 작업성, 내구성확보
– 감전,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설치, 수거하실 때 배선과 소켓을 분리하여 작업하시면 편리합니다.
– 주로 파손되는 곳이 소켓이므로 소켓만 교환하여 사용하시면 환수,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 사찰용 연등전선 (법당용, 외곽용) · 등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 봉축현수막 : 실사
· 90cmX6m (48,000원)
· 90cmX7m (56,000원)
· 90cmX8m (6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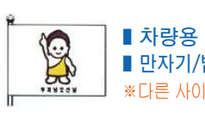
▮ 장엄 번(만장기)
· 90cmX210cm (40,000원)
· 90cmX230cm (45,000원)

▮ 지하철(장엄)현수막
· 105cm×200cm (40,000원)
※ 현수막 크기, 내용 변경가능


▮ 봉축리본 세트
· 일 반 : 25,000원
· 고급형 : 35,000원

▮ 연꽃리본
· 25,000원
※100개 1세트 (공통)

▮ 봉축캐릭터 앞치마
· 4,500원 ※ 200벌이상 주문시 사찰명 인쇄


▮ 차량용 깃발 · 4000원
▮ 만자기/법륜기/불교기 · 20,000원
※다른 사이즈 제작 가능


▮ 봉축 타이슬링
· 2,800원 ※4개 1세트


▮ 봉축 버튼
· 4,000원 ※10개 1세트

연 등


▮ 공단등
· 大-23,中-18, 小-15cm
· 황금,연분홍,진분홍, 빨강,흰색(영가등)


▮ 캐릭비닐터만월등
· 32cm × 32cm
· 분홍,파랑,빨강,노랑, 초록,색상별


▮ 황금연등
· 20인치,13인치, 10.5인치, 8인치,6인치
※ 최고급 금색 특수섬유 사용


▮ 연꽃등
· 진분홍,연분홍, 주황,연두,보라


▮ 캐릭터 청사초롱
· 소재 : 숙고사, 프라스틱
· 고급본염인쇄 · 1박스=100개
※ 300개 이상 주문시 사찰 및 단체명 무료인쇄


▮ 종 등
· 40cm × 27cm
· 노랑,연두,분홍, 빨강,오렌지


▮ 풍경등
· 빨강,분홍,노랑, 초록,파랑



▮ 만월등
· 32cm × 32cm
· 노랑,연두,분홍,빨강, 오렌지,흰색(영가),오색 등



▮ 비단팔모접등
· 28cm × 24cm
· 분홍,노랑초록, 빨강,파랑


▮ 팔각조립등
· 26cm × 28cm
· 핑크,오렌지,초록,파랑,봉축빨강, 봉축노랑,성도일빨강,성도일노랑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Mahamall.co.kr
주문전화 02-732-1520

인터넷 마하몰(www.mahamall.co.kr)에 오시면 3,000여종의 불교문화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006-01-0785-361 / 우체국 010041-01-012219 현대불교신문사 / 농협 053-12-113210 하동규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항상 꺼지지 않는 마음의 인등을 밝히세요!

마음의 등을 밝히려면…

문 해마다 초파일이 되면 색색깔의 등을 달아 어둠의 무명을 밝혀서 온 세상을 밝히고자 하는 서원을 세우지만, 진정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등을 켠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사의 문제들이 더욱 힘들게만 느껴지는 현실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부처님께서 오신 참뜻을 새기면서 마음의 등을 밝힐 수 있는지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답 작년 초파일의 오늘이나 내년 초파일의 오늘이나 삼천년 전 오늘이나 똑같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영원한 오늘입니다. 올해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또 한 번 다지고 다져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금 질문하신 분 말씀처럼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으로 이날까지 왔으며 우리가 항상 마음의 인등을 켜면서 꺼지지 않도록 하고 왔던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영원한 하루하루의 오늘을, 우리가 일 년을 하루로서 축소할 수 없다면 하루를 일 초로 축소할 수 없다는 그 점을 여러분은 잘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더불어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삼아서 마음과 또 말과 뜻을 한번 다져 보는 데 역점을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가와 사회 또는 가정, 그리고 조그맣게 말해서 우리를 위한다면, 또는 우리가 조화를 이루고 승화시킬 수 있는 길이라면,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면 어떻게 해야만이 발전이 되며 승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다져보는 초파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승화시키고 발전하며 조화를 이루면서 태평을 가져오고 국태민안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 항상 얘기했지만 전력은 언제나 발전소에서 용도에 따라서 항상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설이 본래 돼 있는 탓으로 우리는 용도에 따라서 언제나 쓸 수 있듯이 지금 우리나라의 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국태민안을 가져오게 하려면 용도에 따라서 씀씀이를 쓸 줄 아는, 그러한 한생각을 낼 수 있는 용도, 바로 활용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잘 돼서 넘어갈 수 있다면 조그마한 데서부터 큰 데까지 승화시킬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는 그 점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올해도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서 다지고 또 다지고 또 다져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 자신들이 자유스럽게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또 본다면 경제가 안정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이 한데 뭉쳐서 한마음으로서 서로 통하고 한자리를 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문제라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전 시대 모양으로 몸뚱이가 나서서 하는 것은 이 시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한생각을 해서 어려움 없이 타개할 수 있고, 어려움 없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더불어 향을 낼 수가 있고, 또는 한생각을 하면 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염매를 맺게끔 할 수 있는 맛을 낼 수 있다면 우리는 앞날에 있어서 조금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항상 등불을 켜는 이치가 초파일로 인해서 봉축을 하면서 등불을 켜게끔 돼 있나를 상세히 생각해 봐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한마음으로서의 불빛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인등을 켤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전력을 꺼내서 빛으로나 광력으로나 얼마든지 활력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그 뜻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뛰고 뛰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참선이며 그것이 바로 진리이며,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의 활용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승화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이며, 우리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곤적곤적하게 끊어지지 않는 진리가 아닌가 봅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다면 지금 무엇이 됐을까,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우리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생각할 수 있다는 이 점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그럼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문제가 온다 하더라도 타개할 수 있는 마음의 여건이 꺼지지 않는, 즉 에너지가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는 자기발전소가 돼서 그 전력은 나의 씀씀이에 의해서 스스로 나오게끔 돼 있는, 무궁무진하고 광대무변한 불성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조그만 거든지 큰 거든지 한번 스위치를 올리고 내린다면 역력하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일이 다가와도 걱정이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마음의 불이 켜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음의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승화시킬 수 있고 경제를 타개할 수 있고 앞으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며, 통일도 할 수 있는 문제가 다가오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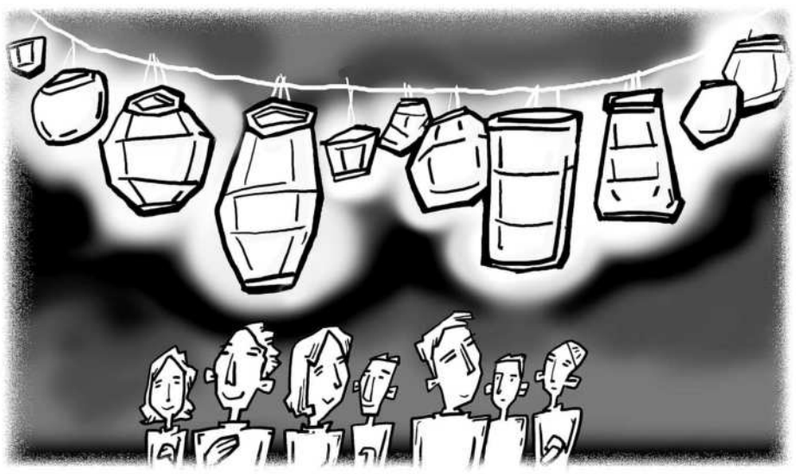
우리는 안팎이 맞아야 되듯이, 삼위일체가 맞아야 되듯이 우리가 주인과 나그네가, 즉 말하자면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게끔 돌아갈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나라의 여건이 주어져 있고 또 여건이 맞아서 우리 국민과 더불어 같이 한마음이 될 때에는 스스로 스스럼없이 평화를 가져올 수가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등불을 언제나 꺼뜨리지 말고 주인공이라는 자재력을 그대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세요.

그래서 올해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영원한 날이라고 생각했을 때, 무조건 여러분이 영원한 날이라고 이론으로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영원한 오늘임을 믿으세요. 물질은 변천하지마는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변천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가 어떻다고 하더라도 한생각을 급하면 급한 대로 마음을 내어서 국가가, 사회가, 가정이, 내 몸이 건전하고 건실하고 고에 끄달리지 않고 광명으로서의 우리나라가 부흥하고 우리 민족이 편안하고 어떠한 여건에 의해서도 단호히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둘이 아니기에 물리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어디로 가게 될까요?

문 현대불교신문을 통해서 좋은 법문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 이제는 육신의 옷을 벗어야 할 시기가 되고 보니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생 꽃 한 송이도 허투루 꺾지 않고 살아왔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생을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삶을 복되게 할 수 있는 한 말씀 해 주신다면 감사히 받아 지니겠습니다. 가르침 주심에 거듭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답 여러분이 그 도리를 알지 못하고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소를 끌고 가는데 어질게 생긴 큰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소들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나는 그 소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걸 보고 나도 울었습니다. 금방 그 소는 모든 무명을, 소의 무명을 벗고 그 의식을 내가슴에다 모두 안아 주니까 내가 돼 버렸습니다.


그림 · 최주현

일체를 그 자리에서 한다는 믿음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둘이 아님을 알아야

내가 돼 버리고 그 소는 온데간데없었습니다. 그랬으니 한 찰나에 바로 못난 이 사람이 된 거죠.

그 눈이 참 그렇게 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고기는 남의 약이 되지마는 네 마음은 바로 내 마음이니 네 몸은 모든 사람들에게 약이 돼 줘라. 그리고 네 마음은 내가 되면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해 놓고서는 거기서 한 바퀴 굴려서 내놨으니깐, '너는 그렇게 어질고 착한 것이 어쩌다가 소 옷을 입어서 남들이 부리고 때리고 채찍으로 치게끔 돼 있었니?' 하고 불쌍히 생각했습니다마는, 그 소가 들이 아닌 까닭에 언제나 그저 각각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온 것을….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애기를 못 낳는다고 달라고 그랬어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열 달이 되니까 아주 아들을 떡두꺼비같이 어질게 낳았거든요. 그러니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 도리를 아신다면 과거는 지금 짊어지고 나왔으니까,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지금 짊어지고 나왔으니깐 없고, 미래는 아직 가지 않았으니깐 없을 테고, 현실은 자꾸 돌아가니깐 그저 한마음이죠. 그저 자꾸 돌아가니까 공했느니라 한 겁니다. 그냥 아주 없어서 공한 게 아니라 자꾸 들어갔으니까.

그것도 궁금하실 게 없어요. 그게 궁금하시거든 내가 지금 어떡하고 살아가고 있나 하는 그것만 아시면 어디로 갈 걸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꽃 한 송이도 허투루 꺾지 않고 살아오셨다면 좋으신 데로 가시겠군요. 그래서 과거에 사신 거는 현실이고 지금 현실에 사시는 건 미래일 것입니다. 그러니 좋으실 테죠.

한 발을 내디디려면…

문 스님, 어떤 사람이 밝은 경지를 체험했는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내다가, 또 머무르지 않으려는 마음 속에서 또 다른 생각이 나오니까 그걸 의심하다가, 한 발 내딛지 못하고 뒤로 물러났다 하면 다시 어떻게 해야 한 발을 내디딜 수 있겠습니까?

답 이 공부는 한 발을 내디딜 것도 없고 들이디딜 것도 없는 공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경지가 이만하면 됐다, 또는 내 경지가 이만하지 못하다 이러한 생각까지도 놔야 됩니다. 공부라는 것은 참 엄청난, 따지고 본다면 너무 엄청난 공부입니다. 정말이지 모든 우주의 혹성들이나 별성들도 다 왕래할 수 있는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한생각을 해서 한다면, 정말 지진이 나는 것도 어떤 때는 만약에 나라면, 이 땅도 전부 생명이 있는 겁니다. 전부 세포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통신이 되고 모든 것이 내가 될 수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공부라는 거는 그렇게 한 발 디뎌 놓는 게 공부가 아니고 한 발 내려놓는 것도 아니고 또 내 경지가 이만하다 하는 것도 아니고 저만하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자기가 자기를 발견했으면 내가 내 소릴 들었을 때에, 내 소릴 듣는다면 그때서부터 실험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둘 아닌 실험! 실험으로 들어가는 거죠. 육조 스님도 16년을 그렇게 실험했고 달마 선사도 9년을 면벽을 하면서 실험을 했습니다. 각자 조사들도 그렇게 했죠.

그런데 지금 어떤 분들을 가만히 보면요, 한 소식 얻어 가지고선 실험도 하지 않고 갓난 어린애를 낳아 놓고 키우지 않는데 어떻게 사회인이 됐겠습니까? 갓난 어린앨 나았으면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우고 길러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한 소식 얻었다고 그냥, 즉 말하자면 경서하고 한데 합쳐서 그게 통했다고 하다가 보면 한계가 생기죠. 한계가 생기면 그 경서를 보지 않고는 도대체 설법이 나가지도 않죠. 설법이 나가지도 않는 반면에 그게 그냥 법이 안 되고, 법설이 안 되고, 한데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법을 한대도, 말없다 하더라도 그게 충전이 되게끔 하는 거죠. 충전이 되면서 그 말도 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거지 말만 하고서 이론으로 또 떨어진다면 그 사람들한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더불어 같이 이렇게 충전이 되면서 전기와 광선 자력도, 자력은 무한의 자력이며 자석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력도 자가발전소라야지 자가발전소가 아니라면 전기가 나갔다, 꺼졌다, 고장 났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전력이라는 것은, 자가발전소라는 것은 꺼지고 켜지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시는 데는 무전통신기도, 지금 요런 데서 그냥 무전통신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어디고 생각했다 하면 가고 오는 사이 없이 가고 오고 통신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미국엘 가서, 내가 통했다면, 난 통하지도 못했지만 말입니다. 미국에서 만약에 "스님! 지금 이러이러하니 어떡했으면 좋겠습니까. 나좀 살려 주세요." 할 때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뭐 여권 받고 비자 받고 하려면 벌써 죽은 뒤에 가야죠. 그러나 마음은 빛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거길 그대로 그 당시에 그냥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치신 그 뜻은, 49년을 설했고 행으로 보여 줬고 그랬는데도 우리는 그 뜻을 모르고 항상 무슨 크니 작으니, 여자니 남자니 하면서 논설이 불고 투기를 하고 질투를 하고 아집을 가지고 온통 그러는 거예요. 왜냐? 모든 것이 벌레하고도 나하고 도반인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이 모두가 부처인 것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나는 높고 너는 얕다 이런다면 벌써 그건 글렀습니다. 왜 똥 친 막대기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부처가 어떤 거냐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또 여러분의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에 부모라는 이름만 가졌지 그게 심부름꾼이지 부모입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에 어려서 유리창을 깨뜨려도 아이 부모가 물어줘야죠, 부모의 책임이니까. 그와 같이 언제나 한 발 내려디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붙을 자리가 없는 이유

문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업보도 지은 게 없고 원죄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불을 자리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르침 주십시오.

답 우리는 지금 찰나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땅에 발을 붙이고 산다 이러지만 그 사는 게 지금 고정됨이 없이 막 찰나찰나 돌아갑니다. 그걸 표현할 때, 아버지가 됐을 때는 의연히 아버지 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여보!" 하고 아내가 부를 때는 의연히 남편 노릇을 합니다. 그렇게 돌아가다가 "얘, 아무개야!" 하고 부모가 부를 때는 의연히 자식 노릇을 합니다. 이렇게 찰나찰나 돌아가는 이치 속에서 그 마음은 체가 없어서 그저 찰나찰나 돌아가는 이 판국에 거기 업보 불을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업보가 있다 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나는 업보로 인해서 이렇다!' 하니까 업보가 붙는 거지 업보는 불을 자리가 없는데 거기 어떻게 업보가 붙습니까? 과거는 바로 현재에 짊어지고 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에도 공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거기 업보가 붙을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또는 죄 불을 자리도 없을 뿐 아니라 모든 것에 끄달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그런 데서 끄달린다면 바로 차원은 3차원의 차원도 4차원의 차원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 업보가 불을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내놔 보십시오, 거기 불을 자리가 있나. 금방 아버지 노릇 하고 금방 남편 노릇 했는데, 방귀 뀌면 뽕 소리는 났는데 도대체 간 곳이 없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 병 불을 자리가 없다 하는 것을 완전히 터득을 하시고 물리가 터지시려면 나부터, 나부터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나부터 믿고 믿는 마음

☞30면으로 계속

나부터 믿고, 믿는 마음서 물러서지 마세요!

☞29면에서 계속

에서 물러서지 마시고요. '주여, 잘해 주십시오.' '부처님이여, 잘해 주십시오.' 이럭하면 벌써 둘이 돼요. 그러면 그 업보가 붙게 되는 거죠. 일체를 그 자리에서 한다는 믿음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둘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도를 구하고 있는 건가요?

문 참다운 공부를 하려면 젊은 나이에 삭발염의를 하고 출가를 해야만이 된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도리를 실천해 나가다보니 실질적으로는 절에 안 들어가도 제 스스로 지금 도를 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소견이 올바른 것인지 가르침 주십시오.

답 그 도리를 제대로 알면 됩니다. 그런데 처자식을 자기가 인연지어 놓고 그것도 버리고 먼 데 가서 좋은 거 찾자고 가는 것도 자기 마음이 잘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머리를 깎느냐. 승복은 희지도 않고 검지도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무(無)의 세계와 유(有)의 세계를 한데 합친, 바로 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순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승복 색깔이 희지도 않고 검지도 않고, 머리를 깎은 거는 이 세상, 어지러운 무상한 세상을 깎아 버린 겁니다. 무상하다 하는 거는 무상한 것을 구태여 그렇게 놔 둘 필요가 있나 해서 그냥 깎아 버린 겁니다. 그걸 수효로 헤아릴 수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왜 입산을 하고 그러느냐. 여러분보다 우리가 위대하죠. 왜 위대하냐. 높고 낮음은 없지만 높은 건 높고 얕은 건 얕죠. 평등하지만 너는 너고 나는 나인 거죠. 그런 관계상 우리는 가정을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탁 나와서 입산한 것만 해도 여러분보다 90%가 위죠.

또 하나, 들째로는 모르는 중생들이 벌써 승복을 입고 머리를 깎은 사람을 보고 "스님! 날 좀 구원해 주시오." 하지, 아니 승복도 입지 않고 머리도 안 깎고, 공부를 했다고 그래도, 공부 못 한 사람들도 그걸 볼 줄 알면 꿰게요? 자기네들하고 똑같은데 거기 가서 나 좀 구원해 달라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중생을 건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천체를 구하려면 법을 구하고, 또는 이 세상의 중생들을 제도하려면 보이는 데 방편으로써 이렇게 깎아야 되고, 우리가 공부하려고 깎아야 되고, 나중엔 알아 가지고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또 기르지 못하고. 그러니까 중 되기가 점점 갈수록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그러니 잘 생각하세요. 자기 몸뚱이가 화두요, 자기 몸뚱이가 움죽거리는 게 바로 보현이요, 자기가 생각 내는 게 법신이요, 자기가 가만히 앉았는 게 부처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세속에서 움직이게 되면 자연히 죄를 낳는다고 하면서 산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 하면서도 함이 없이 하는 것이 바로 죄를 안 짓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오든 지금 발자취를 짊어지고 가고 오십니까?

그래서 차와 운전수와 기름을 비유하자면, 차는 여러분의 몸과 같고 운전수는 여러분의 마음과 같고, 기름은 여러분 낳기 이전, 즉 말하자면 주처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불성입니다. 불성으로 치면 됩니다. 탁 불이면 불이 번쩍 일어나듯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차와 운전수와 기름과 그렇게 배합이 됐다는 얘깁니다. 그게 화두예요. 그리고 그거를 화두라고 알면 그냥 우리 살림살이가 참선이구요. 그래서 생각이 있으면 나는 조용하게 좀 앉아 있고 싶다 그러면 앉아 있는 거고, 내가 서서 좀 명상하고 싶다 그러면 명상하고, 졸립다 하면 자고, 똥 누고 싶다 하면 똥 누고…. 아, 그런 게 그대로 여여하니, 그게 삶이요, 그게 참선이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림 · 최주현

부활절에 대해서

문 다빈치 코드라는 책을 보다가 부활절의 의미가 궁금해서 백과사전에 찾아보니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축제일로 생명의 탄생을 의미하는 달걀에 서로의 소망을 담은 정성스런 그림을 그려 서로 교환하는 의식을 행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키고 있는 부활절은 춘분(3월 21일경) 후의 최초의 만월 다음에 오는 첫째 일요일이어서 보통 3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지켜진다고 쓰여 있더군요. 참으로 의아한 게 서양 사람들이 양력도 아니고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한 날짜도 없이 나라마다 종파마다 해마다 다른 부활절을 기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진리의 차원에서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답 사람이 죽고 태어나고 생사를 두고 하는 말도 거기에 관계가 있다고 보죠. 부활절이 다 하는 것도 사람이 죽었다가 태어나는 것,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영원히 살아 있는 겁니다. 부활절이 오늘만 부활절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부활절이 있었고 지금도 언제나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부활절이요 내일도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오늘만 부활절로 생각해선 절대 안 됩니다. 영원한 오늘입니다. 어저께도 오늘로 짊어지고 나왔고 내일도 다시 오늘로 짊어지고 나옵니다. 과거도 미래도 바로 오늘이니까요. 오늘은 영원히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영원히 오늘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 오직. 부처님 오신 날에 메시지를 써 달라고 그래서요, "영원한 오늘이야. 우리가 살아 있고 우리가 모두 불에 타서 다 없어진다 해도 그 자체의 영혼만은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영원이야. 영원히. 영원히 오늘이야. 오늘." 그랬습니다. 여직껏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아 계시는 한 예수도 부처도 다 살아 있는 겁니다. 그게 부활절이죠.

오늘도 부활절, 내일도 부활절입니다. 오늘만이 아니에요. 생각을 고렇게 얍삽하게 가지시지 말고 느긋하게 넓게 포용력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데 그거를 잘 지킬 수 있다면 항상 살아 계시는 걸 알고 자기와 둘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면 항상 밝게 살아나가고 거짓이 없을 거고 시간도 지킬 거고 도의 의리도 있을 거고 아주 깊은 자기도 있을 것입니다. 어때요? 납한테다 뒤집어씌우기 이전에 자기가 좀 다 쓰면 좀 어떻습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 났으니깐 자기 탓이지 누구 탓입니까, 그게, 다. 그러니 오늘 오늘 하루하루를 항상 부활절로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좀더 사람이 달라지고 우리가 앞으로 밝게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기지 않을까요? 왜? 날마다 충전이 되니까요. 어때요? 일 년 내내 충전이 안 되다가 그래 부활절 하루만 충전을 해 가지고 살겠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안 틀립니까?

저는 오직, 내 마음은 하나도 버릴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에 따라서 예수를 생각하면 예수가 되는 거고 성모 마리아를 외우면 마리아가 되는 거고 구원을 받으려고 앨 쓰는 사람이 있다면 아, 그거 돼 주지 뭘 그래요? 그건 마음입니다, 네. 또 "아이구, 관세음보살!" 가난해서 그렇다면 좀 관세음보살이 돼 주고 또 좋은 데로 못 가서 앨 쓴다면 지장이 돼 주고 아파서 앨 쓴다면 약사가 돼 주고 아, 그러는 거지, 뭐 거기에 이름대로 따로따로 있는 겁니까, 어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그러해요. 우리 종교인들이 알아야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부활절로 생각한다면 항상 충전이 되죠, 새롭게 새로 충전이 되고. 그러니 지나간 거를 산다고 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게 그냥 생명이 다시 화해 가면서 탄생을 하는 겁니다. 알아지는 것도 탄생이거든요.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게 그냥
생명이 다시 화해가면서 탄생을 하는 겁니다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해요"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737-8881 (02)737-0090, 팩스(02)737-0697

사찰, 법당, 앰프 전문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 코 음 향 연 구 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수행건강학과
학인모집 안내

1. 모집기간 : 수시모집 (지역 교육원에서 접수)
2. 교육과목
- 무량의경(한문)
- 묘법연화경(한문)
- 관.보현보살행법경(한문)
- 황제내경(소문.영추)
- 건강증진 = 운동요법
- 자연치유 = 식이요법
- 대체의학 = 경락요법



학장 최광영

3. 교육기간 : 4년 (8학기) 수료
4. 교육일시
- 대 구 : 화요일 오전 10시30분 - 12시30분(평일반) 토요일 오전 10시30분 - 12시30분(주말반)
- 부 산 : 목요일 오후 2시 - 4시

5. 교육장소
- 대 구 : 동대구역 옆 동대구빌딩3층
- 부 산 : 부산역 옆 삼진빌딩2층

6. 기타특전
- 수료증서 수여
- 수행지도자 자격증 취득(검정후)
- 전문경락사 자격증 취득(검정후)
- 평생학부과정 진학자격부여(평생무료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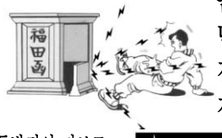
7. 문의전화 : (053)952-8711. 017-501-8711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 4동 276-25번지

韓 國 平 生 大 學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가격 수요증가로 시중품과 가격동일
움직이거나 덜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각지역 대리점 모집



서원기전 특허 043-647-2378, 011-467-1472

하기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올해 74세인 김소향 · 조영자씨가 유치원을 방문해 성북노인복지관에서 배운 동화구연을 하고 있다.

일이 있어 행복한 황혼

직업 편견 없애고 평소 건강관리 잘해야
복지시설 통한 교육형 일자리도 한 방법

노인재취업 '정보' 없나요

통계청이 발표한 '2004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만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인구의 7%를 넘는 '고령화사회'다. 그러나 정년퇴직한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다. 막상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 해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막막하다. 행복한 노후도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오는 법. 노인재취업으로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제2의 '시작'임을 증명하는 어르신들을 만나보았다.

#사례1=박명호(70 · 경기도 고양시)씨는 요즘 아침 6시 30분까지 아파트 경비사무소로 출근해 아파트 입주자들의 안전을 책임진다. 한때 여러 회사의 대표이사자리까지 지냈던 박씨지만, 이제는 '아파트 경비'로 당당하고 활기찬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박씨는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지완 스님)내에 있는 '중앙고령자취업알선센터'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했다. 센터에 구직신청을 하고 상담복지사와 과거 경력과 직업, 희망 직종, 원하는 급여 수준 등에 대해 상담하면 원하는 일자리를 소개받을 수 있다.

박씨는 제2의 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있으면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취업담당 사회복지사의 말에 따라 컴퓨터로 이력서를 작성했고, 가족들에게 취업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 전폭적인 지지도 얻었다. 건강도 취업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박씨는 면접 시 "10년 전 담배 · 술을 끊고 꾸준히 건강관리를 해왔다"고 말해 노인 채용을 조심스럽게 생각했던 담당자들을 설득했다.

현재 이 같은 불교계 노인 재취업 사업은 대형복지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약 6개월간 일하는 임시직이 대부분이며 월평균 20~60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주로 지하철 택배나 텔레마케터, 세탁소 운영, 도시락 배달 등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각 지역 노동부의 고용안전센터와 산업인력공단의 고용촉진센터에서도 원하는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다.



중앙고령자취업알선센터를 통해 재취업 해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 박명호씨.

불교계 노인재취업 알선 하는곳

서울노인복지센터	(02)739-9501
서울은평노인종합복지관	(02)385-1351
서울성북노인복지관	(02)929-7950
서울광진노인종합복지관	(02)466-6242
고양일산노인종합복지관	(031)919-8677
수원서호노인복지관	(031)291-0911
대전서구노인인력지원기관	(042)471-5545
춘천시노인종합복지관	(033)255-8866
춘천노인인력지원기관	(033)256-0007
전주서원노인복지관	(063)227-7483
광주남구노인복지회관	(062)366-3677
여수시노인복지회관	(061)685-2381
여수노인인력지원기관	(061)692-4555
경주노인인력지원기관	(054)775-1950
의성노인복지회관	(054)833-6006
울산남구노인복지회관	(052)265-5221
대구남구노인인력지원기관	(053)471-8090
부산서구노인인력지원기관	(051)244-6700
부산금정노인인력지원기관	(051)516-3045

#사례2=99년 경제 한파 이후 일자리를 찾아 나선 김소향(74 · 서울시 정릉4동)씨. 작년 11월말 진각복지재단의 성북노인종합복지관(대표 최세정)에서 동화구연가 2명을 뽑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릎을 탁 쳤다. 평소 손녀들이 "할머니 이야기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요"라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동화구연가는 교육이 필요한 전문직. 그래서 김씨는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뒤 지금은 2인1조 동화구연가로 활동하는 중이다. 김씨는 요즘 인생을 다시 사는 기분이다. 일이 있어서이다.

'번역가', '동화구연가', '숲 · 문화재 해설가' 등의 직업은 뽑는 인원도 적을 뿐 아니라 늘 구직자들이 몰리는 인기직종이다. 따라서 평소 그에 관련된 정보들을 늘 수집해야 한다.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등이 주로 이러한 '교육형' 일자리를 소개한다.

교육형 일자리들은 14주 144시간(24회, 주2회 6시간) 동안 전문가와 교수로부터 이론과 현장교육을 받은 후 현장실습(4주)을 거쳐 각 복지관 소속으로 현장에 배치된다. 월급은 평균 20만 원선. 지방에서는 전국 약 30곳에 설치된 노인인력지원센터와 복지관이 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그 중 불교계노인인력지원기관은 8곳이다.

저소득이지만 일 자체에서 만족을 찾을 수 있고 채용된 뒤에도 꾸준한 학습과 자기관리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지원가능하다.

▌노인 취업준비 요령 10가지

1.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
2. 고령자의 건강상태를 걱정하여 채용을 꺼리는 회사도 많다. 평소 건강관리를 충실히 한다.
3. 직업에 대한 편견을 없앤다. 과거에 집착하여 대접받기를 바라지 않는다.
4. 재취업 전 가족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 가족들이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줄 것이다.
5.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이 원하는 직무나 분야를 결정한다.
6. 해당분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신문을 꼼꼼히 읽으며 취업 트렌드를 파악한다.
7. 정부정책에 관심을 갖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8. 공공취업알선기관을 방문하여 취업정보는 물론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9.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따거나 노인인력지원기관에서 훈련과정을 이수한다.
10.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발휘해 깔끔하고 간결하게 작성한다.

(서울시중앙고령자취업알선센터 제공)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김재일 교수의 티베트의학 산책 (15)

룽 때빠 왜껜, 정신·성정에도 적용

셋째, 감미왜껜(感味痰)은 혀와 구강에 위치하여 음식물의 단맛 신맛 짠맛 쓴맛 매운맛 그리고 떫은맛을 감별한다. 이 왜껜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맛감각을 상실할 수 있다. 넷째, 만족왜껜(滿足痰)은 머릿속 시상에 자리하여 오감 즉, 시각 미각 후각 청각 및 촉각으로부터 희 · 로 · 애 · 락 등의 여러 감정을 느끼고 만족시키는 기능을 한다. 사고로 이 왜껜이 위치한 시상이 손상되면 오감의 감각기능에 장애가 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연결왜껜(連結痰)은 모든 관절에 존재하며 관절이 원활하고 신축성 있게 잘 움직이도록 한다. 연결왜껜에 이상이 생기면 운동기능의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지금까지 티베트의학의 중요한 이론적 근간이 되는 세 기본에너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세 기본에너지는 신체의 생리 및 생화학적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룽(氣)은 일반 대사 활동으로 뿐 아니라 신경계의 활동으로 볼 수 있고, 때빠(膽)는 분해 대사과정과 왜껜(痰)은 구성 대사과정과 더 긴밀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기본에너지가 제자리에 적당량 알맞게 균형을 이루면 건강이 유지된다.

세 기본에너지는 각각 다섯 유형으로 분류되어 고유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결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성질도 함께 지닌다.

룽의 본성은 거칠고(粗) 가볍고(輕) 차고(寒) 연약하고(微) 딱딱하고(硬) 움직이는(動) 여섯 가지 성질이다. 때빠는 기름지고(貳) 격렬하고(銳) 뜨겁고(熱) 가볍고(輕) 냄새나고(臭) 씻어내고(瀉) 축축한(濕) 일곱 가지 성질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왜껜은 기름지고(貳) 서늘하고(凉) 무겁고(重) 둔하고(鈍) 한결같고(穩) 부드럽고(柔) 끈적끈적한(粘) 성질들을 가지고 있다.

이 세 기본에너지의 본성은 광범위하게 티베트의학에 두루 적용된다. 생리적으로나 병리적으로 비단 신체뿐 아니라 정신구조와 성정을 기술할 때도 세 기본에너지를 적용한다. 그래서 사람도 그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먼저 룽형은 위에 언급한 룽의 본성을 기본으로 몸이 새우등처럼 구부정하고 호리호리하며 안색이 파르스름하게 창백하며 관절에서 삐걱대는 소리를 잘 낸다. 룽형의 사람은 노래하고 떠들고 웃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과 논쟁이나 말싸움하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저항력이 떨어지고 감기에 잘 걸리며 신맛과 쓴맛 나는 음식을 즐겨먹는다. 다음 때빠형의 사람은 역시 때빠의 공통적인 본성을 기본으로 갈증과 허기를 잘 느끼고 머리칼이 노란색이며 보통 키에 안색이 불그스레한 특질을 지닌다. 때빠형은 똑똑하지만 다소 우쭐대는 성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왜껜형은 왜껜의 기본 본성에 몸이 차고 냉하며 키는 땅딸막하고 안색이 창백한 특질을 지닌다. 왜껜형은 신 음식을 좋아하고 장수와 부를 누리며 기질적으로 명랑하고 낙천적이다.

이들 세 유형의 특질들이 각기 독단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서로 이리저리 다른 특질들이 섞여서 그중 우세한 특질이 그 사람의 고유 유형을 결정하는 것이다.

서로 섞여 우세한 특질이 사람 고유 유형 결정
일곱가지 인체 구성성분 균형 이뤄야 건강

예를 들면 룽형의 특질과 왜껜형의 특질이 섞인 사람은 항상 키가 중간 정도의 보통 키인 반면, 때빠형과 왜껜형의 특질이 혼합된 사람은 예외 없이 키가 크다. 티베트의학에서는 이러한 사람의 고유 유형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일상에서도 항상 자신의 체질과 어울리게 생활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세 기본에너지가 일단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 일곱 가지 인체의 구성성분과 세 가지 인체의 배출기능도 균형을 이룬다. 티베트의학에서는 인체가 기본적으로 일곱 가지의 구성성분으로 이루어지며, 각 구성성분이 일정량 정확한 균형을 유지해야 건강이 보장된다고 본다. 그 일곱 가지 기본 성분은 음식물의 소화로부터 시작되는 일련의 대사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필수영양소 혈액 근조직 지방 골격 골수 그리고 정액을 말한다. 이 일곱 가지 인체의 구성성분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다음 회에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주대교수 · 한국티베트의학원장

실기 훈련을 위주로 하는
설법 연수

● 교육목표
각 개인별 특수성을 파악하여 설법의 실기 연수과정을 통한 능력배양, 자료를 재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 시킬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교육내용
1. 가치관의 체계확립 및 성격
2. 단전호흡의 이론과 실제
3. 전법의 개념 및 부처님의 5종 설법
4. 전법 및 훈련자료에 의한 연수
5. 음성언어와 몸짓언어의 이론 및 실제
6. 원고 작성법(문장구성 및 내용구성)
7. 표현상의 修辭 및 논리상의 修辭
8. 상담적 대화의 이론 및 실제
9. 회의진행법, 토론 및 각종 사회진행 요령
10. 인사말, 축사, 격려사, 주례사 등 요약

※ 특징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 모집 : 수시모집(주문식 개인지도) - 총 8회과정

◆문의 및 신청◆
TEL 02)747-1567
H·P 011-248-1567

한국설법연수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봉 축
제7회 흥천사 경로잔치

■일 시
2005년 5월 7일(음, 3월 29일) 토요일
오전 11시 ~ 오후 3시

■장 소
흥천사 경내 및 흥천사 앞 광장

■초청대상 :
군산 거주 65세 이상 노인 1,500명
(선물증정)

■내 용 : ●1부 - 점심식사
●2부 - 기념식
●3부 - 공 연
(사물놀이, 각설이타령, 반야재롱, 장기자랑 등)

대한불교보문종 흥 천 사
회주 지환
주지 법희
신 도 일 동 합 장

전북 군산시 금동 / 전화 063)445-3769

최면-전생-빙의치유 상담
- 개인상담 및 치유, 교육 및 세미나 -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아래와 같은 각종 스트레스, 심리적 문제, 인생문제, 고민에 대해 직접 개인상담과 교육 및 세미나를 해드립니다.

- 불안증
- 우울증
- 각종 중독증 (담배, 알코올, 음식, 약물)
- 각종 알레르기 문제
- 섭식장애 (비만문제)
- 홧병 및 각종 신경성 장애
- 업장과 관련한 전생문제
- 빙의 문제

• 상담지도전문가 -



설기문 박사: 상담심리, 최면 및 전생치료, NLP치료 전문가, (전)동아대학교 교수로서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최면과 최면치료", "최면과 전생퇴행", "NLP의 원리"와 같은 다수의 의 전문서적을 저술하였음.

한국 최면-전생상담 연구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 1062-2번지
031-442-5598, 011-1762-4598
www.mindcoach.co.kr kmseol@daum.net

불화.선묵화 공모합니다



금번 현대미술대전 공모전에 불화.선묵화 부문이 채택 되어 작품을 공모합니다
혼자 공부해오신 스님, 불자님들께서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오니 많은 참가 바랍니다.

▌접수기간
2005년 6월 1일 ~ 6월 2일(2일간)
▌전시일시
2005년 6월 4일 ~ 6월 8일
▌전시장소
서울국제디자인 프라자 예술관
▌문 의 처
02)745-0210 현대미술사무국

※ 달마도(선묵화) 제대로 배우실분 통신 지도합니다
속리산 달마선원 (선묵화예술원)
원장 범주스님 054)535-0378

한국불교 1번지, 종로에서 새로운 인연을 맺읍시다

하늘이 내린 명당 – 王家의 明堂 종로1가 대성스카이렉스



종로의 가치와 품격을 높인 최고급 주거명품 – 종로1가 대성스카이렉스

불교의 중심지 한국 불교의 총 본관인 조계사가 50m거리에 위치한 불교문화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 인사동, 경복궁, 북촌한옥마을, 세종문화회관, 교보문고 등이 인접한 문화, 예술의 중심지

교통의 중심지 종각역, 광화문역이 도보 1~2분, 안국역 도보 5분거리 트리플 교통의 중심지

교육의 중심지 최고의 전통적 명문학군인 덕수초등, 청운초등, 경복고, 청운중, 풍문중학교 등 교육의 중심지

생활의 중심지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및 조선호텔 등 편의시설이 인접한 쇼핑 및 비지니스의 중심지

모델하우스 및 현장위치도



아파트(44, 51, 55, 56평형) 오피스텔(18, 20, 23평형) 상가 지하 1층~지상 4층까지

분양문의 : 02)722-5454 시행사 hageo+ (주)하지오플러스 시공사 대성산업 건설부문